타일
OR,TILE
8 軍納品
상하는
제이커
구工業社
-7375 · 23-9860
turing Ind., Co.
on-Ku

KAA JOURNAL

건 축 사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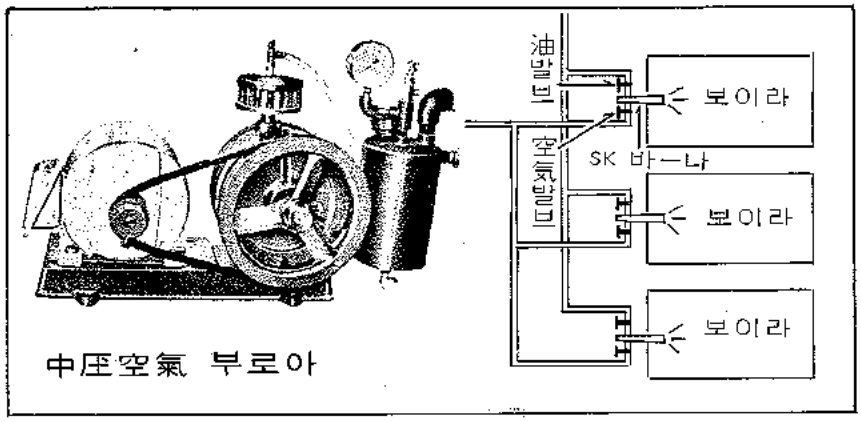
may 5

대 한 건 축 사 협 회 지

방카 C 油 燃燒機의 王者!

SK 오일바-나

(東 浜)



日本新三立興業CO. 製

特 徵

① 1台의 부로와로 数個의 보이라에 同時에 使用할 수 있으므로 他에 比하여 価格面에서 싸게 된다.

② 無故障 完全 燃燒로 使用이 簡便하다.

③ 停電時 蒸氣로 對替 使用할 수 있다.

Rotaly Bur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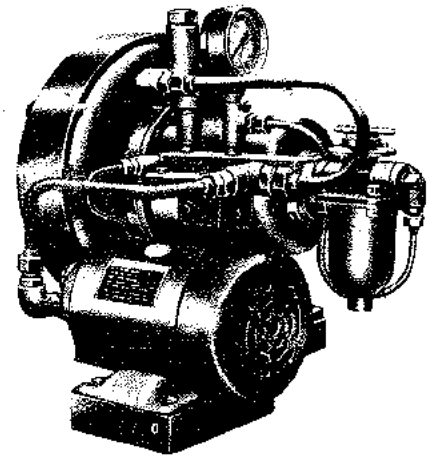
重油와 空気의 加減이 自由로 되고 특히 重油와 空気가 完全히 混合되기 때문에 中性焰, 還元焰, 酸化焰은 自由로이 얻을 수 있으며 또한 燃燒機 自体에 附着된 air nozzee의 交換에 依하여 炉構造에 適応한 火焰을 만들수가 있다. 燃燒空의 混度가 自由로이 調節되며 始動 消火가 簡短하여 消費가 없다.
其他 各種 오일바ー나 具備 施工都散賣

用 途

① 高層 빌딩用

② 重工業用

③ 特히 繊維工業의 濕度調節 兼用으로 最適



SK 오일바-나 韓國總代理店

株式会社 安陽社

서울 世運商街 가棟 가列 138号
TEL. 74－3535・72－1111

窯業센타製品

드디어市販開如!

✻製品特性✻

1. 서독과 기술제휴로서 생산된최신 우수한 제품으로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2. 규격이 일정하므로 시공이 용이하고 형태가 합리적이어서 사용에 편리 합니다.
3. 특히 벽 밑바닥에 밀착되도록 접촉면이 연마되어 있읍니다.
4. 시공의 편의를 도모하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폐사 특제금구 및 부속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읍니다.

株式会社 窯業센타 総販元

三 元 商 社

서울特別市中区乙支路二街 101의2

(파라마운트劇場 옆)

電 話 (28) 6 3 4 5 番

여러분과 더불어

25年

各種塗料製造元

三和페인트工業株式會社

별표 제353호

本社：서울特別市 鍾路区 廟洞 125番地
TEL. (交) ⑦⑤ 7734 (代表) - 40
工場：서울特別市 城北区 倉洞 592番地
TEL. ⑨② 2736 - 8

現代建築 內裝의 3大 課題—
방음·방습·보온을 완전 해결한

三榮하—드보—드

무늬보—드

立体的이어 아름답고 濕氣와 소음을 防止하며 쥐가 接息치 못하는 가장 새로운 建築 內裝材.

프린트 보—드

하—드보—드 表面에 優雅하게 塗裝된 國內最初의 新製品으로 우수한 高級內裝材.

吸音板

木材 纖維로 製造된 國內唯一의 断熱吸音 材로써 防音이 完全하며 절대휘거나 뒤틀리지 않는 天井用 內裝材.

三榮하—드보—드工業株式會社

■ 서울사무소 : ☎ 26—3201～5 ■ 서울總販 ☎ 52—3006～7

서울特別市中区乙支路3街296

표시허가 제374호
5C－650방열기
표시허가 제420호
관이음쇠

기 술 의 상 징
KANGWON BRAND

강원 라지에타 콘벡타 관이음쇠

- 5C-650 RADIATOR
  5C-500 RADIATOR
- WALL RADIATOR W-7B
  (5kg/cm² 水圧試験合格品)
- CONVECTOR
- PIPE FITTINGS
  (10kg/cm² 水圧試験合格品)

暖房・配管用生産品種

國內 最大規模의 量産体制로서
여러분께 奉仕하고 있읍니다.

【兼營業種】
江原製作所・江原炭砿・三票煉炭
三 票 石 油・三票骨材・三江運輸

江原産業株式会社

本社 서울特別市鍾路区新門路二街6　營業部(直) 73－5514
TEL. 75－2381～5

대한건축사협회지 **건 축 사** 1970년 VOL. 8 NO. 21 MAY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ARCHITECTS

Published monthly at 25, Ika, Euljiro, Chung-ku, Seoul Korea

U. D. C. 69/72(054-1) : 061·22(519) 1970년 5월25일 발행(월간)

분류번호	建 築 士 誌
도서번호	통권 제 21 호
구입년월일	19 .
대한건축사협회	지부

목 차

70년대의 작가 ⑤ 컬린 · 존 · 윌슨 6 편찬위원회

고전적인 문제의식과 현대건축 6작품

미국학생들에게 윌슨

이달의 작품 21

세검정 L씨집 김문규

삼청동 S씨집 김규오

상도동 B씨집 변 용

특집 캠퍼스 플래닝 35 김석철편

대학과 그 기능 화이트헤드

새로이 지어지는 7개의 대학안에 대한 분석과 비평 자끄 · 프르드

록 · 바러 대학교 오브 · 에이립

이스트 · 앵글리아 대학교 대니스 · 래스먼

바드 대학교 로버트 · 매듀우, 존슨 · 마샬

벽사의 미술 58 조자용

도시계획과 시가지 지반고 66 신문철

협회기사 68

■ 발행소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특별시중구을지로 1 가25번지 정양빌딩601호실 / 전화 28－9802 · 22－2617 ■ 발행인겸편집인 / 강병구 ■ 인쇄처 / 대한공론사 ■ 등록일자1967년 3 월23일 ■ 등록변경 / 1970년 1월 8 일 ■ 등록번호 / (제라－1251호) ■ 인쇄 / 1970년 5 월24일 ■ 발행 / 1970년 5 월25일 ■ 월간 ■ 전체구좌 / 한은무교지점1955호

70년대의 작가 ⑤ 컬린 존·윌슨 WILSON

고전적인 문제의식과 현대건축 :

고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건축은 보편성을 띄는 정신적 포괄성이 상실되어 있고 보편적 기교를 갖지못하여 내용과 형식 모두에 있어서 시사적이다. 시사적이라는 말은 시대적이 오히려 아니라는 말이다.

오늘의 건축들은 일종의 반 현대건축적이다.

컬린·존·윌슨은 '개혁은 아직 끝난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현대건축의 정통적인 흐름속에 있는 작가다.

그는 생활에 밀착한 것을 실현함으로써 어떤 장소에 촛점을 두고 생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려고 한다. 그의 건축에 대한 의지는 건축적진실에 대한 의지다. 건축적 일관성은 사실상 논리적 일관성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건축적 신실은 건축에 있어서의 내적구조제반요소의 총체적 통합과 연결성을 가르킨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각 부분의 밀착을 확보하는 내적 법칙이다.

그의 건축은 사회, 기술, 형태와 서로 일련의 관련을 갖고 도어의 손잡이에서 시가지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질서의 이해 관계를 보여준다. 그는 보통의 인간에게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을 의도한다. 그의 건축은 자기표현에 몰두한 성서적인 카타르시스가 아니다. 그의 작품들은 의미와 관련된 공간구성에 의해서 생활의 밀도를 생명적 특질로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서 건축은 사차원으로 된 우화며 정신적 경험의 상징이다. 그는 생활의 개연성을 일회적현실 즉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하여 항상적 가능으로 표현하려는 현대건축의 정통적인 길을 가고 있다. 그의 건축은 시와 마찬가지로 상황…인간을 탁월한 형식으로 표현한다. 그는 시각적 제 가치를 가지고 보편을 추구한다.

고전은 항상 시대적이었다. 윌슨은 잊혀진 현대 건축의 외로운 길을 가는 현대 건축가다. 그의 집들은 영국적이고 현대적이다.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美國학생에게 편지

이 기사는 New York에 있는 Columbia 대학 건축학부가 발행하는 잡지 PRORAM 1964호에 게제 된 것이다.

나는 미국 건축의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고 싶지는 않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비평가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으나 여기서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것 같다. 나도 Columbia 대학에서 개최된 "30年代의 건축가"의 심포지움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회에 있어서의 건축의 역할에 대한 해석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로는 이 심포지움에 참가한 사람들이 말하는 《현대건축》은 나로서는 현대건축이라 인정할 수가 없었다. 대개 그들이 말하는 현대건축은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전주의의 영향을 받은 inter national style로 불리우는 원숙도의 관점에서 논하여 졌던 것이다.

"아테네 헌장"도 Hot Insalubre도 없고 "건축이냐 개혁이냐"의 부르짖음에 공명하는 소리도 없다. 새로운 Standard를 탐구하는 일도 없고 "CIAM"나 "MARS"처럼 일반사람들의 관심을 건축에 쏠리도록 하는 정열있는 그룹도 없다. 그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숭상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한 논의가 언제나 수반되었다. 그 논쟁은 여하간에 일련의 idea 전체가 사회, 기술, 형태와 이해를 갖고 서로 관련되어왔다. 이 일련의 idea는 door의 손잡이로부터 도시계획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element들이 대단히 밀접하게 결속되어서 예를들면 하나의 의자 형태라 할지라도 도시 형태로의 연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질서의 이해관계는 일종의 Hippocrati coath(의사가 될 사람들이 행하는 윤리강령선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이것은 어디서 부터가 미학이며, 어디서 부터가 도덕이며, 어디서 부터가 정치인가가 불확실한 영역에 쓰이게 되고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은 probity(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라고 하는 말이다. 이 점에서 서로 오해가 생겨왔다 그 이유로는 "심포지움"에서는 멤버들이 형태가 변경되기 쉽다는 이유로서 드디어는 Le Corbusier를 "30年代의 건축가"의 대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나는 그와는 반대로 Le corbisier가 "probity"를 젊은 두개의 흥을 지도하고 통합한 의지의 축으로 전환시킨 역할이 큼에따라 그를 기본적 30代 건축가의 대표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그가 취하고 있는 form은 이지적이고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생활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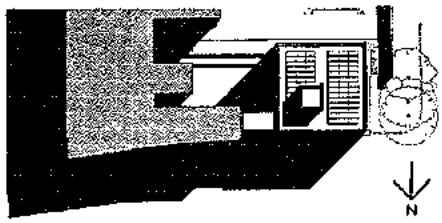
여기서 의미 논쟁의 기본적 의문이 나온다. form이라는 것은 일련의 이지적인 것에서 생겨진 것이다. 이외 역도 또한 진실일까? 환언하면 form의 발생원이 되어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되어있고 form이 문화를 표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에 그 form 가운데 사회가 독특한 존재로서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직업에 맞춘 건축양식과 같은 이미지상의 센티멘탈한 개념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둔다.) form의 근본이 되어 있는 것 중 어떤 것은 불필요하게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표준만이 강조되어 질 것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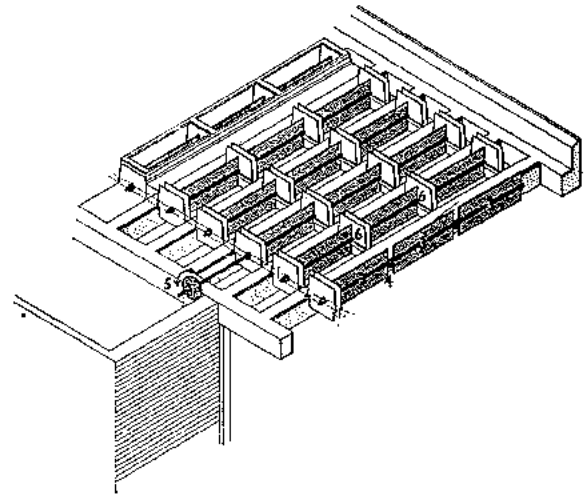
결과로서 만들어진 건물에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은 나의 미국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form이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이지적 base가 부적당하게 형태화 된 것처럼 느껴지는것이므로 착상을 새로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나-치는 스타일리스틱한 입장에서 바우하우스를 폐교한 것도 아니고 Le corbisier도 이유없이 "대단히 위험한 미래파"에 가담한 것도 아니다. 단지 corbisier나 나-치에 대해서도 form은 생활방식의 위태로운 면을 내포하고 Probity는 그것을 인지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미국의 비평가가 제창하는 anti intellctualism에 대해서 서술하고 나의 편지를 끝내고 싶으나 이에 대해서는 단지 내가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중요한 상이점으로 지적해 둔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idea를 교환할 수있는 공개 토론회도 없고 grup에서 공동의 idea를 검토하는 일도 없고(따라서 경쟁상대의 group도 없다) discussion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한 사람의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않는다. 현재 어떤 논의가 항간에 일고 있다는 점에 촛점을 기우리는 잡지도 없다. 이런 것은 사고의 결여 일 뿐이다. 이지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나는 미국인 생활의 어떤 분야에도 공통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개혁은 벌써 이전에 된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도 이제는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리 말해도 이점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내가 만난 여러 젊은건축가들은 이러한 논의가 없음을 대단히 개탄하고 있었다. 이런 것은 틀림없이 내가 우리들과 서로 다르다고 지적한 일이 옳다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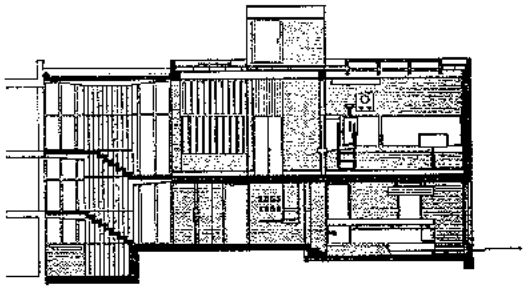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취할까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네들 뿐이다. 그러나 어떤 성질의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 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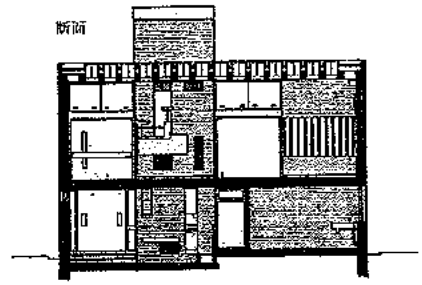
제임스 · 조이스는 이전에 자기가 소설의 목표를 epiphany(顯現)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그는 이 말을 인간의 아주 보통행동, 아무쓸모 없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깊은 데에 문득 촛점을 맞춤으로서 그 본질적인 형태를 추출할 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Van gogh도 자신의 회화에 의해 '신에 의해 대표된 어떤 영원한 물건'을 보통의 인간에게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을 희망한다고 쓴 적이 있다. 나는 건축계에 있어서 미국 사람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생활과 밀착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을 건축학적으로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를 그들은 갖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과 밀착한 것을 실현함으로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제가 들연 '어떤 장소'에 촛점을 맞추게 된다. 그 장소에서는 그런 행동이 가능함과 동시에 실제의 행동으로서 표현되며 그 곳에서 처음으로 생생한 가치를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허황한 위대한 것을 구하는 것과 아무 관계도 없고 또한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욕망과는 전혀 별개의 물건이다. 부단히 생활의 힘을 찬미하고 그 힘에 형체를 부여하는 데에 연관되는 것이다. 그 장소에서는 그러한 행동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제의 행동으로서도 표현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생생한 진실의 가치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들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의 황막하고 위대한 것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또 만족을 모르는 끊임없는 욕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이와 반대로 생활의 힘을 확대하여 가는 것과 생활의 힘을 찬미하고 그 힘에 형태를 부여하는 것에 관련이 있는 것이다. Colin St. John Wilson. Maxico Phoenix에서 1964. 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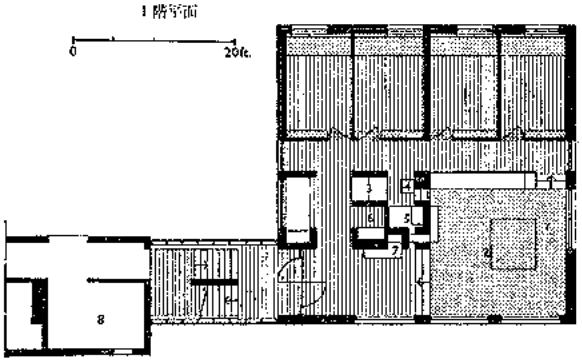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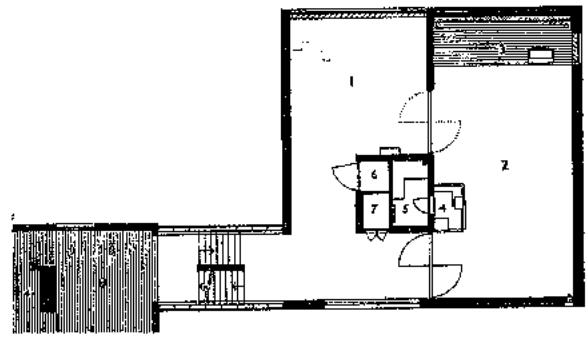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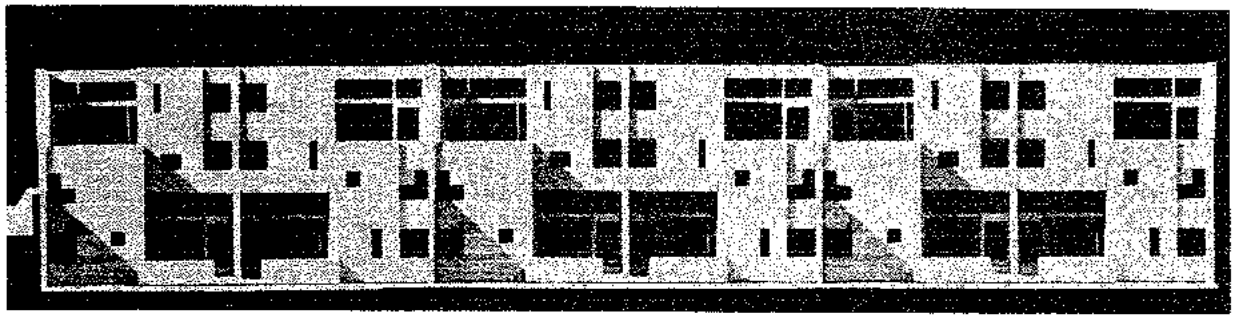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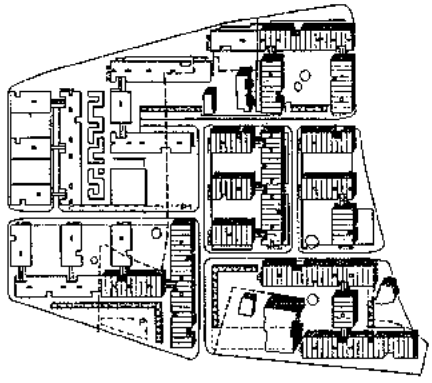
1 階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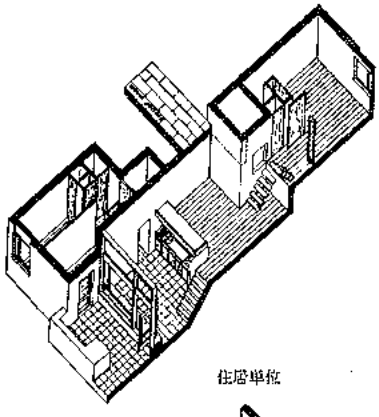


2 階平面 1 講義室 2 教室 4 説教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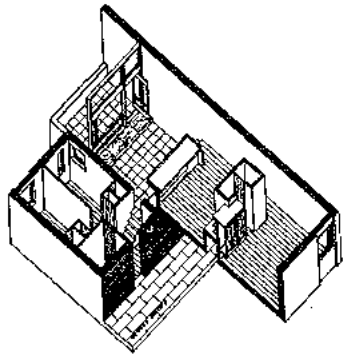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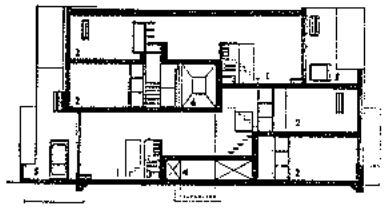




住居単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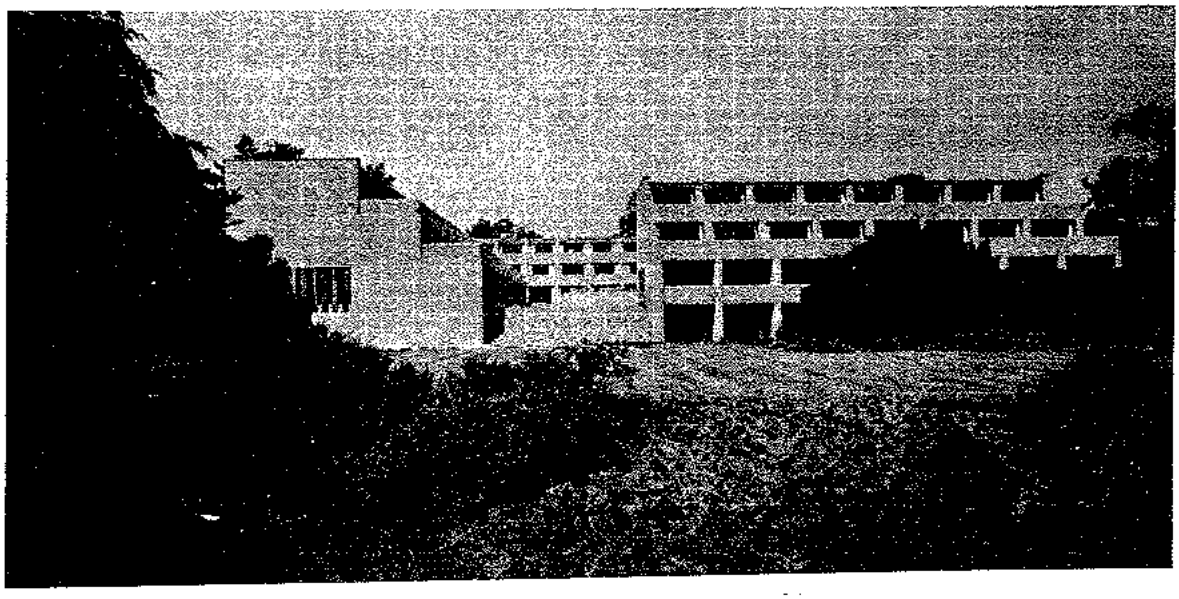
断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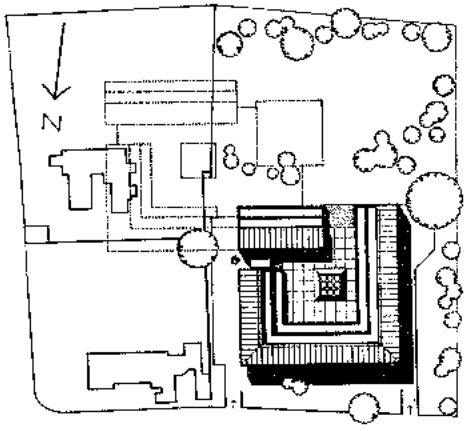
세인트 · 팬크라스 하우징 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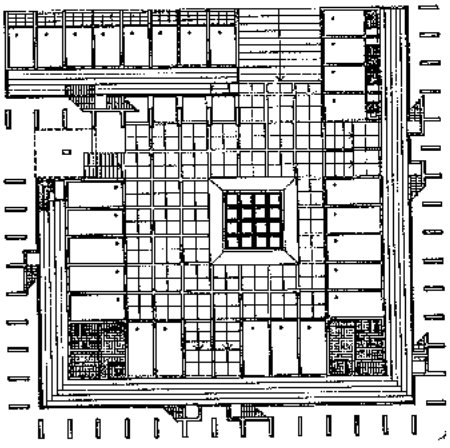
주거밀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가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당한 의미에서의 주거밀도라 함은 거기서 영위되는 생활상황 그 곳에서 창조되는 환경조건을 포함한 종합적인 숫자다. 그러나 어떤 특정의 형과 환경이 어떤 주거밀도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종래 주거밀도가 높은 구역(에이커당 100인 이상일때)을 슬럼이나 만족할 수 없는 주환경에 가입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왔다. 그러면서도 도시주거의 아주 전형적인 형(예를 들면 조오지왕조에 이루어진 스퀘아등)들이 이 범주에 속해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다. 그래서 에이커당 100인 이상의 주구에는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것이 제안되었으며 최근에는 이와같은 주거밀도를 가진 주구에는 타워형이 채용되는 것이 상식처럼되어있다. 그런데 1955년 CIAM계획에 있어서는 테라스형을 조항하여 에이커당 136명의 주거밀도를 해결하였다. 물론 주거밀도가 높은 주구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모색되지만 주거로서의 성공은 주거밀도만의 관점에서 판달될 수는 없다. 그것은 도시화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와 거기에 수용되는 가족의 집합, 주거의 선택, 주거의 표준공간, 전용의 오픈스페이스의 제공과 그 분활이용의 방법, 건물공비등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할 문제이다.

이 계획에서 월슨은 먼저 주거조건의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우선 에이커당 136명 이상의 주거밀도를 가진 주구계획에 있어서 고층형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아님을 입증하였다. 이 계획은 보통 타워형과 메소니트타입의 좁은 파사드에 제한되지 않고 공간과 동선의 범위가 확대되어있다. 나아가서 고층주거와 슬라브형일때 피할 수 없는 주거패턴의 반복을 제거하고 정원을 가진자와 발코니만을 가진자로 분류되는 평면형식에서 탈피하여 각 가정에 전용의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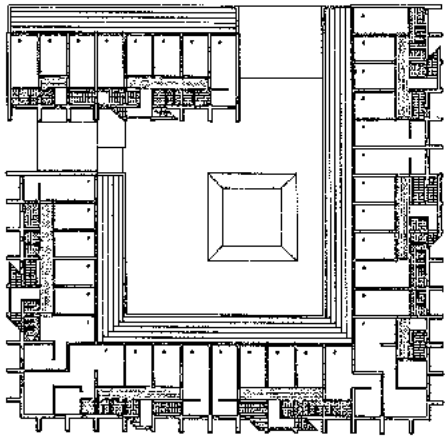
하-비 · 코트 케임브리지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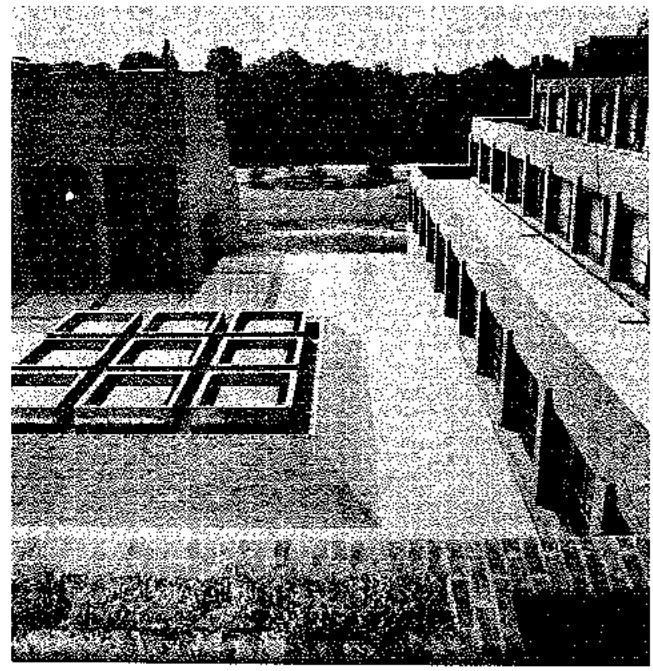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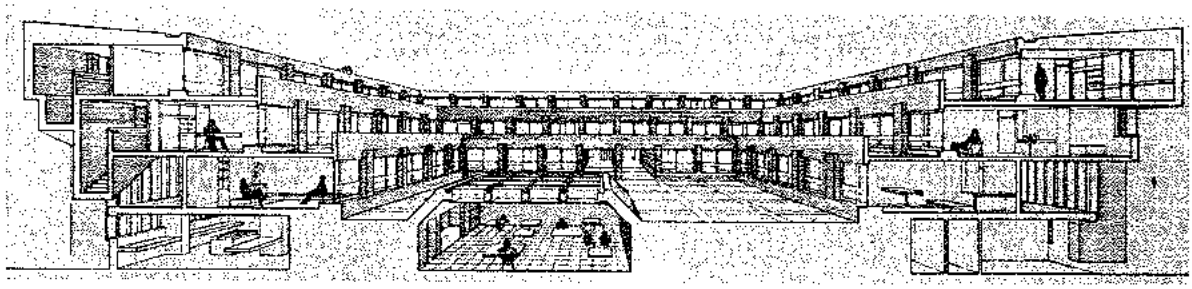
이 새로운 건물은 대학으로부터 반마일 떨어진 왼쪽 제방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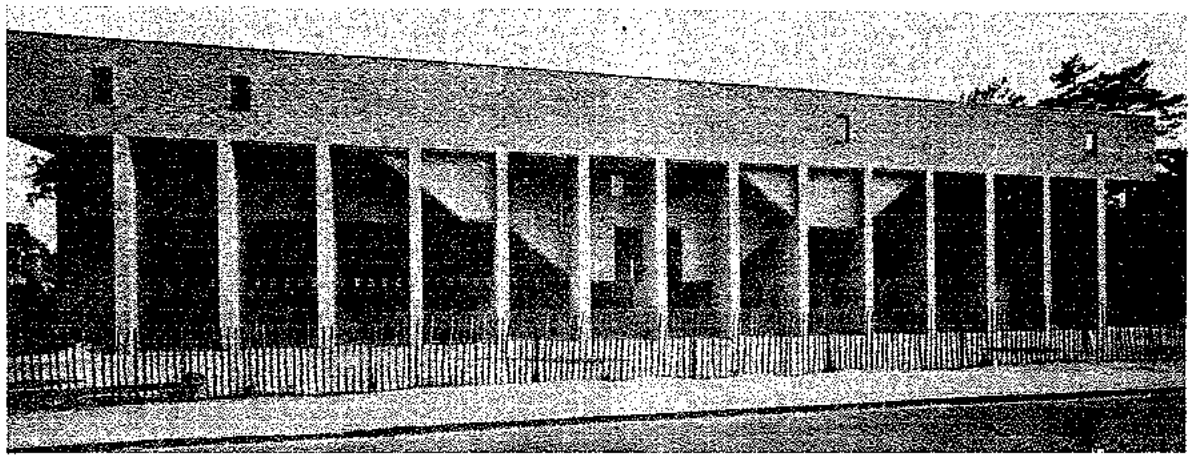
학생용 방 약 100실 식당 부속실 커먼룸 등 그 밖에 대학과 관리용 시설이 포함되어있다. 이 숙소는 대학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므로 가능한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중정을 중심으로 뒤로 제껴지는 테라스가 있고 각 방은 테라스위에 배치되어 있다. 건물은 이러한 형과 위치로 함으로서 장래 확장될 때는 지금의 중정과 맞붙는 제 2 의 중정을 만들어 일관된 건물의 성격을 유지하게된다. 건물의 동측에 있는 차도가 어프로치가 되어있고 장래의 계획은 이 중앙지점에 입구를 만들게 되어있다. 이 건물의 주된 특징은 중정형식의 고전적인 테크니크에 있다. 사방의 모든 방들은 내측을 향하고 중정에 면해있다. 남측에는 외측을 향한 방들이 있으므로 중정은 일부가 밀폐되어있다. 커먼룸, 식당, 부속실, 서비스룸 등은 일층에 있고 커먼룸은 외측에 면해있다. 중정이 높게 위치하므로 이들 시설은 마치 기단과 같은 역활을 하고 있다. 메인 · 엔트란스의 캐노피부분에서 두세단을 내려오면 식당과 커먼룸이 있고 여기서 계단을 올라가면 중정이 있다. 여기에는 내부에 통하는 도어가 몇개 있다. 내부는 중정과 같은 높이로 건물 주변을 따라있다. 윗층계단은 이 바닥에 면하고 다섯 곳에 있다. 계단은 건물 옆으로 뻗어나와 뒤로 제껴져있는 각기의 테라스에서 테라스로 이어져있다. 이를 올라가면 짧은 랜딩이 있는 여러 방이 그룹으로 되어있고 그룹별로 사용되는 욕실 서비스룸이 있다. 이 배치는 계단에 의해서 방을 그룹별로 종합하는 전통적인 수법을 채택한 것으로 여러 크기의 방들의 조합이 건물 전체에서 짜낸 기하학적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만들어진다. 각 방들의 그룹으로 향하는 계단들의 배치에 따라 각 방의 크기와 형이 매우 다양하게 되어있으며 이것은 외관에 훨씬게 노출되어있다. 사용재료의 가지수를 한정하여 견고한 품격을 보이고 있다. 구조는 내력벽들조며 지붕은 물처리 부분에 납을 씌운 동판이며 창문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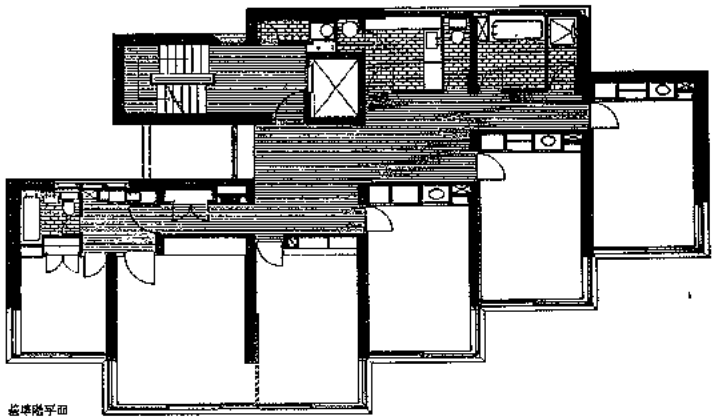


the kratikus aped 1968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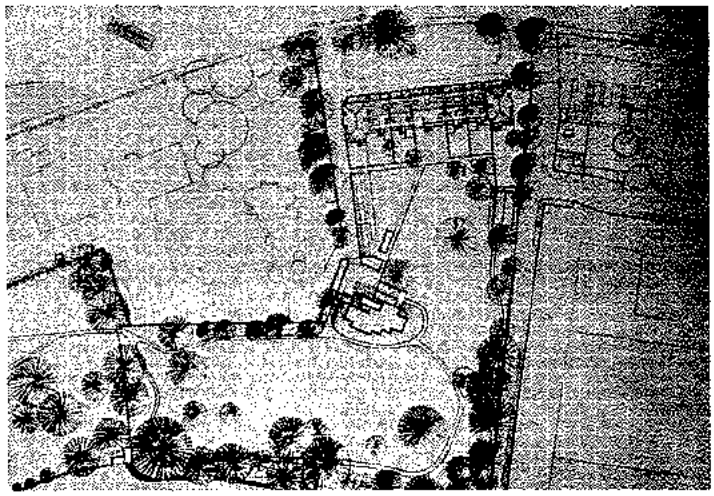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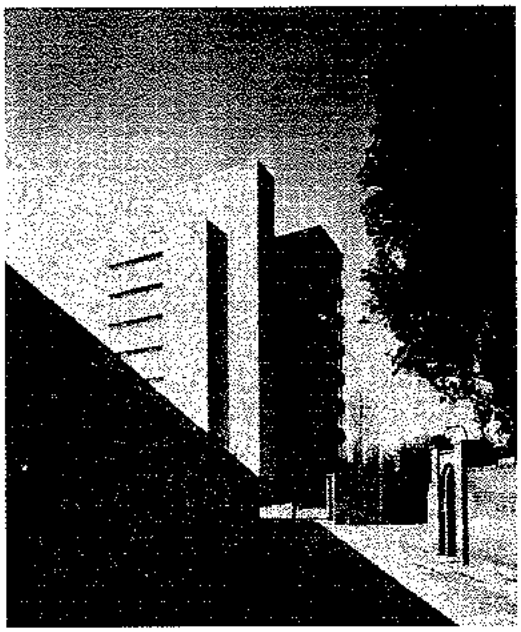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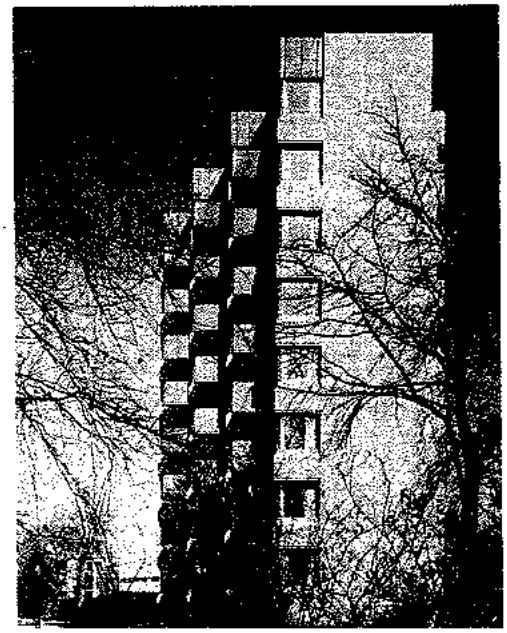




基準階平面







피—터 하우스 1964

이 집은 케임브릿지대학 캠퍼스 가운데 공원풍의 자연속에 있다.

대지의 남쪽 경계에 따라서 공학부 교사까지의 확장공사가 진척되어 20m 높이의 건물이 길게 연결되어 있다.

숲에 싸인 가므강의 서안을 향하여 서와 북서로 흐르고 있다.

대지의 상황(지형적 조건+정서적 상황)으로 부터 건물의 기본형이 결정 되었다. 모든 디멘션이 그러한 관련 속에서 결정 되었다다. 8층.

각층은 모두 재학생 용방 3. 특별연구원용 주거(서재, 거실, 욕실, 침실포함) 의이상적인 배합으로 되어있다. 학생용의 공동주방, 차고, 욕실등은 동측에 몰려있고,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북측에 별도로 배치되어 있다. 각 방이 부채꼴로 펼쳐있어 모든 방은 남측에서 햇빛을, 서측에서 전망을 얻게 된다.

창고로 된 반 지계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건물의 토대는 특징있는 풀에 덮인 약간 경사진 평지로 되어있다.

포장된 옥상은 넓고 아름다운 전망을 갖고 있다. 난방은 저온전기복사천정 파넬방식으로서 온수 공급에도 전기가 사용되었다. 가장 경제적인 건축방법으로서 내력벽돌이 선택되었다.

이것은 동시에 각 방과의 방음에 유효하고 기후의 변화에도 강력하다.

창은 이중유리며 창살은 티크, 그리고 남측창에는 광택메탈루버가 있다.

이집의 가장 괄목한 건축적 성과는 케임브릿지 대학내에 현대건축이 그 기능과 형태 모두에 있어서 아름답게 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우징 1965

이 계획은 대학의 위촉에 의한 것이고 기혼 대학원학생, 주니어 연구원 및 대학에 관계없는 거리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위치는 캐임브릿지촌을 따라 흐르는 가므강 서안에 있는 대학에서 도보로 5분이내에 닿는 낮은 주택지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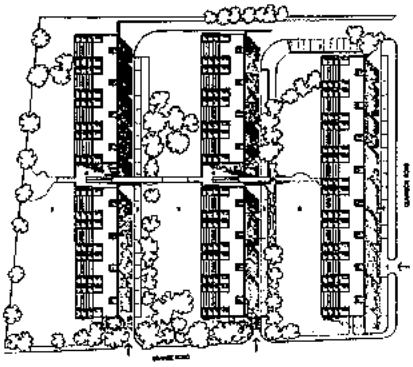
대지는 셋으로 나뉘어진 좁고 긴 정원이며 처음은 하나만 입수하고 차차 전부를 사도록 되어 있었다.

건축주의 요구는 여러형의 144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에이커당 밀도는 13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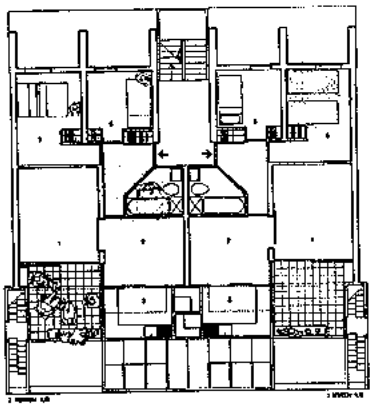
월슨은 이와같이 높은 밀도 속에서 각 주거의 프라이버시와 스케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 속에서 각 주거를 분리시키는 방법 — 남측에 정한 큰 중정으로 주거 스케일을 갖는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그 오픈 스페이스 속에 각 주거가 열려지는 안을 제출하였다.

즉 대지의 레벨과 그리고 각 주거단위의 디멘션 등을 조정하여 46세대 단위의 스케일을 갖는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었다. 차도와 보도의 분리는 테라스의 남측에 정원을 배치하고 주차장과 진입도로를 북측에 배치함으로써 해결 하였다. 이 보호된 오픈 스페이스 속에서 각 세대는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혀져 있다. 네층이면서 이러한 월슨의 생각은 층에 관계없이 연속된다. (46세대 단위의 디멘션과 중정의 깊이가 주의깊게 고려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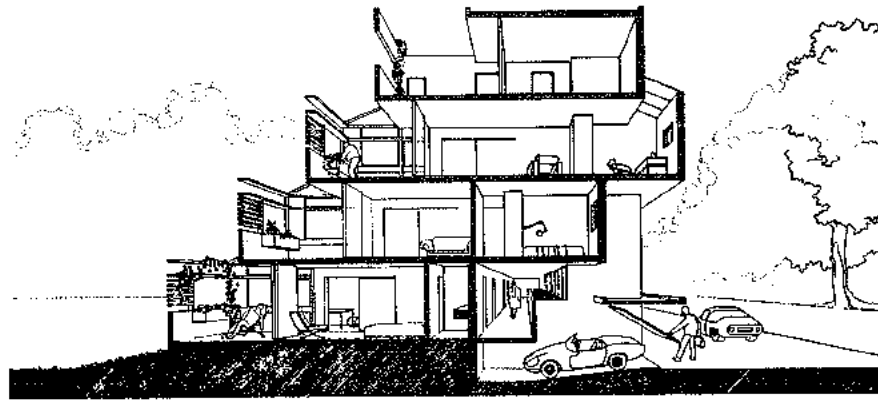
밑 두층은 아파트 타입이고 위 2층은 메소니트 타입이다. 테라스 하우스의 구조는 十자형의 가장 안전한 조적조이다. 월슨은 이 조적조 구조에 불구하고 플랜의 넓은 다양성을 달성하고 있다. 건축의 형식과 생활의 양상이 부드럽게 합일되어 있다. 특히 중정과 각 가정의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내부공간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건체로서의 어떠 생활에서의 친화를 성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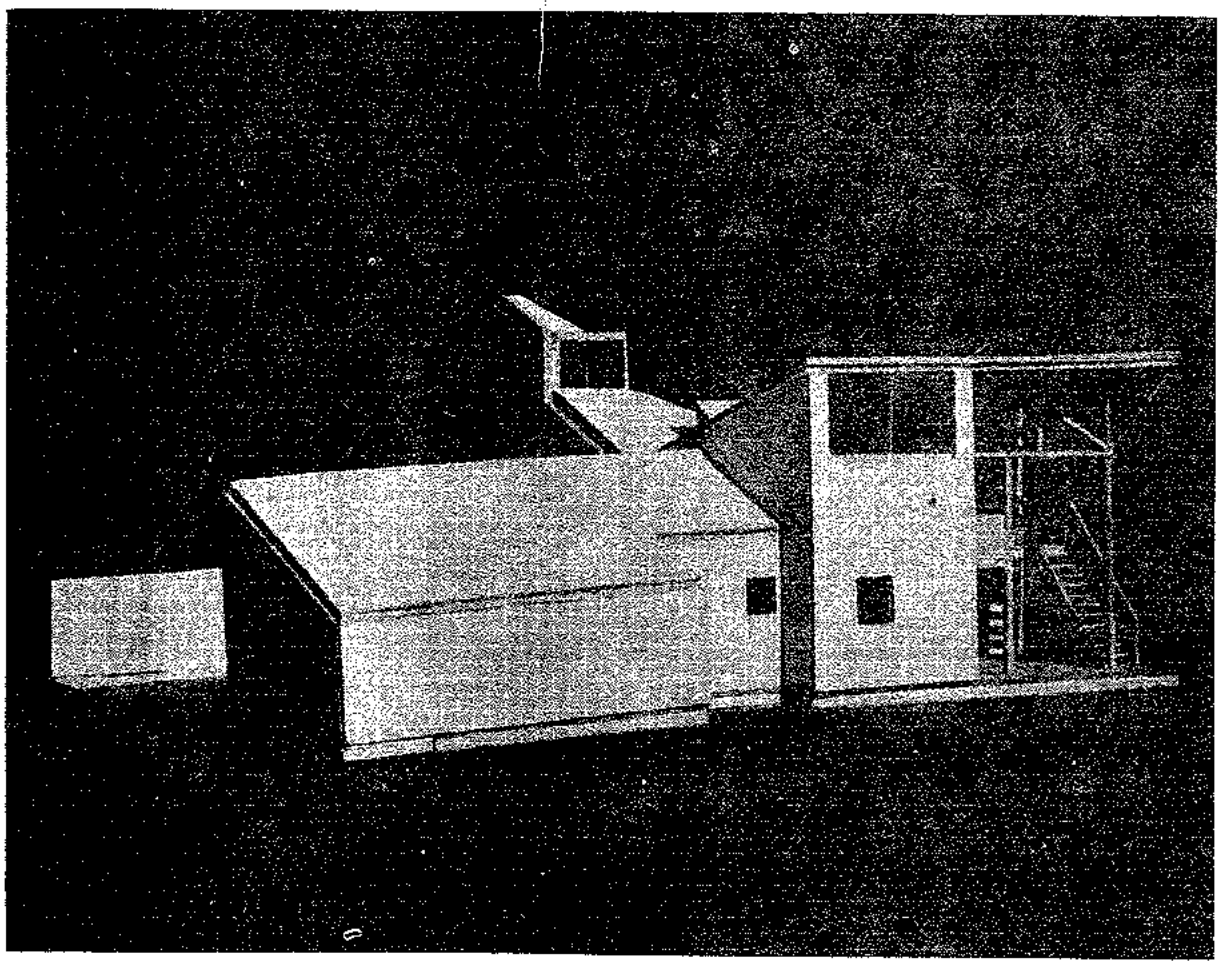


街区配置



断面透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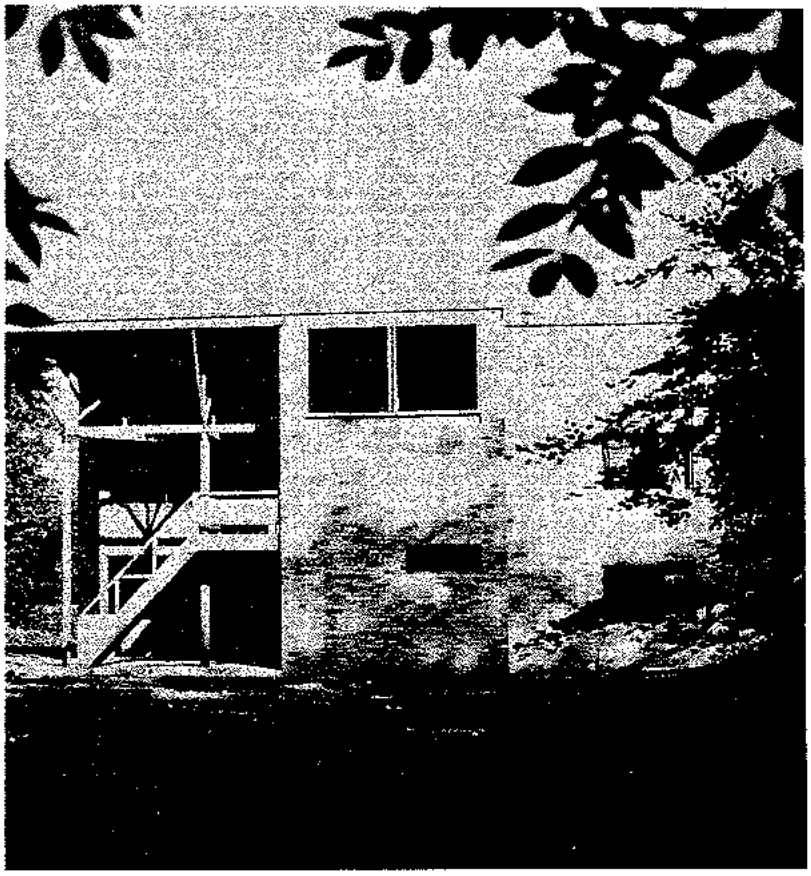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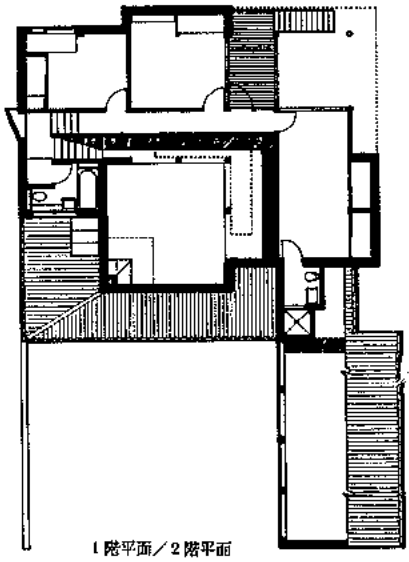
컨포드의 주택, 케임브리지 1965

들과 작은 숲들의 전방이 남동으로 전개되어있고 북서의 경계가 되는 길로부터 어프로치된다. 화가인 집주인의 요구는 스튜디오를 북측에서 채광하고 거실의 주기능은 사교및 그림의 전시장으로 해달라는 것과 손님침실 둘을 포함해서 침실을 셋 해달라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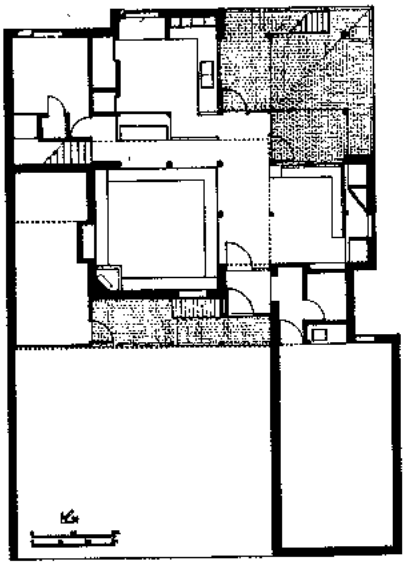
이번 요구의 경우 대부분 건축가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안이한 분절화나 상징화대신에 월슨은 생활질서의 윤곽을 생각하고 그 질서의 윤곽에서부터 건축의 형식(형태, 기능 공간) 을 추구하고 있다. 위로 드여진 거실은 이 집의 중심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 둘레에 인포멀한 방들이 에워싸고 있으며 이들 방은 대각선상에 태양과 옥외테라스와 맞붙어있는 남측정원을 향하고 있다. 등간격으로 된 목조의 지붕트러스는 거실을 둘러싼 둥근 나무기둥에서 뻗어나가 커다란 남측고창으로 향해 열려져 있다. 구조는 1.8M모듈로 이루어진 목조며 외벽구조는 유약을 칠한 속이 빈 벽돌벽인데 테라스로 향한 모서리에서는 내부의 기둥이 터어진 벽 사이에 보인다. 지붕은 콩크리트로 만든 로마풍의 기와며 내부의 벽돌은 흰 페인트를 칠하고 내부 칸막이의 대부분과 계단천정의 목조마감은 나무결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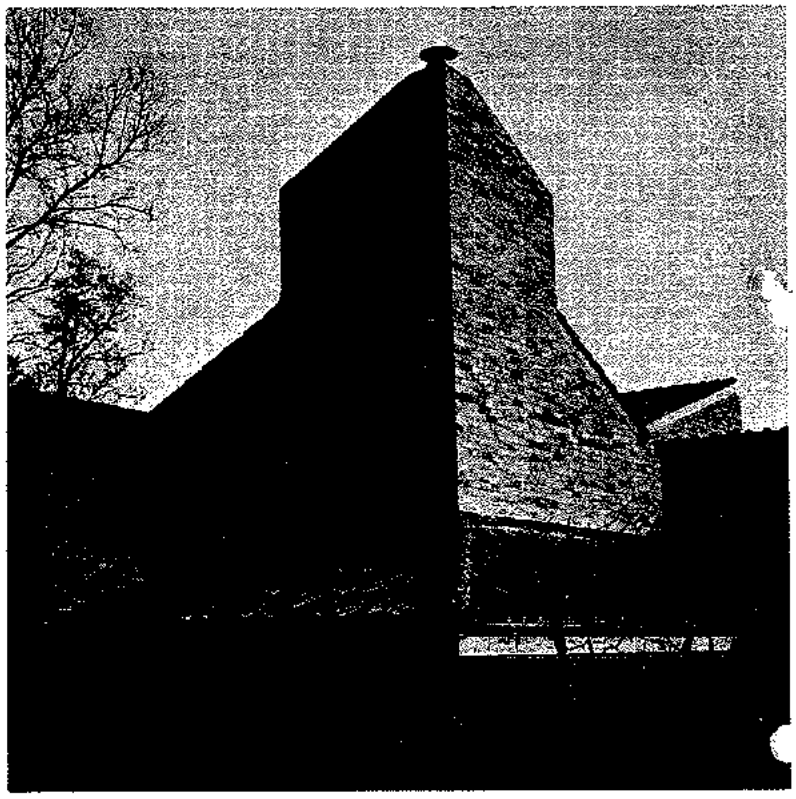
언뜻 보기에 고전적인 느낌이 강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가장 정통적인 현대건축이다. 새로운 생활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는 건축의 형식 그리고 그 형식을 표현으로 이끌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상징과 절부되지 않은 순수한 테크니크는 참으로 현대건축답다. 이 집은 현대건축이 이룬 가장 뛰어난 제작된 실체중의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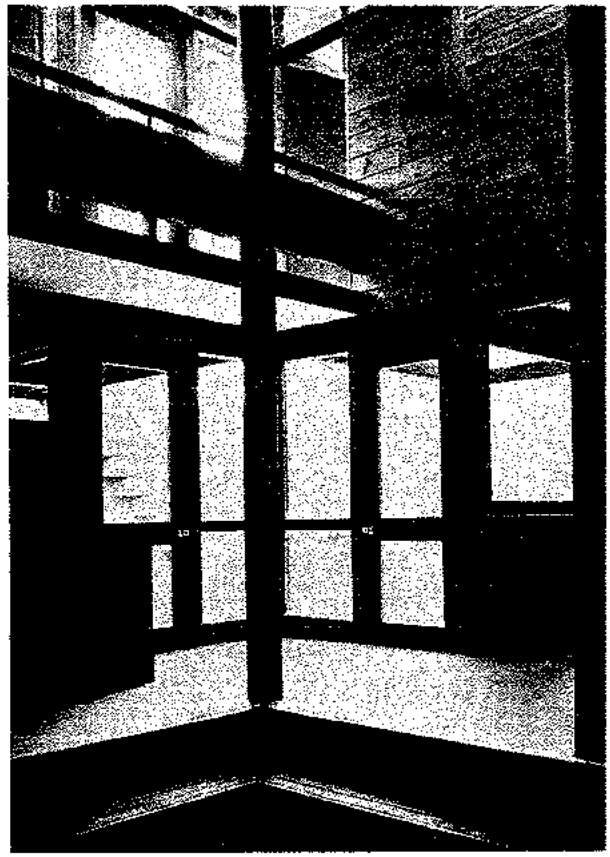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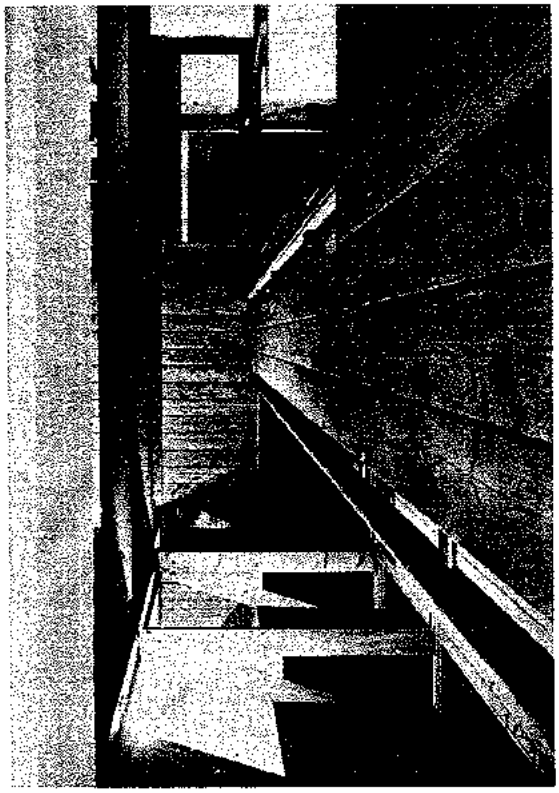
1階平面／2階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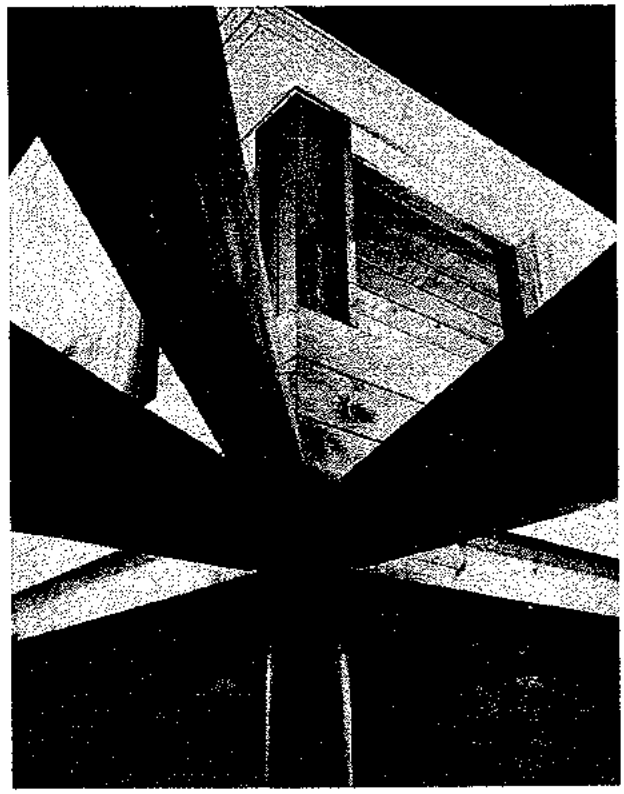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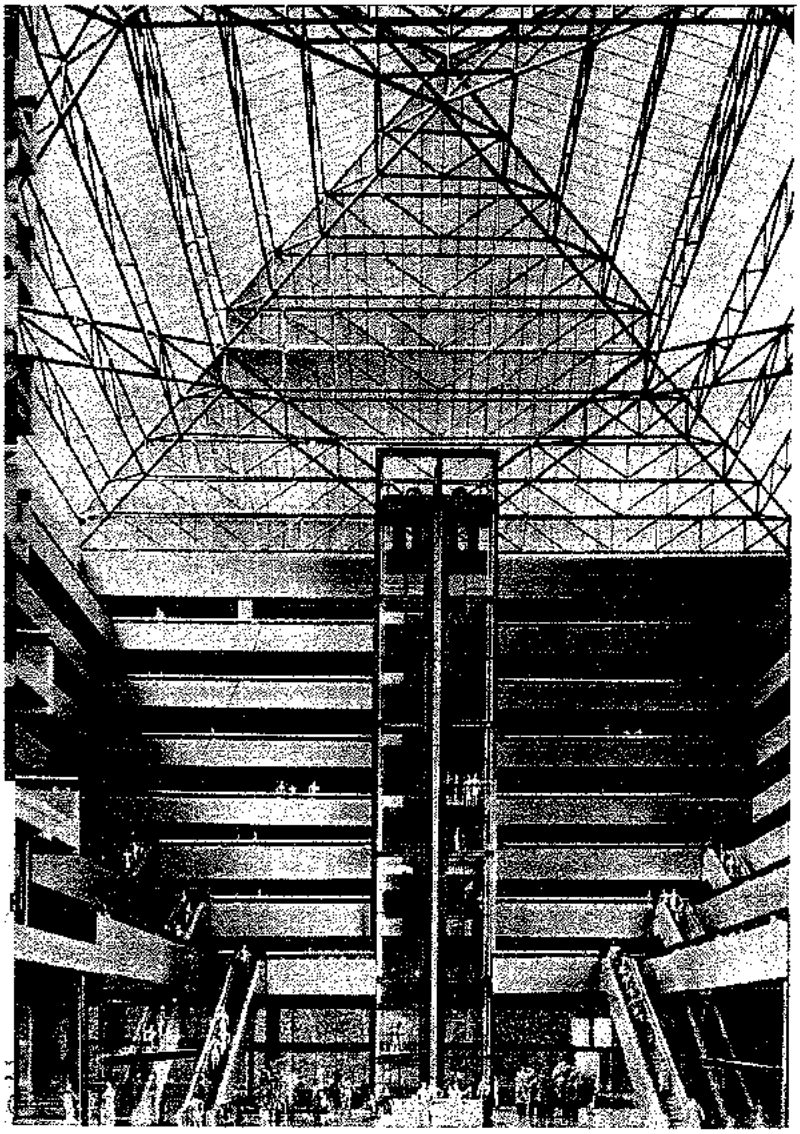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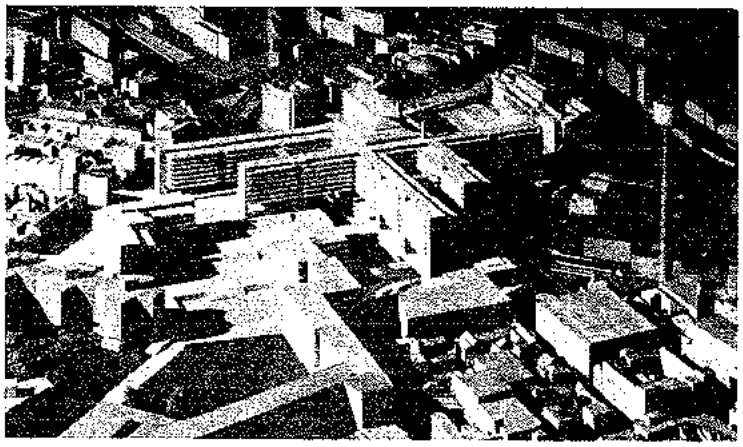
断面透视











이 계획은 현재 43개의 별개 건물로 분산되어있는 시청사(22부서, 직원4500명)를 한곳에 통합한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중앙의 퍼브릭 홀은 모든 인터뷰 룸을 겔러리의 주위에 배치하여 방문하는 사람은 목적한 장소를 간단히 찾게 되어 능률적이다. 각 부서는 긴 낭하의 축에 의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로 연락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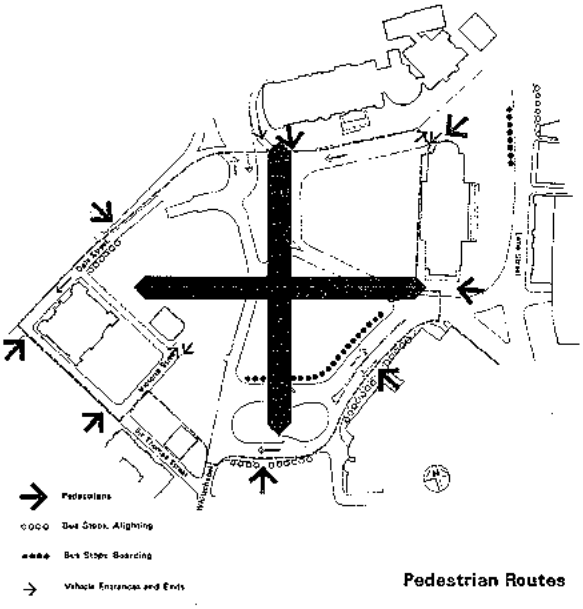
종래는 낭하에 의한 공공용의 축이 필요하였으나 여기서는 사무실내부를 될 수 있는데로 경제적으로 융통성있게 하기위해서 위의 방식이 채택되었다. 전 건물 모두가 일렉트로닉스에의한 설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복합적인 행정기관의 집은 시의 중심을 동서남북으로 뻗는 아케이드의 덮개 역할도 한다. 동서방향은 라인스트리트역에서 데일스트리트의 오피스가에 연결되고 남북방향은 윌리엄슨광장의 상점가에서 문화의 중심지인 성·조오지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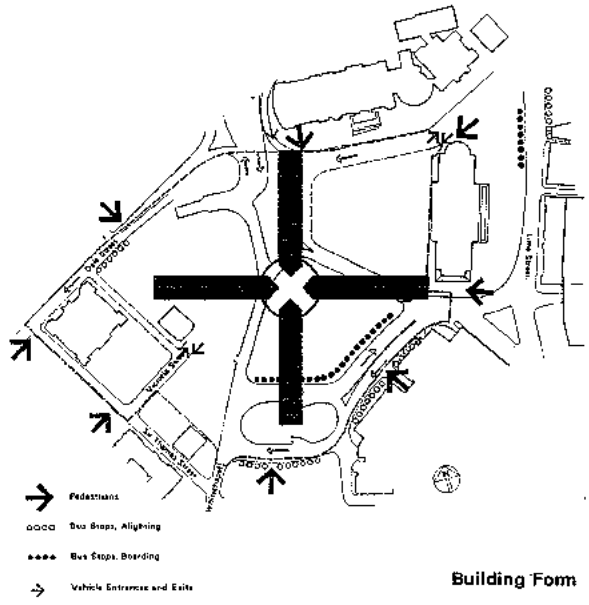
이 아케이드는 성·조오지홀의 아파트와 같은 레벨로 설치되어있다. 중앙의 마시터들의 입구부분 지면이 내려있고 건물의 상층과 하층의 칸막이가 크게 분리되어있다. 상층에는 행정기관이 있고 하층에는 아케이드를 포함한 상점 오락기관 풀 사우나욕탕 점포 레스토랑 마브 클럽 등을 위한 다목적용홀 등이 있다.

교통기관은 윌리엄슨광장측의 뻐스터미날과 성·조오지홀옆의 지하철스테이션이다. 8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은 특히 야간등 주차장으로 사용치 않을 때는 오락용스페이스로 전용된다.

건물의 계획은 시종 현재 세단계로 나뉘어 예정되어있는 공사가 완성된 뒤의 행정기관과 인구증대에 수반된 새로운 확장을 계산에 넣어 계획되었다. 현 시청사는 그것이 100년전에 완성되었으므로 규모가 너무 적은데다가 질서있는 확장이 불가능하므로 리버풀시빅앤소우셜센타의 계획에 있어서는 철저한 기본 연구를 기초로하여 센터의 발전이 상징공간인 리셉션홀에서 사방으로 뻗은 날개를 늘리는 새로운 증식의 방법이 고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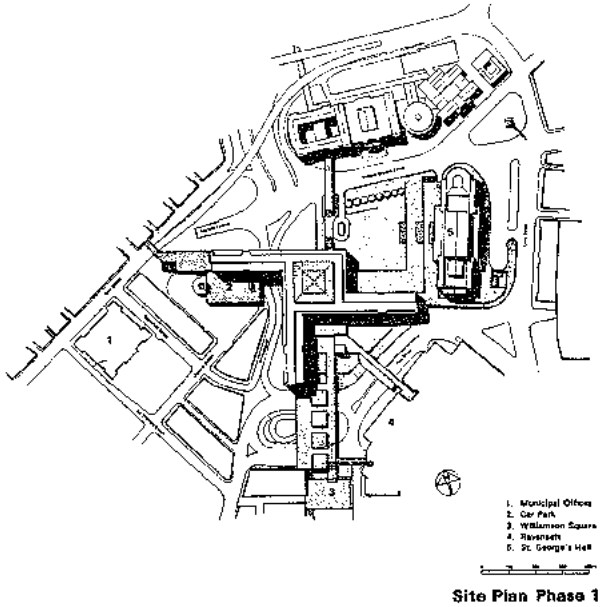


Pedestrian Ro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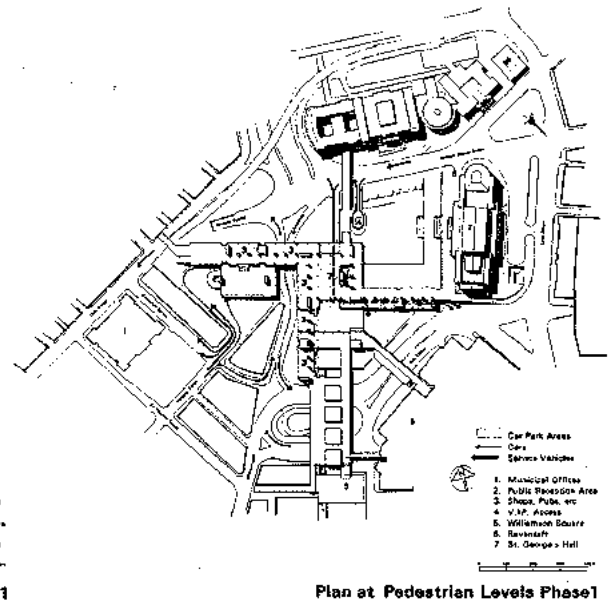


Building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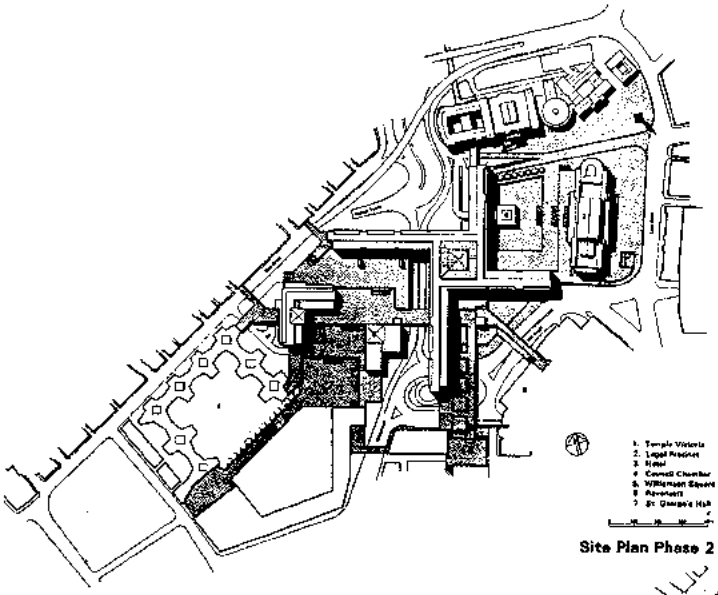
리버풀 시빅 앤 소우셜센터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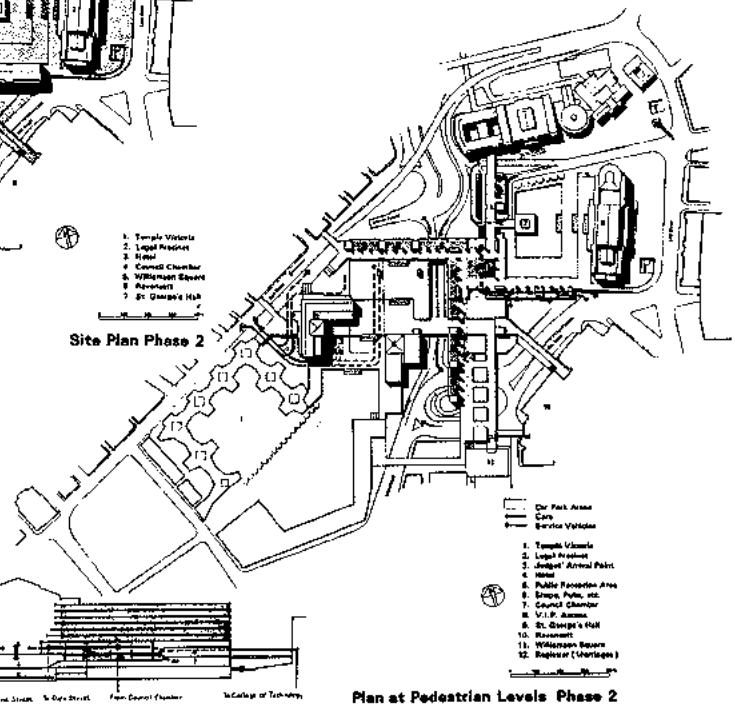
Site Plan Phas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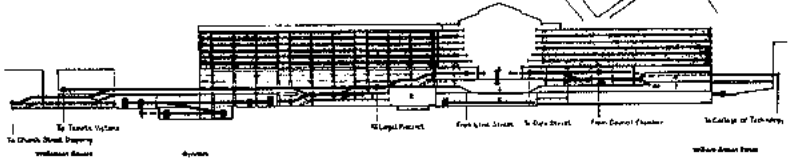
Plan at Pedestrian Levels Phas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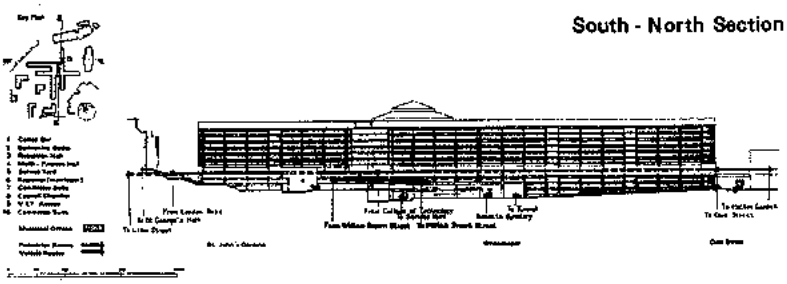
Site Plan Phas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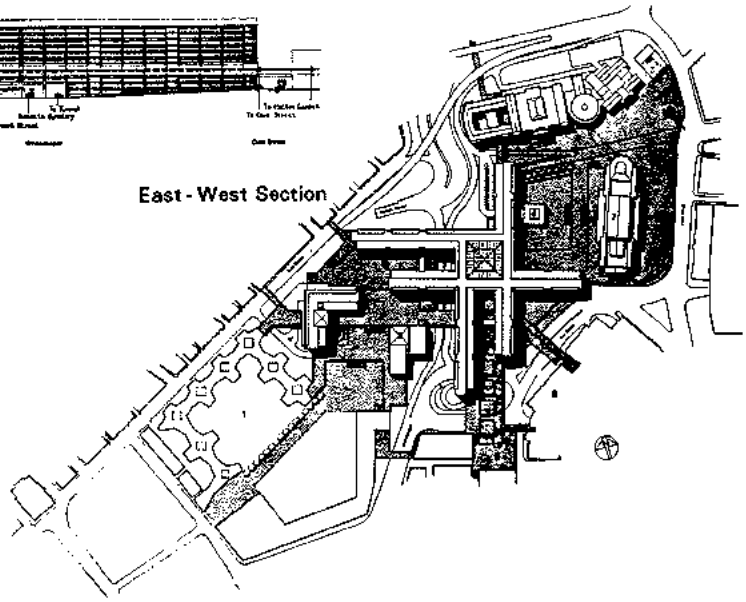
Plan at Pedestrian Levels Phase 2



South - North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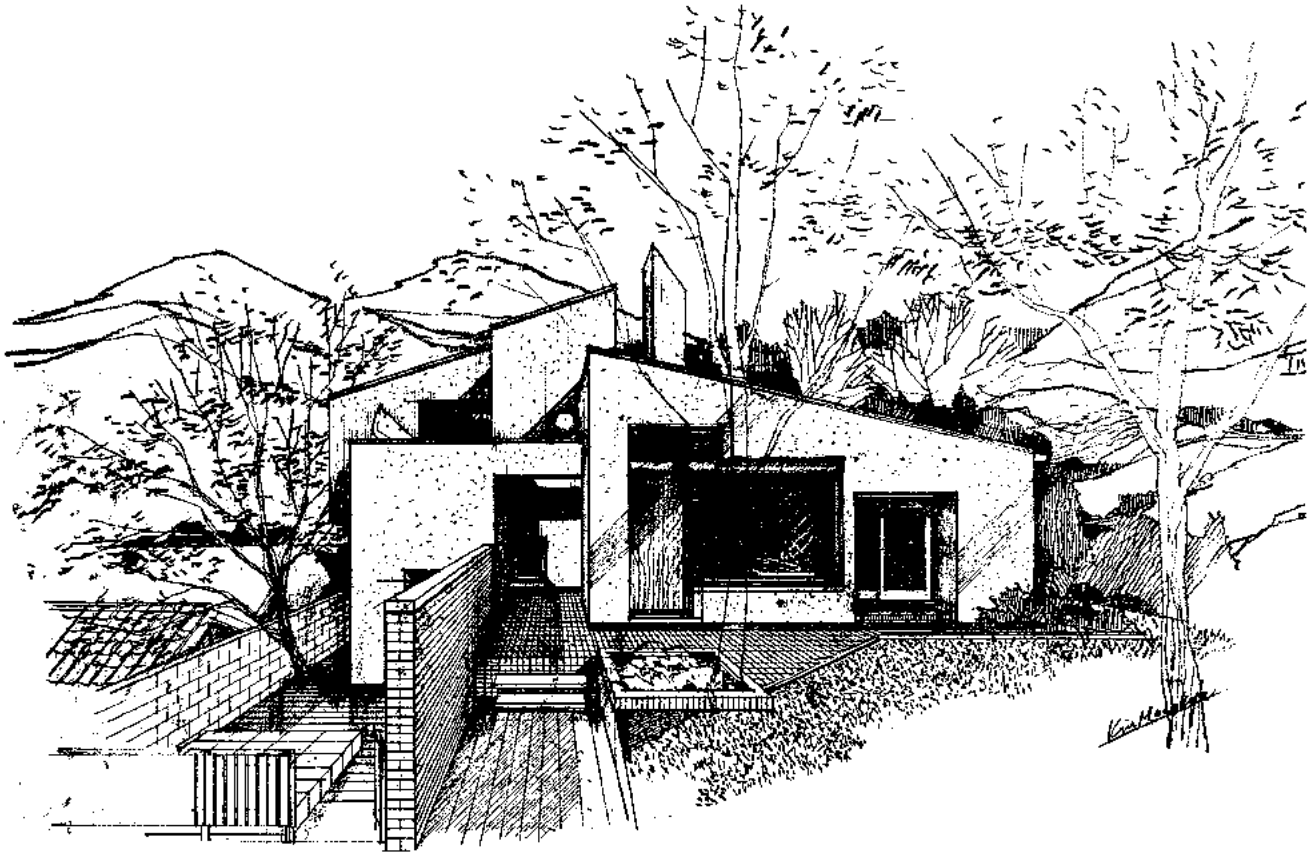


East - West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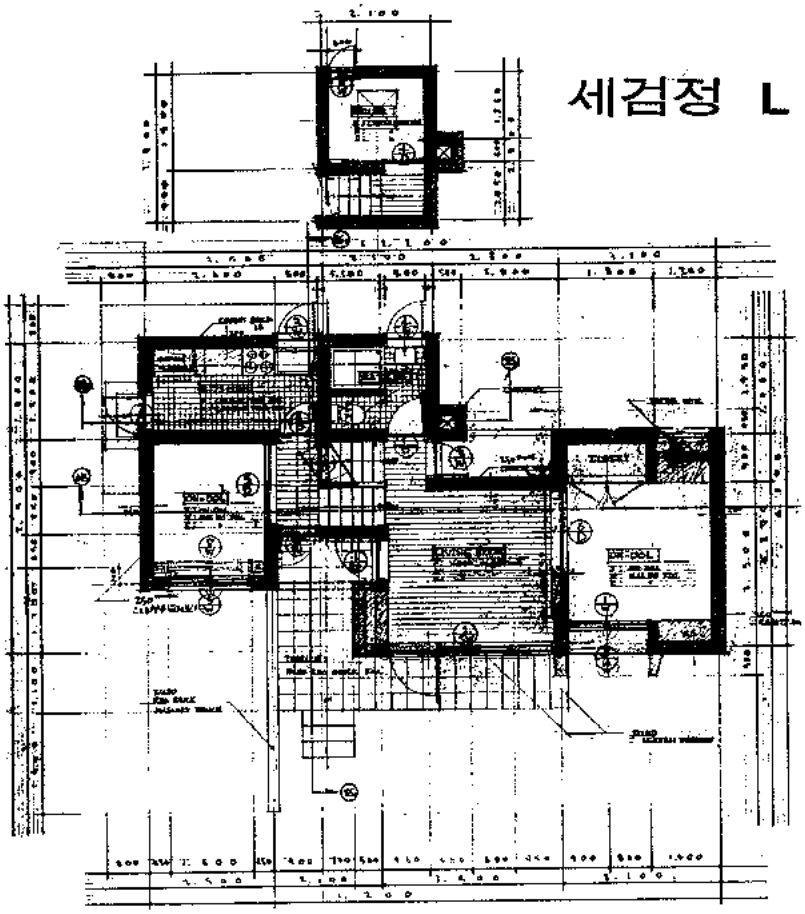
Site Plan Phase 3

이달의 작품 이달의 작품 이달의 작품 이달의 작품 이달의 작품 이달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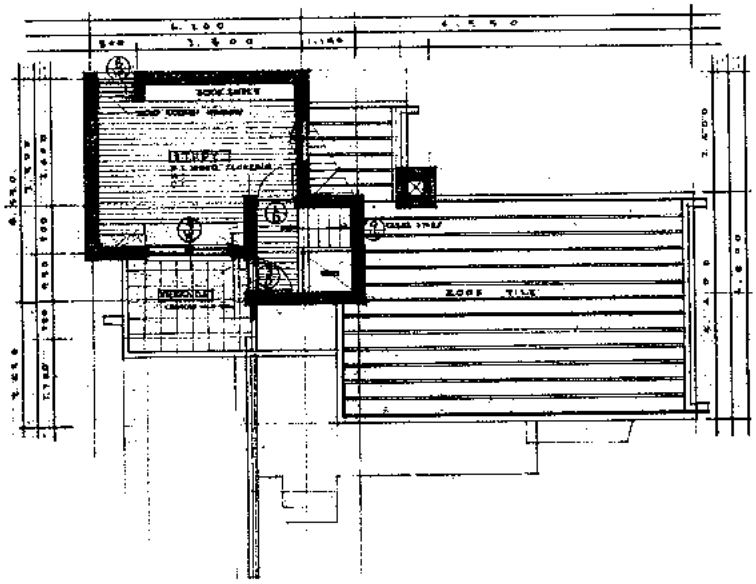


세검정 L 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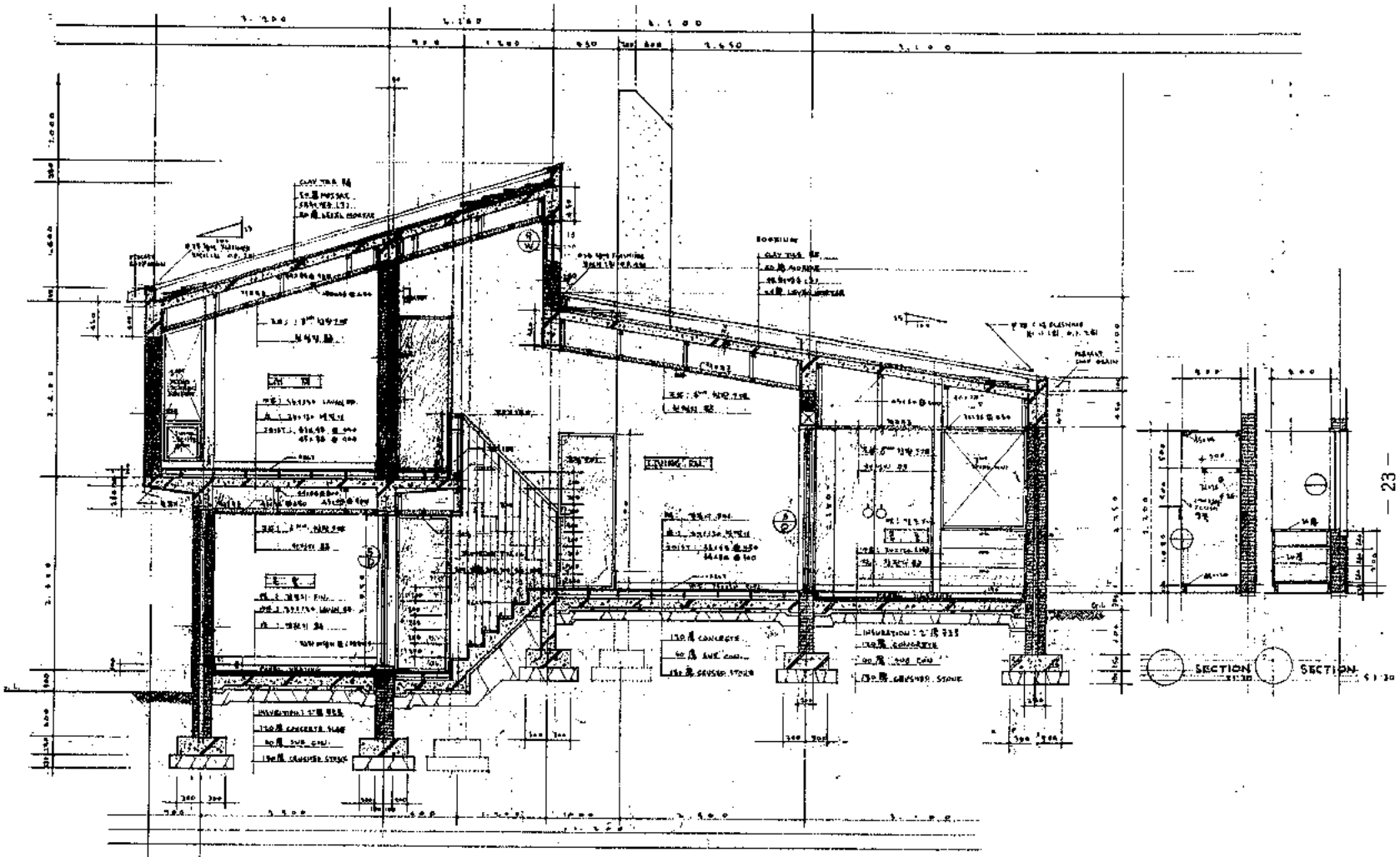
김 문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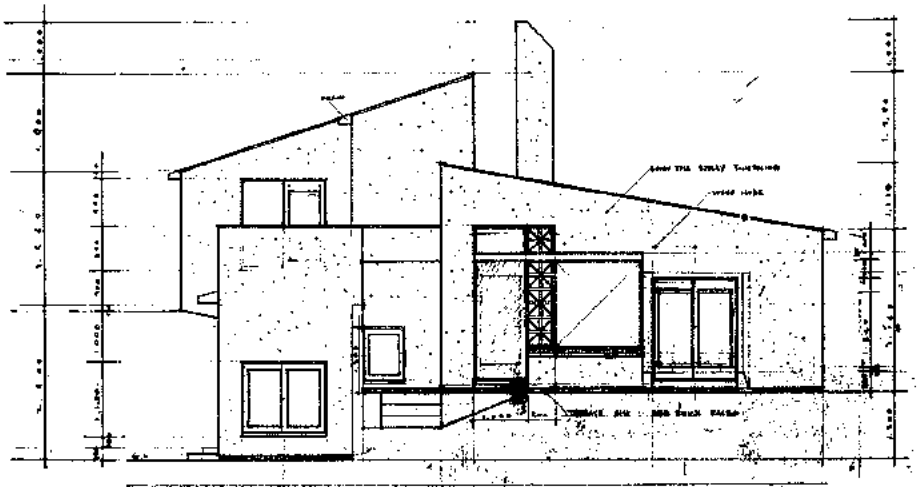
GROUND LEVE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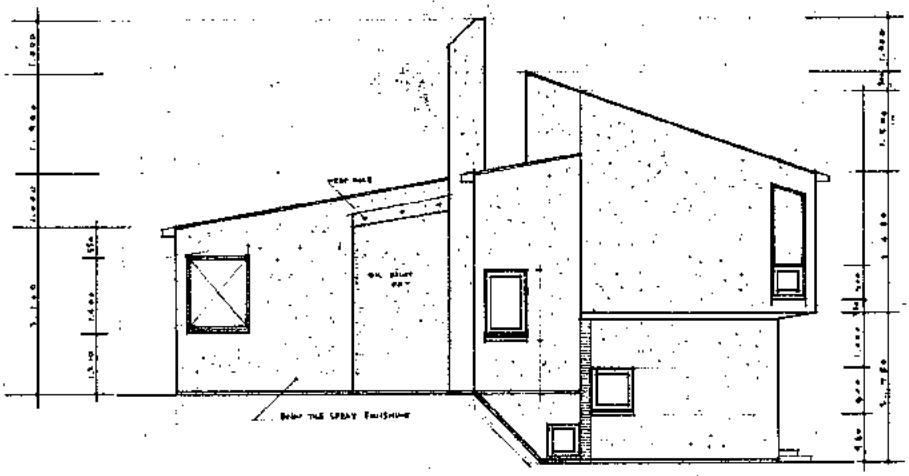
UPPER LEVE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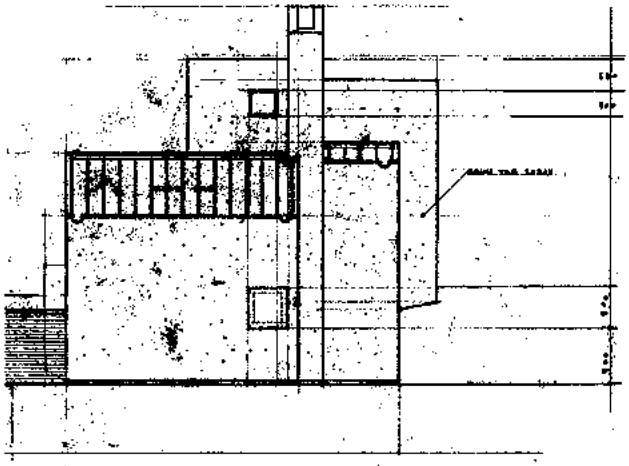
MS MAIN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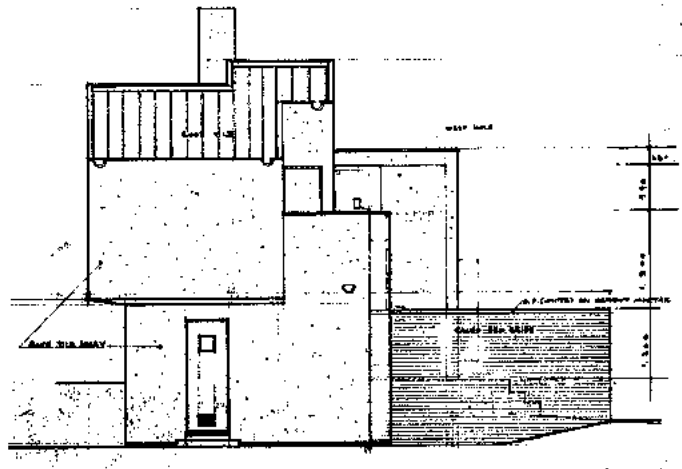
FRONT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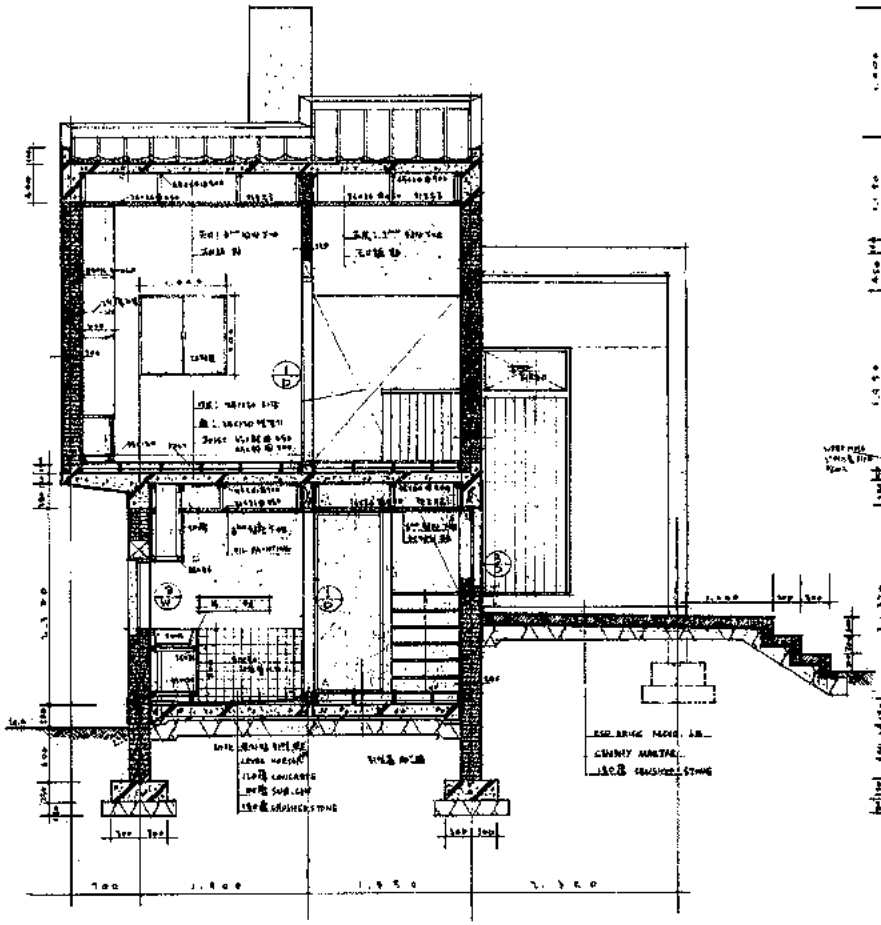
REAR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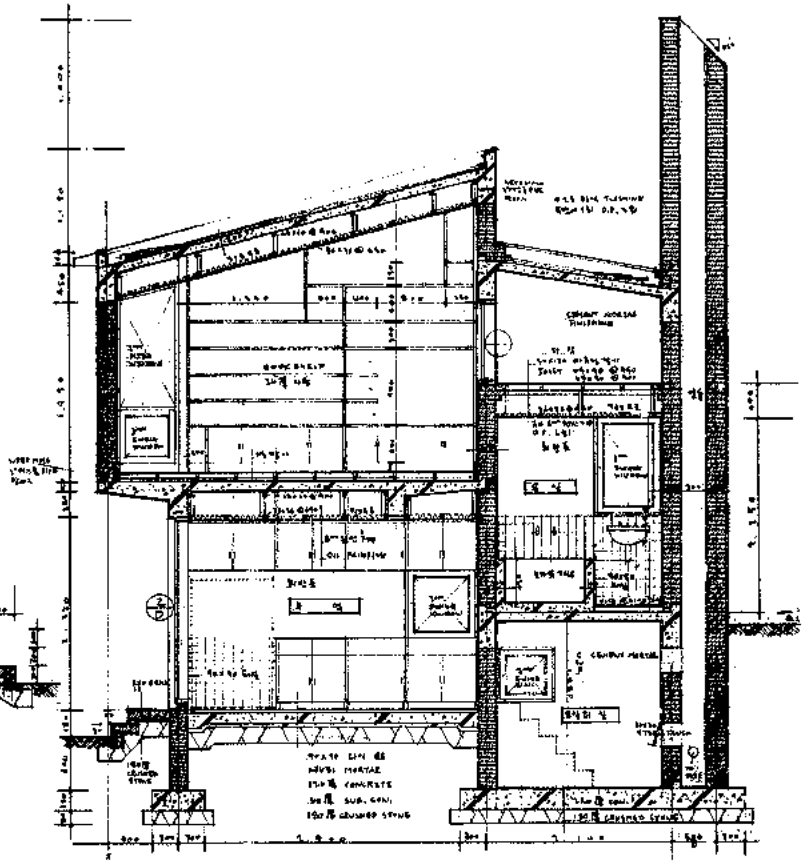
RIGHT SIDE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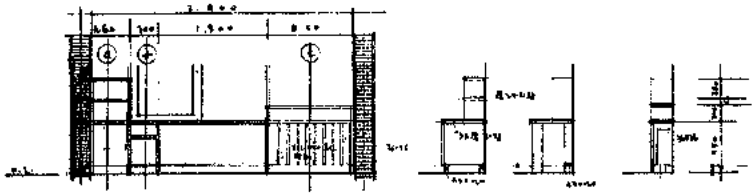
LEFT SIDE ELEVATION



SECTION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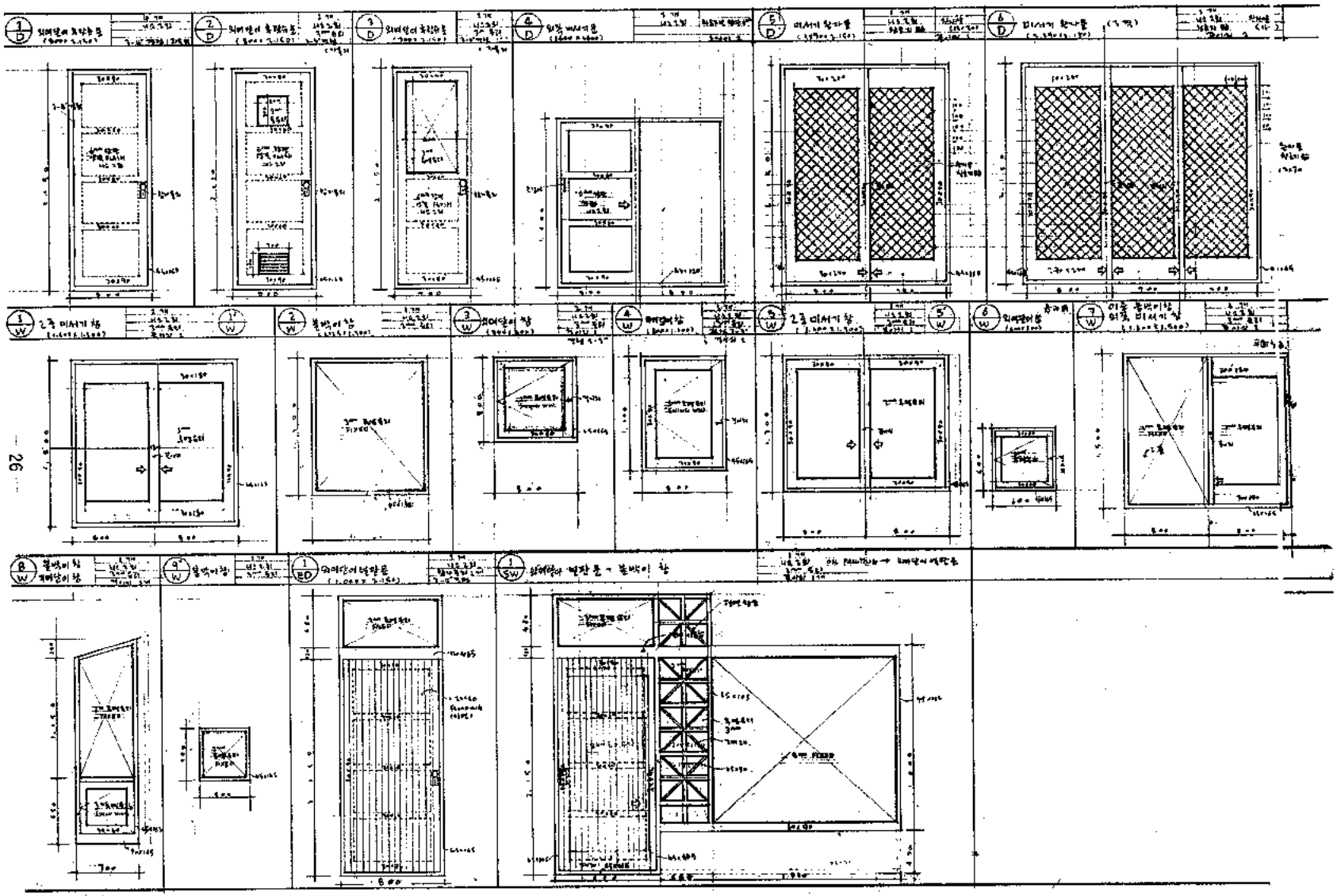


SECTION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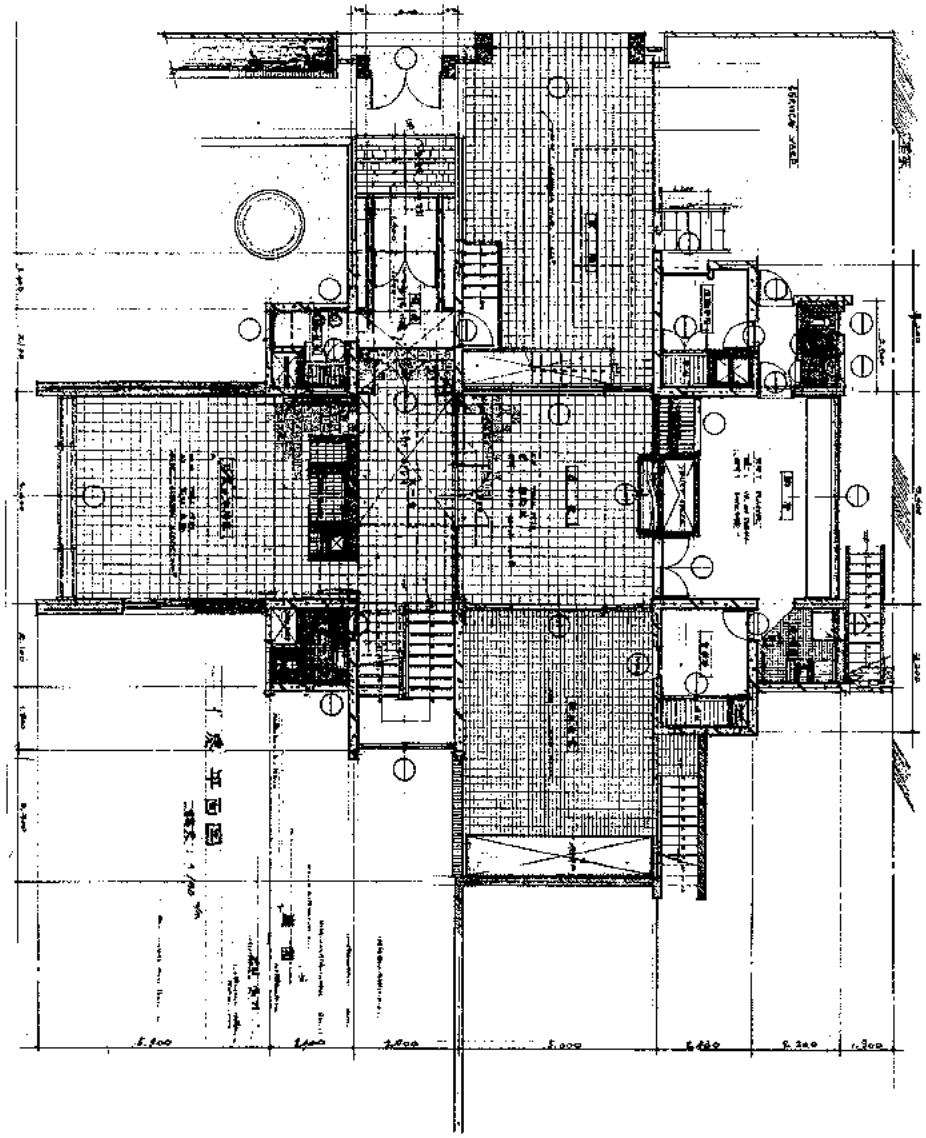
INTERIOR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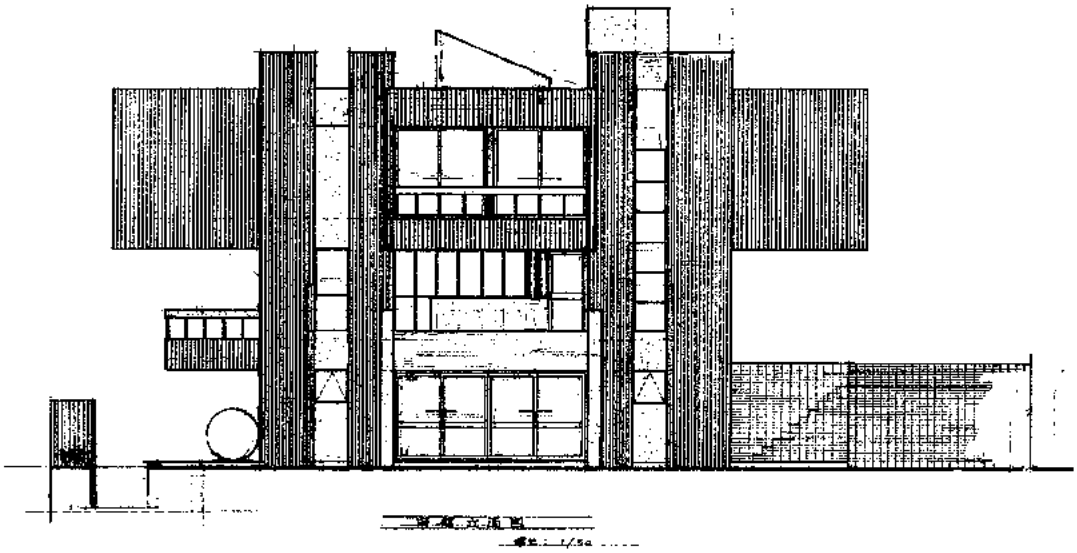
SECTION SECTION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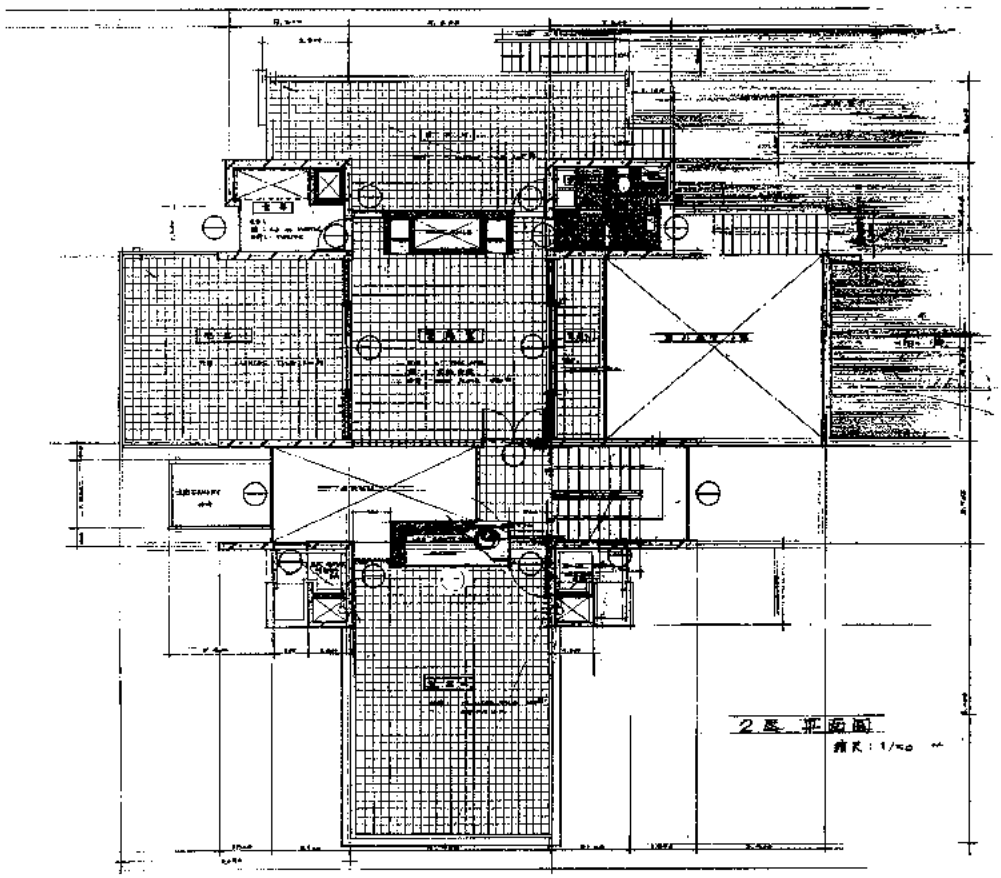

1/D 외여닫이 목재문
2/D 외여닫이 목재문
3/D 외여닫이 목재문
4/D 외짝 미서기문
5/D 미서기 목재문
6/D 미서기 목재문
1/W 2중 미서기 창
2/W 불박이 창
3/W 외여닫이 창
4/W 외여닫이 창
5/W 2중 미서기 창
6/W 외여닫이 창
7/W 이중 불박이창 외짝 미서기 창
8/W 불박이 창 외여닫이 창
9/W 불박이창
1/ED 외여닫이 현관문
1/SW 외여닫이 현관문 + 불박이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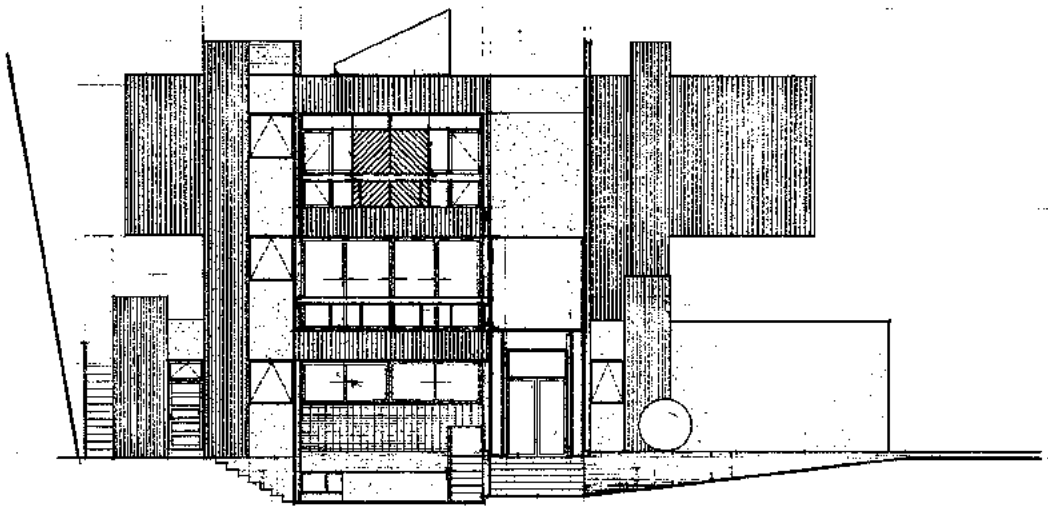
삼청동 S 씨집

김 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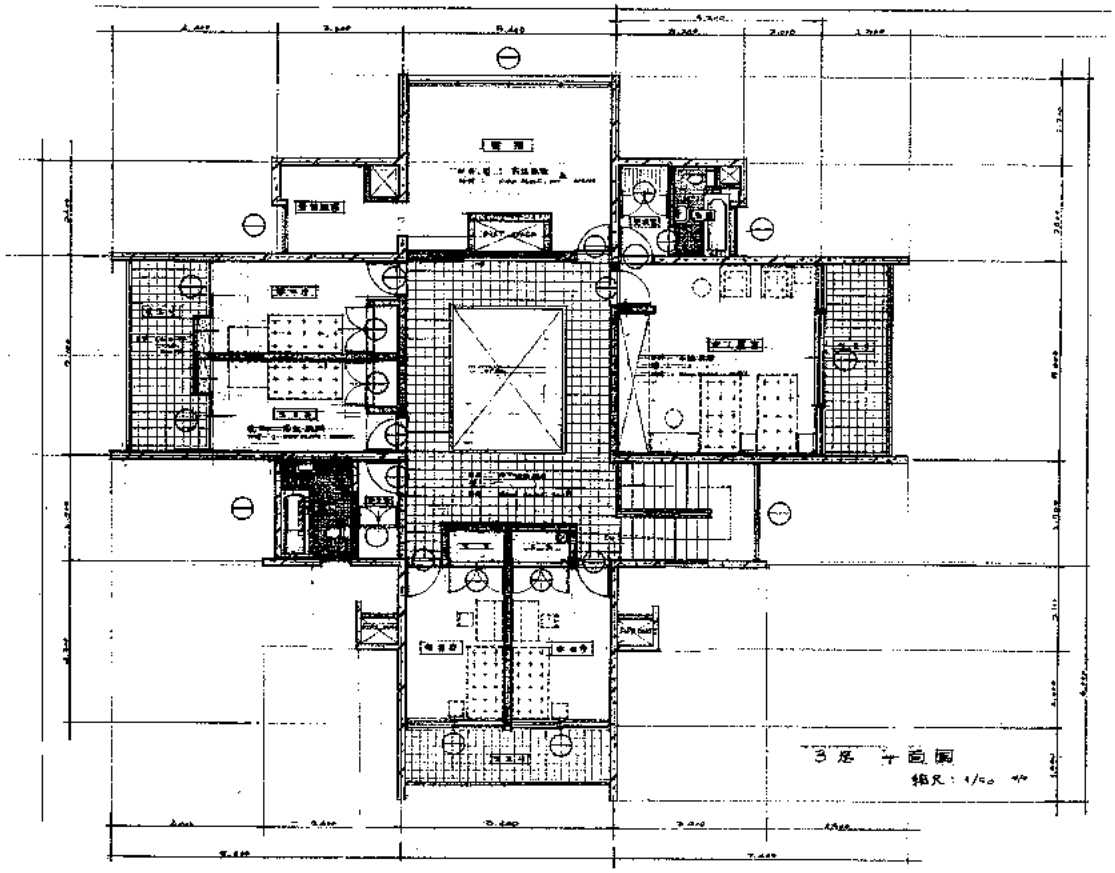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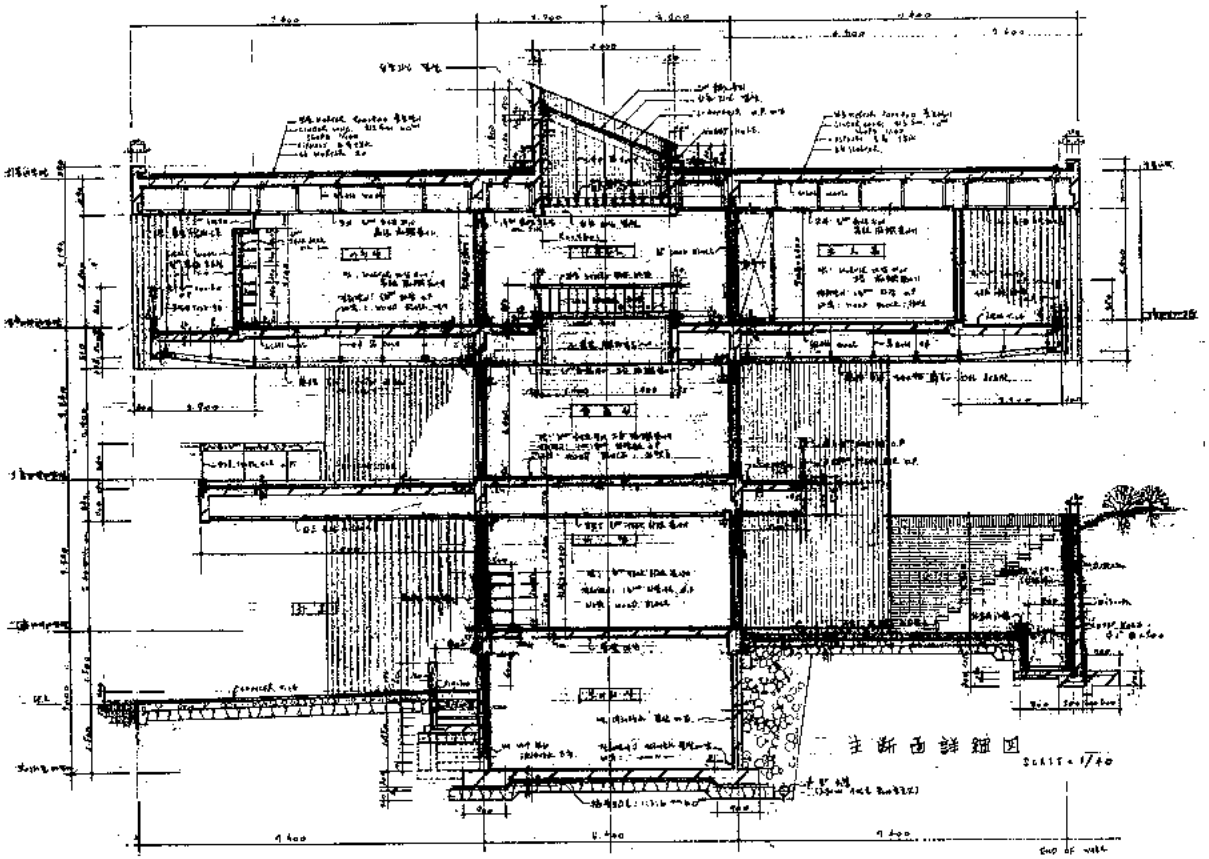

2 层 平面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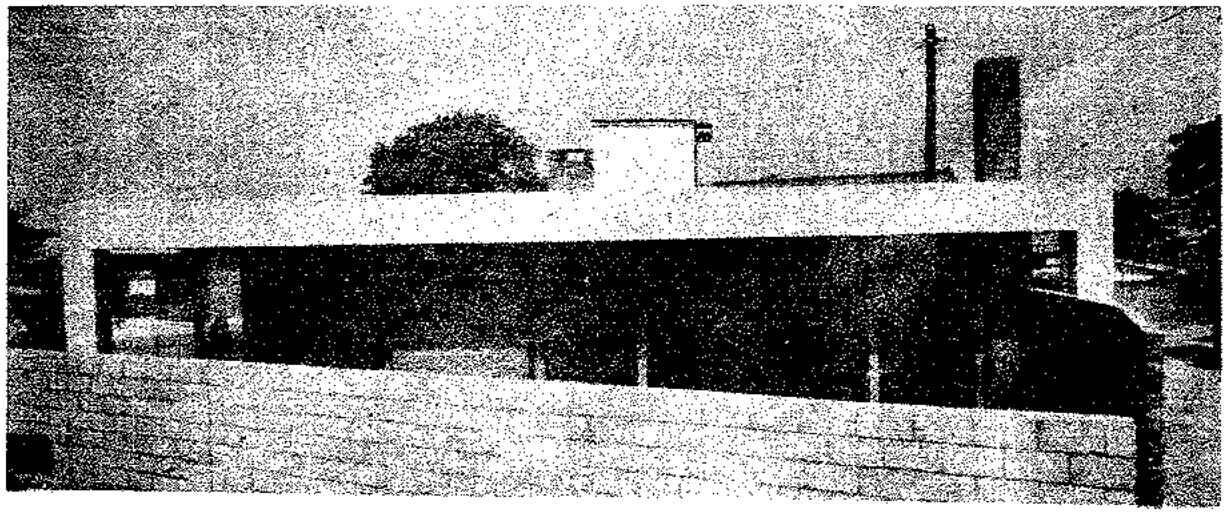
南側立面図
縮尺：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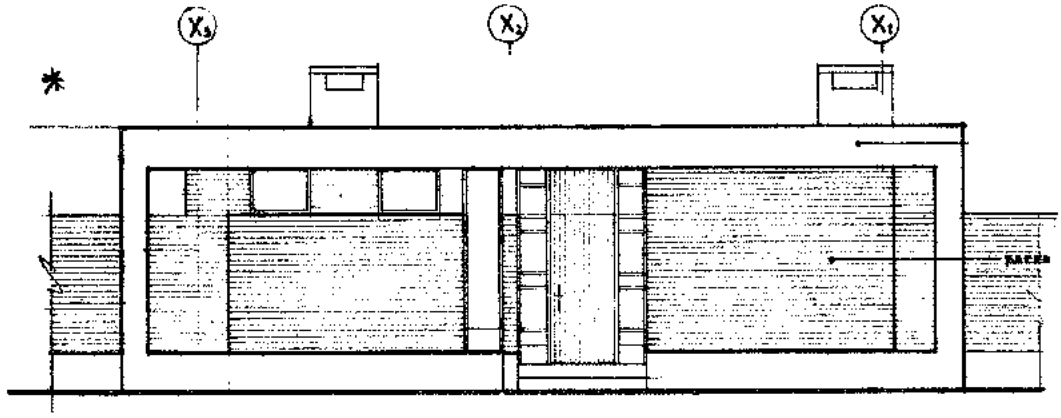


3階平面図
縮尺：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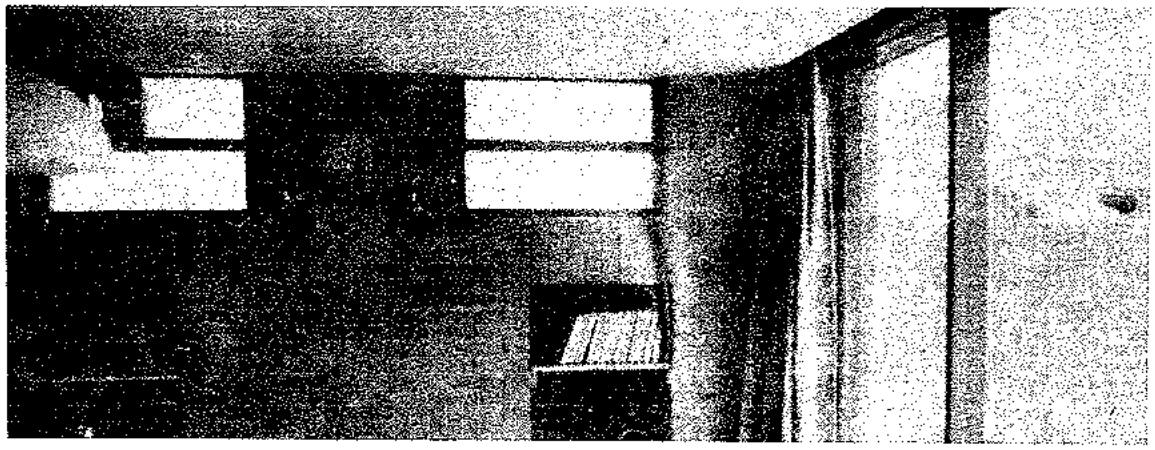

主断面詳細図
SCALE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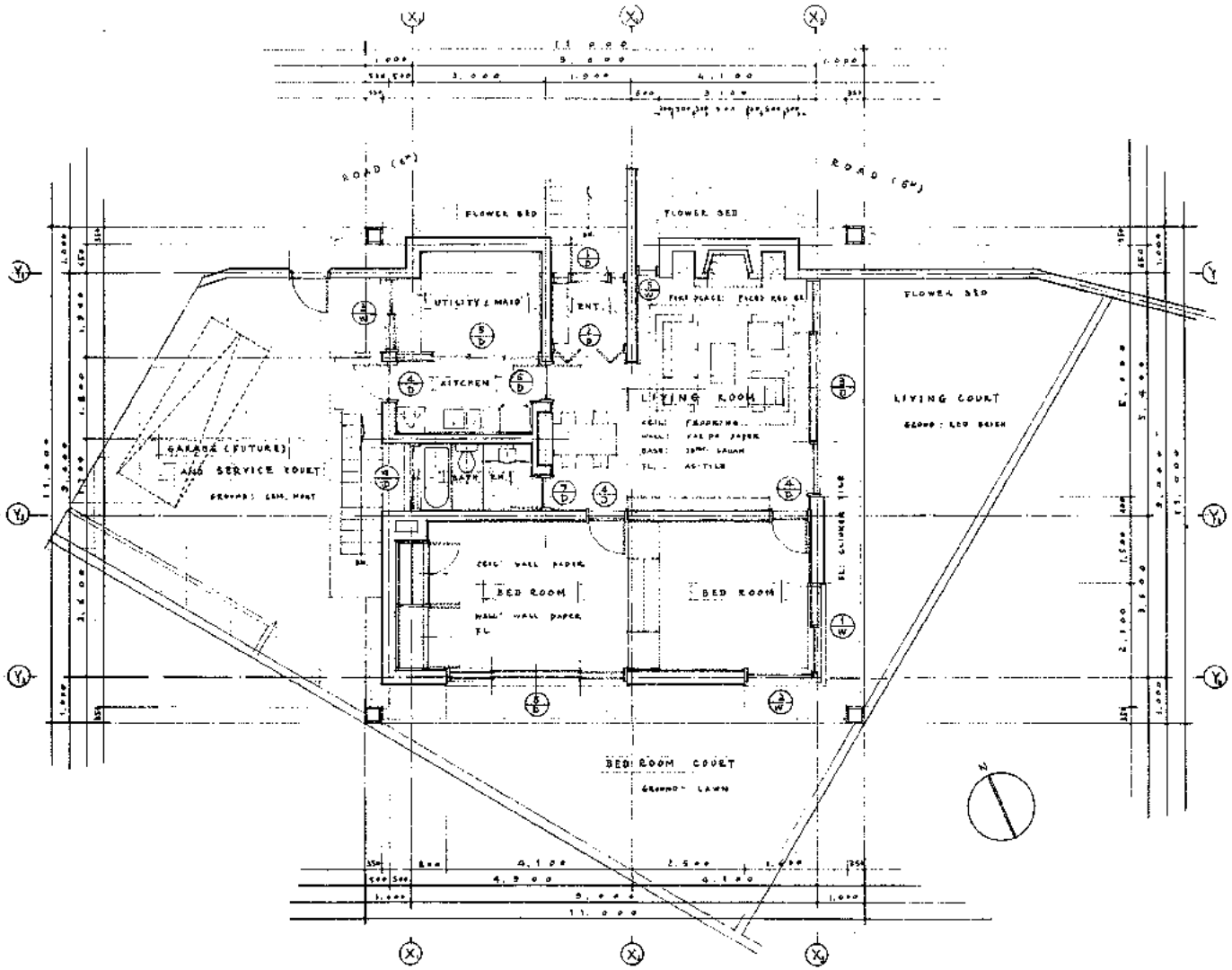
상도동 B 씨집 변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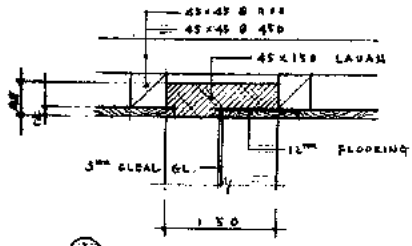


NORTH SIDE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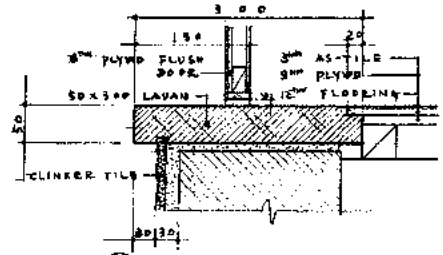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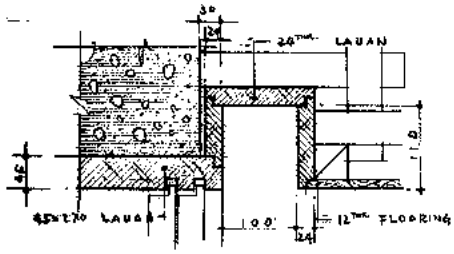
1/A-2 PLAN SCALE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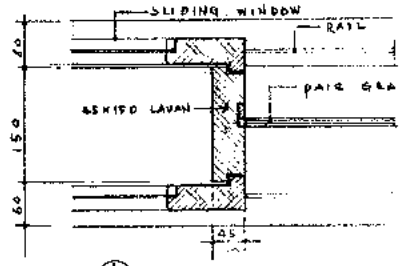
HEAD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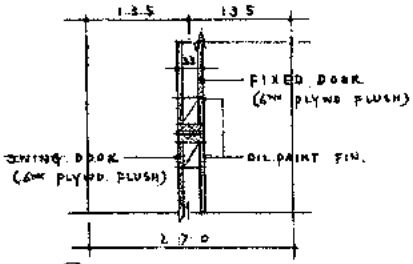
SILL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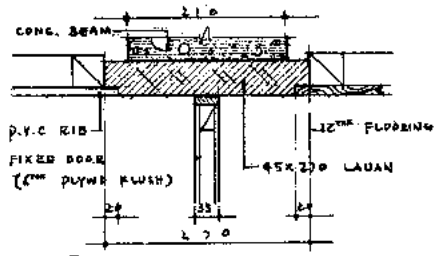
HEAD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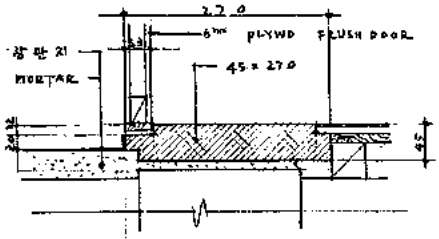
MEETING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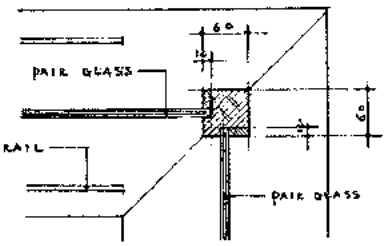
MEETING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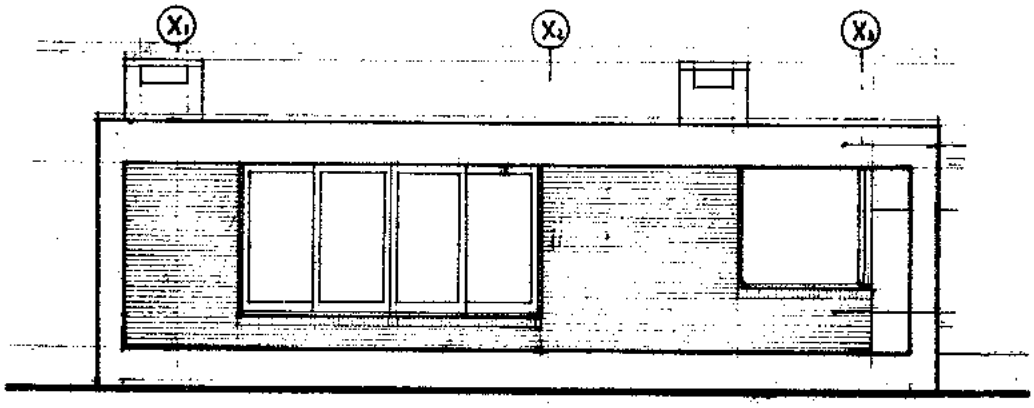
HEAD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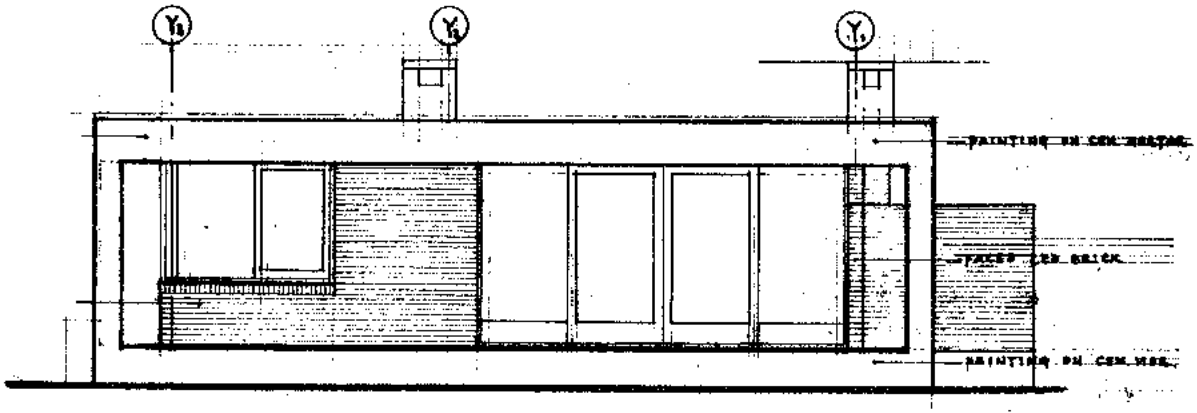
SILL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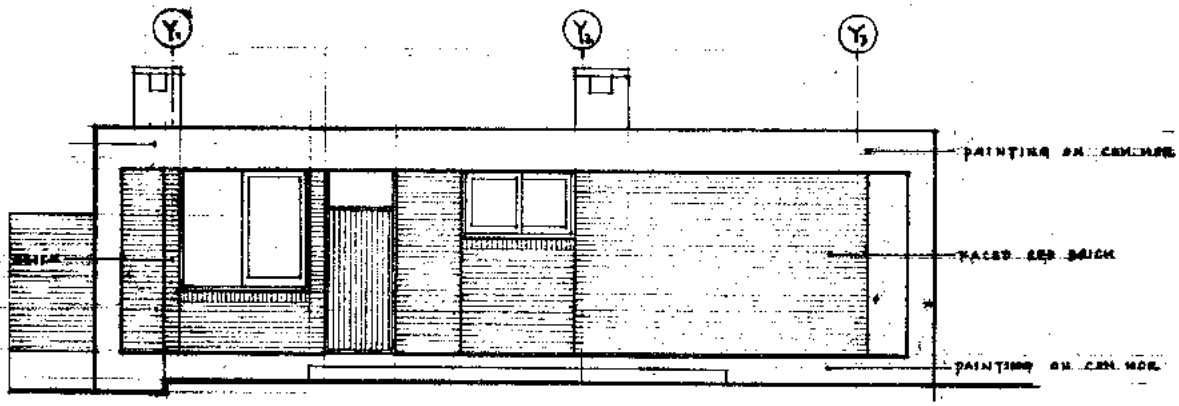
CORNER DETAIL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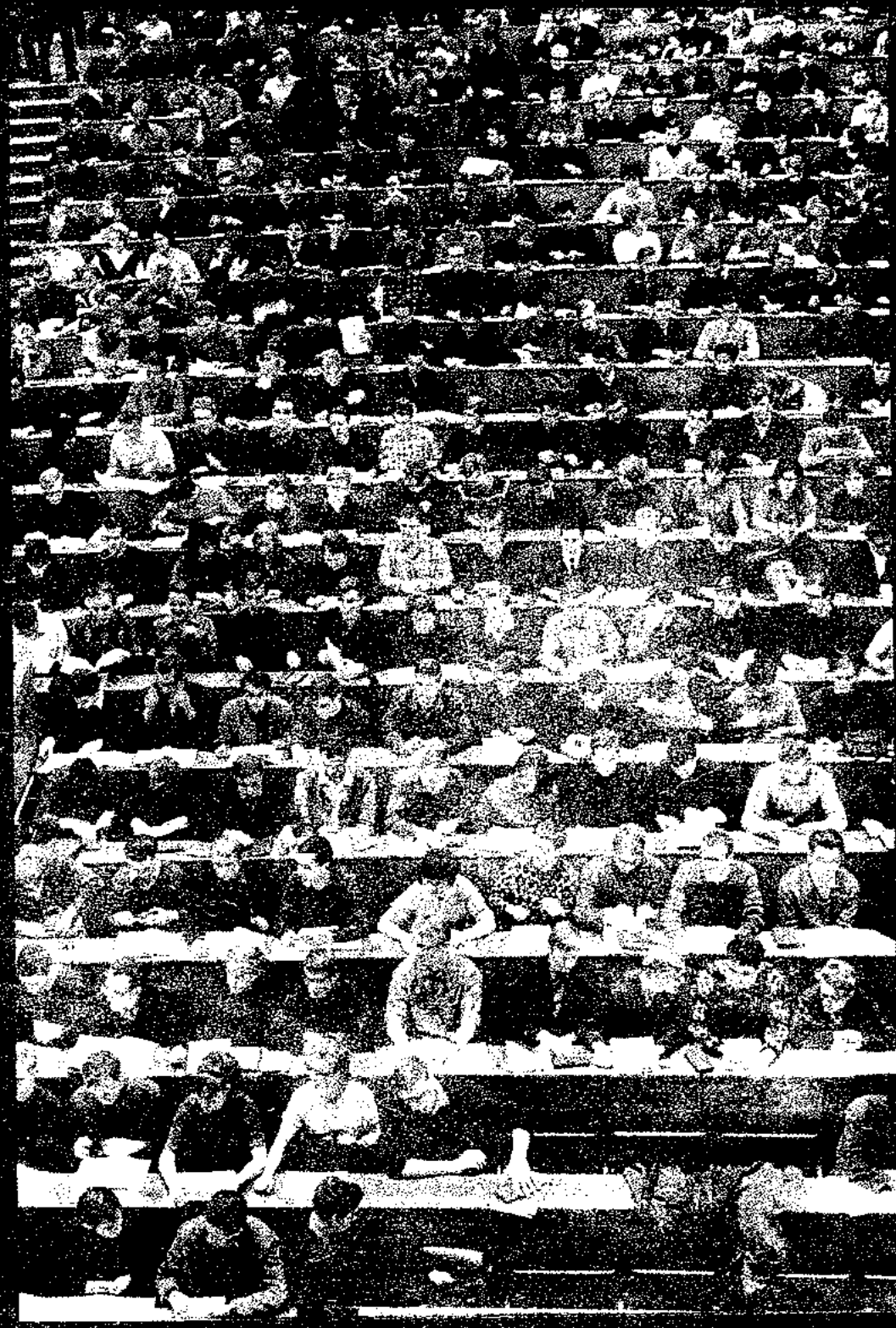
SOUTH SIDE ELEVATION 1:1/100



EAST SIDE ELEVATION 1:1/100



WEST SIDE ELEVATION 1:1/100



대학과 그 기능

화이트헤드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가의 지적수준에 대해서 큰 결함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국가의 화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상식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새로이 세워지는 모든 대학건축이 그러한 현상을 추종하기에 급급해있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화이트·헤드 교수의 이 글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과연 했어야하고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큰 암시를 줄 것이다. 그의 글에는 우리가 수 없이 대해온 언어의 환각이 없다. 그는 이 글에서 오늘 우리 주위의 그 수 많은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과 의무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대학의 확대는 현대에 있어서 사회의 한 현저한 특징이다. 모든 국가는 다 같이 이와같은 경향에 놓여있다. 그리고 그 수, 그 크기, 그 내부조직의 복잡성에 있어서 대학의 이와같은 확대는 대학자체의 중대한 기능의 상실을 가져왔고 드디어는 대학의 효용의 원천 그 자체마저 파괴하게된 위험을 노출하고 있다. 대학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재검토의 필요는 모든 비교적 진보한 나라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대학의 발전은 제대로 인도만 된다면 종래의 문명이 경험한 가장 탁월한 진전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대학은 교육의 院이며 연구의 院이다. 그러나 그 존재의 근본적 이유는 단순히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여 주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단순히 교수들에게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도 아니다. 그와같은 기능은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 기관을 두지않고서도 보다 싼 비용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서적은 싸며 년계봉공의 제도도 잘 이해되어있다. 단순한 지식의 공급이라는 일이라면 15세기에 있어서의 인쇄의 보급이래로 어느 대학도 그 존재를 정당화시킬 이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창설의 주된 요인은 이 시기 이후의 일이며 그리고 보다 최근에 이르러서 더욱 증가되어왔다.

대학을 정당화하는 것은 학문의 상상적인 연찬속에서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과를 결합시킴으로서 지식과 생활의 여운과의 연결을 보존하여 간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지식을 전달한다. 그러나 지식을 상상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저어도 이것은 대학이 사회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다. 이 점에 결함을 갖는 대학은 존재할 이유를 갖지 못한다. 상상적인 연찬으로부터 나오는 정서적인 환경은 지식을 다른 차원으로 인도한다. 거기에서 하나의 사실은 이미 한개의 사실은 아니며 그것은 모든 그의 가능성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기억에의 부담이 아니며 그것은 꿈의 시인과 같이 활기에 충만되어 있으며 목적을 향하는 생기에 넘쳐있는 것이다.

상상력은 사실과 분리되어서는 않되며 그것은 사실을 비추어야 한다. 그것은 사실에 적용되는 일반적원칙을 있는 그대로 풀어냄으로써 그들의 제원칙과 일치하는 다른 가능성의 지적탐구에 의해서 작용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새로운 세계의 지적영상을 만드는 것을 가능케하며 만족한 목적을 암시함으로써 생활의 여운을 보존하게한다.

세상의 비극은 상상력이 풍부한 자에게는 경험이 적고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는 상상력이 없는 일이다. 우둔한 자는 지식없이 상상한다. 현학적인 사람들은 상상력없이 지식을 사용한다. 대학의 사명은 상상과 경험과를 융접하는 일이다.

상상력의 그 가장 젊음에 넘친 활발한 시기에 있어서의 도야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자중의 이상적인 예증이 일반적 제원칙으로부터 직접 본원적으로 식별되는 선입관념없는 사고의 습관은 구체적인 조직을 보존하는 일상적 임무를 수반할 때에는 이룰 수가 없다. 학생은 옳든 그르든 간에 자유로이 사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주의 복잡한 모습을 우주의 위기등에 의해서 혼란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교육의 일반적기능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직접 이것을 실제적인 분과의 특수한 기능에 옮겨서 생각할 수가 있다. 현대의 복합적인 사회조직 속에서는 인생의 모험은 지성적모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대학은 우리가 가진 문화의 지적 선도자들을 교육하여왔다. 그 의미에 있어서 대학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혼란에 직면시키려고 하는 이상의 발상지였다. 오늘날의 상업적 행위는 과거에는 다른 방면의 일에 쓰로 바쳐진 것과 같은 종류의 지적인 상상력을 요구하고있다.

중세의 초기에 있어서의 대학의 발생은 애매하였으며 따라서 거의 주의를 끌지 못하였다. 대학은 점진적이고 자연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대학의 존재는 구라파문화의 불굴하고도 급속한 진보의 이유다.

모든 보다 높은 종류의 인간적 노력을 방해하는 한 큰 난관이 있다. 현대에 있어서 이 장애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모든 커다란 조직내에서 미숙자로서의 젊은이들은 명하는 바에 따라서 정해진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않된다.

이와 같은 작업은 하나의 큰 훈련이다. 그것은 지식을 주고 신뢰에 해당하는 인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관행에 의해서 일상적인 일의 지속은 상상력을 둔화시킨다. 이런 결과는 한 사람의 생애의 후반에 있어서의 중요한 소질이 그 초기단계에서 한 형에 고정될 경향을 강하게 한다. 이것은 보다 일반적인 사실 즉 필요한 기술적 탁월성은 그와같은 기술적 수완을 인도할 지적능력을 상하게하기 쉬운 한가지 훈련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의 일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에 있어서의 완전적 사실이며 교육의 대부분의 곤란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대학이 어떠한 지적인 직업의 준비로서 수행할 기능의 자태는 그 직업이 현대의 실업적인 것이든 혹은 비교적 재래형의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의 기저에 놓여있는 일반 제원칙의 상상적인 고찰력을 높이는데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학생들은 세목과 일반원칙과를 결합시키는연습을 거쳐서 상상력을 몸에 지니고 각자의 전문적인 하나의 견습시대에 들어간다. 일상적인 일은 이러한 의의를 받고 또한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제원칙에 빛을 준다.

대학 본래의 기능은 지식의 상상적인 획득이다. 대학은 상상적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상상력은 전염병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계량되지 않는다. 그것은 교수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진다.

이 상상력은 그들 자신이 상상력을 가진 학식을 몸에 지니고 있는 교수들에 의해서만 전염될 수 있다. 나는 별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관찰의 하나를 반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가원전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세대의 손으로부터 다음 세대의 손으로 계승되는 동화에 의해서 학문을 표징하였다. 이와같은 불붙은 동화야말로 내가 말하는 상상력이다. 즉 창조하는 힘이다.

상상력과 학문과의 결합에는 약간의 여가, 구속되지 않은 자유, 괴로운 고민으로부터의 해방, 약간의 경험, 그리고 서로 다른 견해와 준비가 있는 다른 정신으로부터 받는 고무가 당연한 현상으로서 필요하다.

또한 호기심으로부터 오는 흥분도 필요하며 지식의 진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받는 긍지로부터 생기는 자신도 필요하다. 학식과 상상력과를 가진 생활은 한 생활양식이지 상품이 아니다.

교육과 연구가 한 대학에서 결합되어 간다는 것은 한 효율적인 교수진에게 이와같은 조건이 점비되고 그것이 유효하게 이용되어가는 일이다. 대학은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참가하는 탐험의 집이다. 한 진보적인 사회는 그 속에 학자와 발견자와 발명자의 세가지 집단을 포함하는데 의존한다. 그리고 사회의 진보는 그가 갖는 교육받은 대중이 각기 학구적분위기·발견적탐조·발명적색채를 갖는 맴버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내가 여기서 사용하는 발견이라고하는 말은 고도로 보편성이 있는 진리에 관한 지식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명이라는 말은 현재의 요청에 이로울 수 있는 특수한 방법에 있어서 보편적 진리를 응용하는 것에 관한 지식의 전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국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갖는 모든 종류의 진보적 요소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비로소 연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이 학문에 영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여러가지 진보적 활동을 하나의 유효한 진보의 기구속에 융화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새로이 지어지는 7 개의

아래의 글은 最近 6年동안에 실제로 지어지거나 짓고 있거나 혹은 計劃案으로 제출된 7個의 大學案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짧은 글로서는 각 大學의 독특한 특성들을 자세하게 비교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아래와 같은 6가지 비판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의해 분석해 보았다. 따라서 이것은 Campus plan의 극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매우 피상적인 小考라고 밖에 이름붙일 수 없겠다.

1. 都市에 대한 大學의 位置관계.
2. 인접한 주위환경과의 관계.
3. 大學活動의 조직, 그 성격과 형태
4. 動線計劃
5. 構造 및 材料
6. 發展의 可能性

1 都市에 대한 大學의 位置관계

이 글에 例示된 7個의 大學은 그 위치로 보아 명실공히 都市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것과 郊外에 위치하고 있는 두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市中心街의 확충이나 재개발 계획의 과정에서 생기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토지 투기 업자에게 넘기느니보다는 유용하리라는 생각에서 학교에 돌아오는 都市內의 기존 空地 위에 세워진다.

郊外로 大學이 밀려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역시 地価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campus를 郊外로 흩어놓을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를들면 都市의 主動線軸과의 관계따위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흔히 특별히 캠퍼스를 위한 새로운 동선을 만들어 都市의 動線과 연결시키고 있다.

住居地域의 분할을 분석하여 보면 居住者의 수입계층에 따라 분리된 지구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된다. 이것은 地価나 집세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가 그 부지를 선정할 때도 같은 이유로 제약을 받게된다. 결국 Campus는 저소득층의 구역에 자리잡게되고 그곳의 住民들은 大學과의 새로운 관계수립에 곤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 완전히 둘러싸인 뚜렷한 예로서 "Chicago Circle Center"를 수 있다.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오가는 보도 위를 가로질러 이 대학을 지하철과 이어지는 거대한 주차장과 연결시키는 무지무지한 콩크리트의 다리! 이러한 해결책이 어떤 기적적인 효과를 내리라는 망상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문제의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으며, 그것은 국가 시책 이전의 문제다.

2 인접한 주위환경과의 관계

다음으로 Campus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인접 환경과의 접촉에서 생기는 관계는 어떠한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의 분위기를 주위환경과 완전히 구별하기 위해 어떻게 건물들을 배치하며 대지를 분할하며 또 외부와 어떻게 연결시키며 Campus 주위의 인구의 집중현상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가 등을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외부와 명확히 구별되는 Campus의 환경조성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나의 씨스템 혹은 하나의 조직원리를 방편으로 강제적으로(어떤 경우 거의 난폭하게) 통일된 환경을 조성하려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핵심을 찌른 방법일까? (Chicago. Loughtorough, Berlin)

대학안에 대한 분석과 비평

3 大學活動의 組織, 그 성격과 형태

大學과 인접환경 혹은 마을 전체와의 사이가 서로 다른 동선조직으로 연결될뿐 아니라 대학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시설이나 활동들이 대학 자체의 시설이나 활동과 공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시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 놓는 대학의 활동이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아놓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할 것이다.

사람들은 기숙사와 文化會館과 기타 마을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을 학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왔다. 도서관, 강당, 전시회장, 체육관 등은 일반적으로 교육시설로 불리어지지만 마을조직의 뺄 수 없는 일부분이기도 하다.

Campus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각 구역 사이의 내재하는 관계들을 생각해야 한다. 요즈음 와서는 독창적인 Campus의 조직방법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것은 교육방법의 변화와 연구활동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4 動線計劃

네번째로 campus 內의 전반적인 신진대사에 관해 살펴보아야 한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모든 흐름과(사람, 차, 물건등) 에너지(추상적 혹은 구체적)의 유입과 방출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주차장을 포함한 차의 동선과 사람의 동선의 뜻으로도 쓰인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작도된 動線圖를 보고는 그것이 大學의 空間組織을 얼마나 충복시키고 간소화시켰는지에는 아랑곳 없이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는게 보통이다. 도식화된 차와 사람동선의 분리는 의외의 위험을 내포할 때가 있다. 완전한 분리와 완전한 혼합 사이에는 고려할만한 中間的 해결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5 構造 및 材料

다섯번째 관점은 각 건물의 다음과 같은 점에 돌려진다.

—구조방법

—재료 및 공법

—尺度 및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尺度의 분할.

이 경우 大學의 교육계획과 그 방법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연구활동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감으로 空間의 효용성에 대해 언제나 새로운 경향이 생기게 마련이다. 동선조직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건물의 새로운 개념에 따라 변화하는 이상 새로운 기술적 system을 받아들이거나 건물의 배열과 상호관계의 성격이나 개념에 변화가 생길때마다 그 해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한다. (Loughborough, Bath)

6 發展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大學의 확장 및 發展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포하고 있는 융통성

—生長의 가능성

敎育方法과 材料의 變化가 campus 시설의 기능을 감소시켰을 경우에는 대학의 실체화된 조직 속에 모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가지 정도의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하며 더우기 그 환경은 자주 변화해간다.

예를들어 시청각교육방법의 출현으로 우리가 소위 campus의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불러온 실험실, 계단교실, 도서실 같은 것들의 성격이 변해 버렸고 그 개념 자체를 再考해보아야할 처지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大學의 實体化된 조직 속에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분리되느냐 하는 것에도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시설들은 이미 지식과 정보를 실제에 가장 빨리 전달시키는 수단으로 휘급되어야 한다.

만약 大學 건물들이 永久的인 계획으로 세워진다면 건물들의 組織方法 또한 永久的 안목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을 위해 필요한 낡은 지식들은 마치 "getto"에서 뛰쳐나와 자기들에 붙어있는 렛텔을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집과 마을을 갖도록 도와주 듯이 大學으로부터 추방시키는 방도를 찾아내야한다. 大學이란 곳은 大學 밖에서의 日常生活에 비해 좀 더 가치있는 生活環境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니면 안된다.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大學生活을 받아들이고 종합하기 위해서는 내포되어 있는 융통성, 확장의 가능성등이 중요한 요건이다. 이것은 campus내의 시설의 재배치, 지역사회를 위한 시설의 첨가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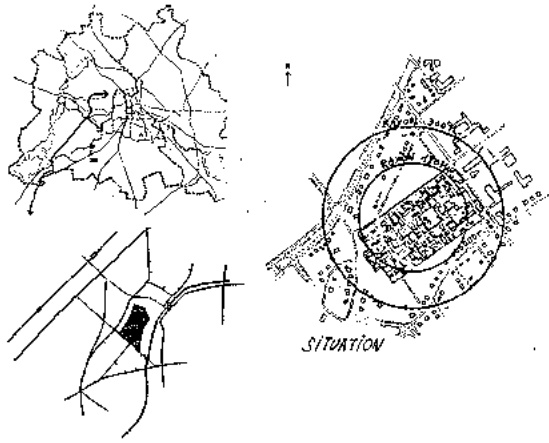
처음의 3가지 관점은 大學 內의 生活과 大學 밖에서의 生活과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개방성) 혹은 어떻게 분리하여 보호하느냐(폐쇄성)하는 것을 campus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의 성격과 그의 發展에 따라 분석해 봐야한다는 점을 제기했고 인정했다. 이러한 변증법적 대조의 결과 大學이라는 곳을 社會의 變化를 막는 제동기의 역활과 그러한 變形을 전달하는 두가지 역활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곳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게끔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大學을 마치 도시개발의 싹이나 근본적인 動因 인것처럼 생각하는 一元論的 사고방식으로 유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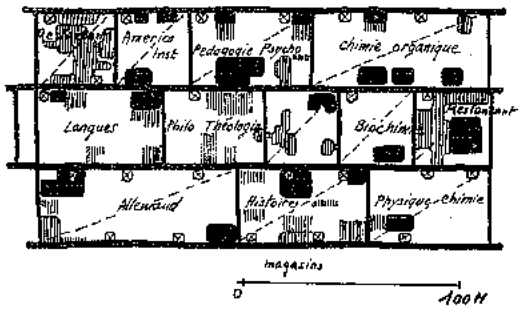
뒤의 3가지 관점은 campus 空間 속에서의 실제 건물의 조직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그 결과 한 가지 형태론적 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campus 空間의 實体化된 조직의 개방정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자끄 · 프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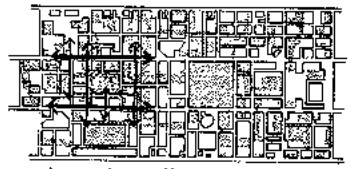
Jacques Fred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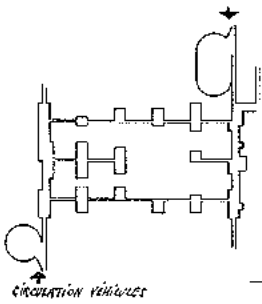
Six critères d'analyse pour sept universit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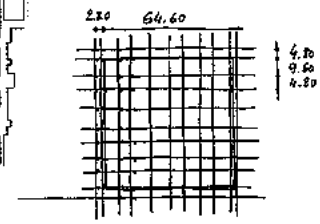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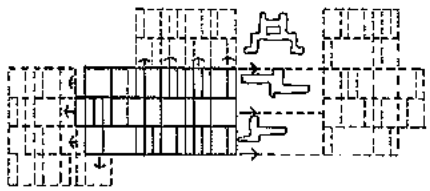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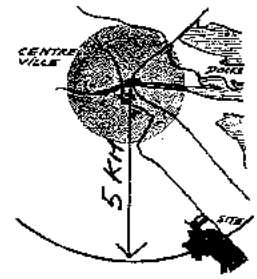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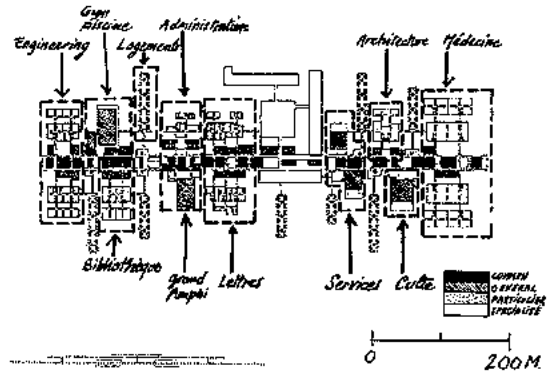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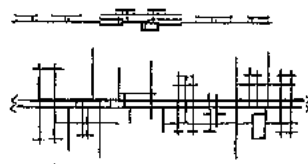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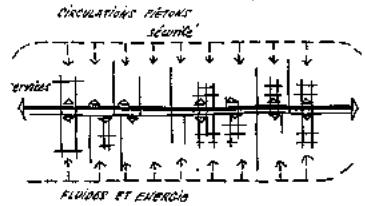
DUB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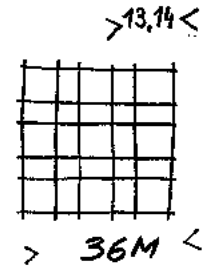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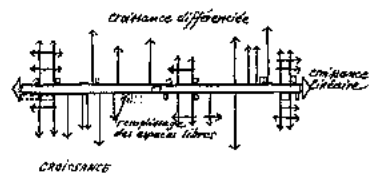
SITUATION - CONT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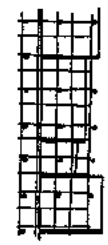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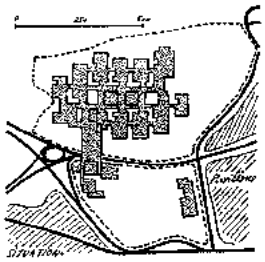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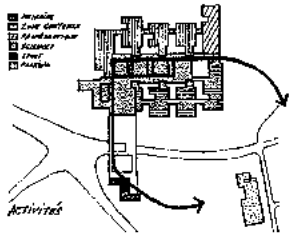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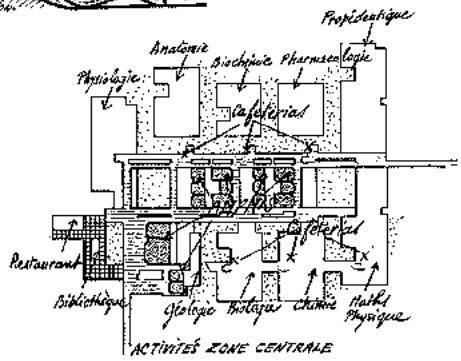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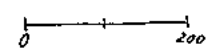
T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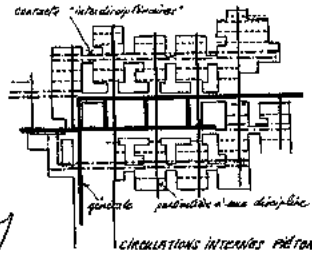
ZUR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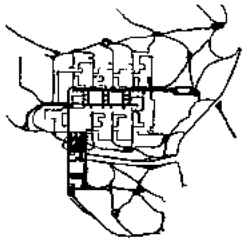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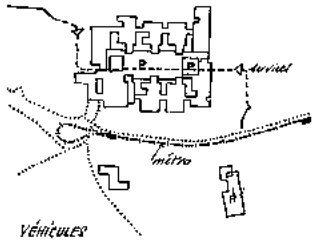

Activit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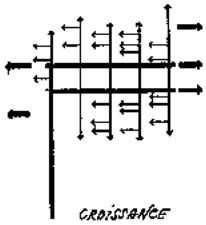

Propédeutique
Anatomie
Biochimie
Pharmacologie
Physiologie
Cafétéria
Restaurant
Bibliothèque
Géologie
Biologie
Chimie
Math
Physique
ACTIVITÉS ZONE CENTR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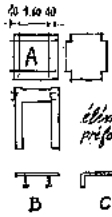

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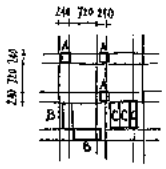

CIRCULATIONS INTERNES PIÉTONS


CIRCULATIONS PIÉT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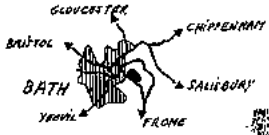

arrivée
métro
VÉHIC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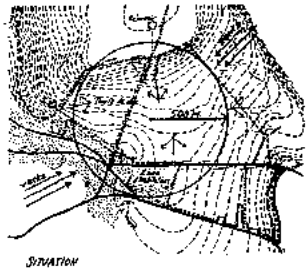

CROISS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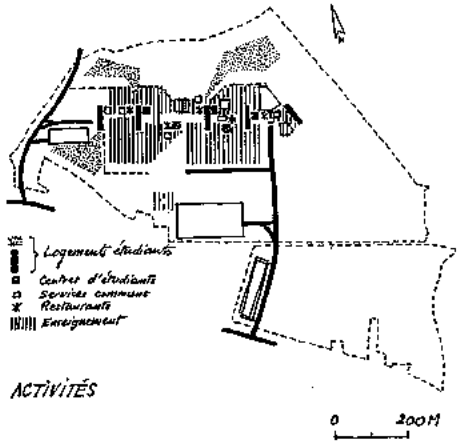

A
éléments BA préfabriqués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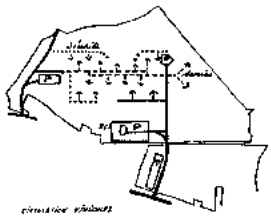

TRAME DE 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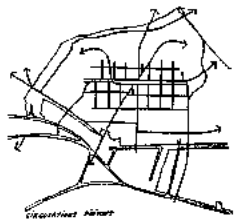
B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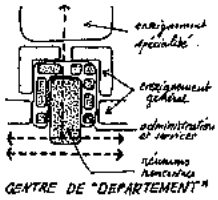

GLOUCESTER
CHIPPENHAM
BRISTOL
BATH
SALISBURY
YEOVIL
FR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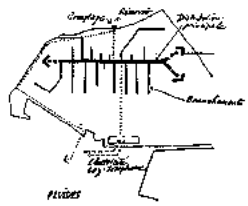

SITUATION


Logement étudiants
Centres d'étudiants
Services communs
Restaurants
Enseignement
ACTIVITÉS
0
2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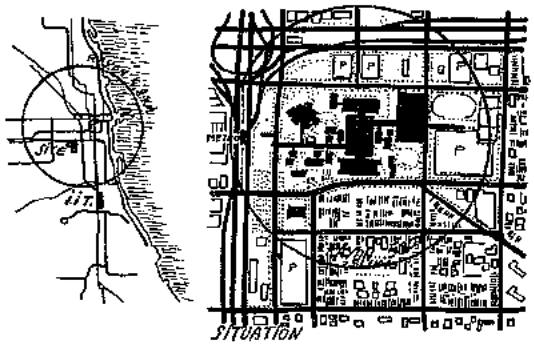

enseignement spécialisé
enseignement général
administration et services
réunions nombreuses
CENTRE DE "DEPART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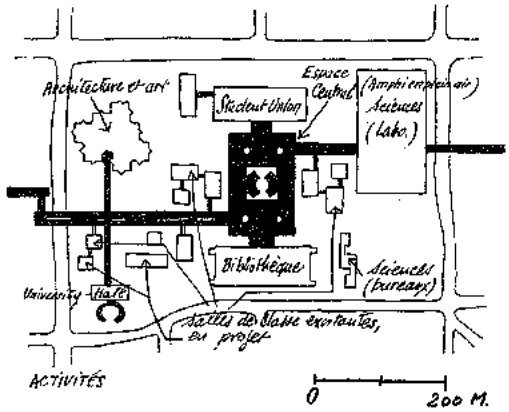

FLUI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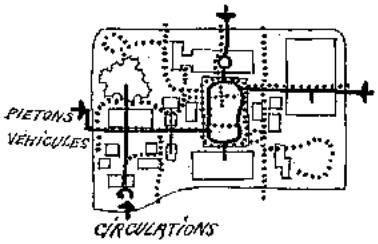
CROISS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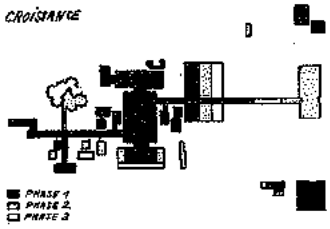
FLUIDES ET ENERG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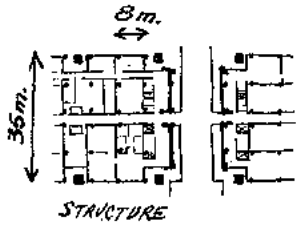
CHICA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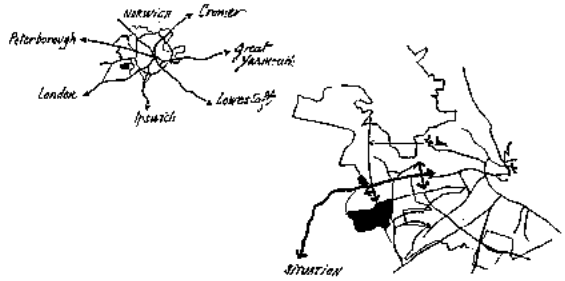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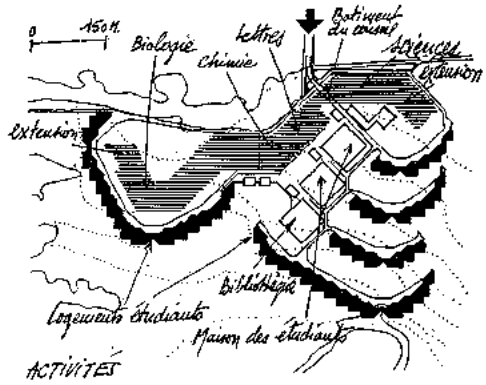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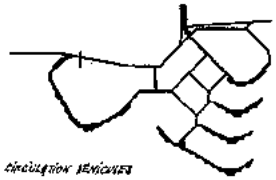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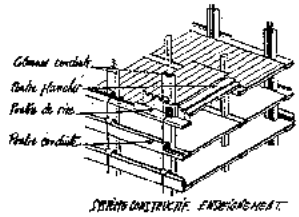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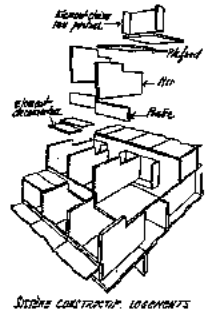
EAST ANG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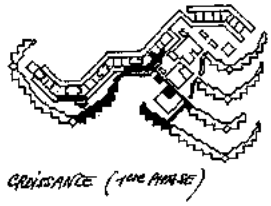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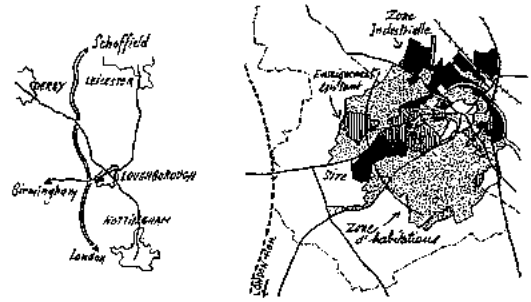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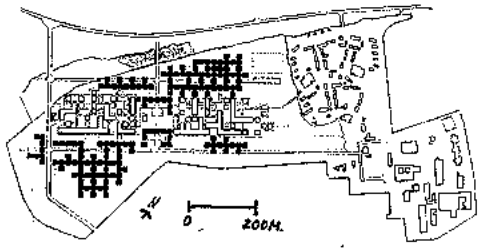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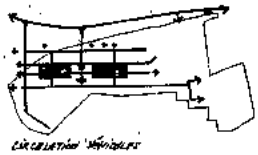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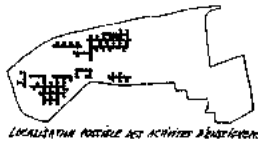
LOUGHBOROUG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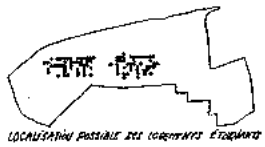


CIRCULATION VÉHIC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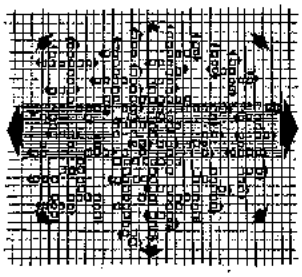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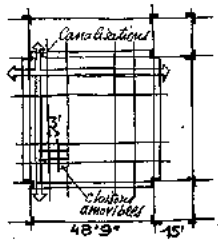
LOCALISATION POSSIBLE DES ACTIVITÉS D'ENSEIGNEMENT

CIRCULATIONS PIÉTONS



LOCALISATION POSSIBLE DES COMMERCES ÉTOUDIANTS





TRAMES ET PARTI CONSTRUCTIF

RÉPARTITION DES ACTIVITÉS EN COUPE

『Loughborough 工科大學, 英國』
設計 — Arup and Associates

Loughborough 工科大學은 1909년 이래 각 분야에 수많은 전문기사들을 배출해왔다. 드디어 단과대학으로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출 필요가 생겼고 학생수도 3배로 늘었다. 새로운 계획안은 교육장소 의 효용 및 發展의 리듬등을 새로운 개념으로 해석하여 發展에 따른 變化의 가능성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

40ha의 대지는 北西向의 언덕에 자리잡고 있는데 變化에 따른 大學組織의 확장을 미리 고려하기 위해 건축가들은 대지 위에 한 가지 패턴의 모듈 격자를 그려넣고 강의실 아트리에, 연구실, 휴게실 등등 각 건물이나 방들의 기능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격자 속에 맞추어 넣기로 했다.

덧붙혀 다음과 같은 점이 특히 강조되었다.

1. 有形, 無形의 원활한 敎育的 경험의 접촉의 가능성. 學部와 기숙사와를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장소의 제공.
2. 學生과 교수가 쉽사리 만나질 수 있는 가능성.
3. 기혼학생을 위한 아파트 계획.
   (영국에서는 결혼하고 大學에 들어가는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다.)
4. 이러한 학생 住居를 100~200명 단위로 처리할 것.

새로운 확장은 중심부에서부터 동쪽과 서쪽으로는 住居部分, 남쪽과 북쪽으로 교육시설의 원칙으로 發展시킨다. 특히 기술교육장소를 學部의 변두리로 보내어 소음 및 가게에서 發生하는 여러가지 해독으로부터 다른 부분을 보호한다.

일반적인 구조형태 속에 써비스공간들을 모아넣기 위해 구조물의 스케일을 여러가지로 연구해보았다. 결국 平均 2m 두께로 床과 天井 사이의 폭을 잡아 그 속에 여러가지 써비스관(管)들을 집어넣었고 그것들을 수직의 닥트로서 아래로 빼내었다.

이 大學은 특히 학생들이 大學구내나 마을에 살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인데 마을의 학생수용능력은 매우 미약하므로 大學內의 學生住居문제가 다른 大學들에 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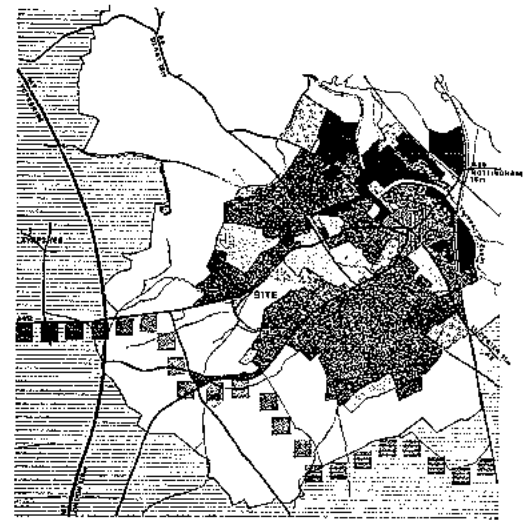
學生住居는 11個棟으로 나뉘어지며 각 棟에 250명의 학생과 교수 및 用人들을 수용한다. 건물의 형태를 多層으로할 것인가 저층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내려진 결론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레베타를 쓰는 경우보다 계단을 놓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5층을 기준으로 세우되 경사진 대지 위에 건물들을 세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높이의 단조로움은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건물의 형태는 각 층에 몇개의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미리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공동체는 8~12 個의 스튜디오로 되어야하며, 각 棟은 이러한 공동체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棟은 개별적인 특성을 갖도록 하지만 필요하면 몇 棟을 연결시킬 수도 있다. 각 棟의 폐쇄되거나 연결되거나 혹은 몇개가 합쳐진 공간들의 연속으로 中央地帶가 형성된다. 步道는 여러가지 높이에서 각 棟을 관통하기도 하고 밑으로 지나가기도 하면서 내부에서는 휴게실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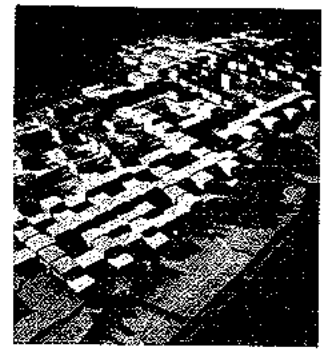
동선조직은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의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떤 장소에 도착했다는 느낌, 떠난다는 느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를 향한 움직임, 따위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각각 분위기가 다른 이러한 환경들은 그 분위기의 變化하는 강도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모듈格字는 필요하다.

共同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물과 사무실들은 住居棟들과 연결되며 中央地帶에 자리잡는다. 이 덩어리에는 도서실, 학생클럽, 회의실, 교수실 및 기타 관리실, 전시회장, 상점 및 카페테리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건물들과 中央地帶의 다른 건물들과의 연결방식은 생기료 지어나갈 때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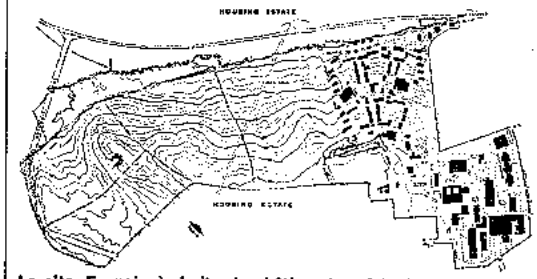
이런 類의 大學에서는 특히 步行動線에 막히는 것이 없어야하고 잘 보호되어야한다. 그러므로 대지의 경사는 테라스로 처리되어야하며 주차장(전체 학생의 25%를 위한)은 步道보다 낮은 레벨에 자리잡아야한다. 각 居處은 적어도 5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때까지는 모든 변두리 지점에서 중심부까지 걸어서 10분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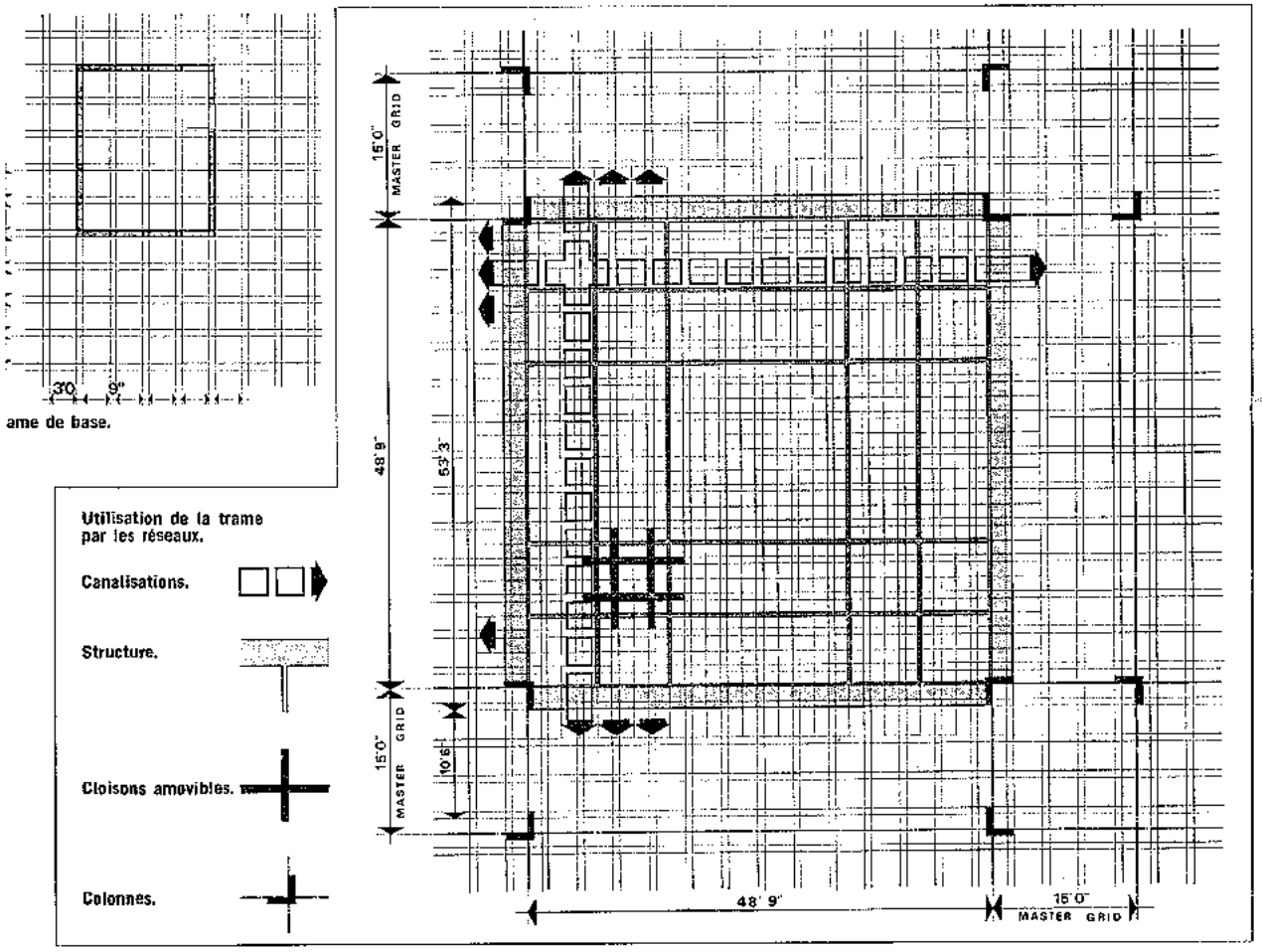
Espace central.
Espaces libres.
Habitations.
Industries.
Enseignement.
Limite forê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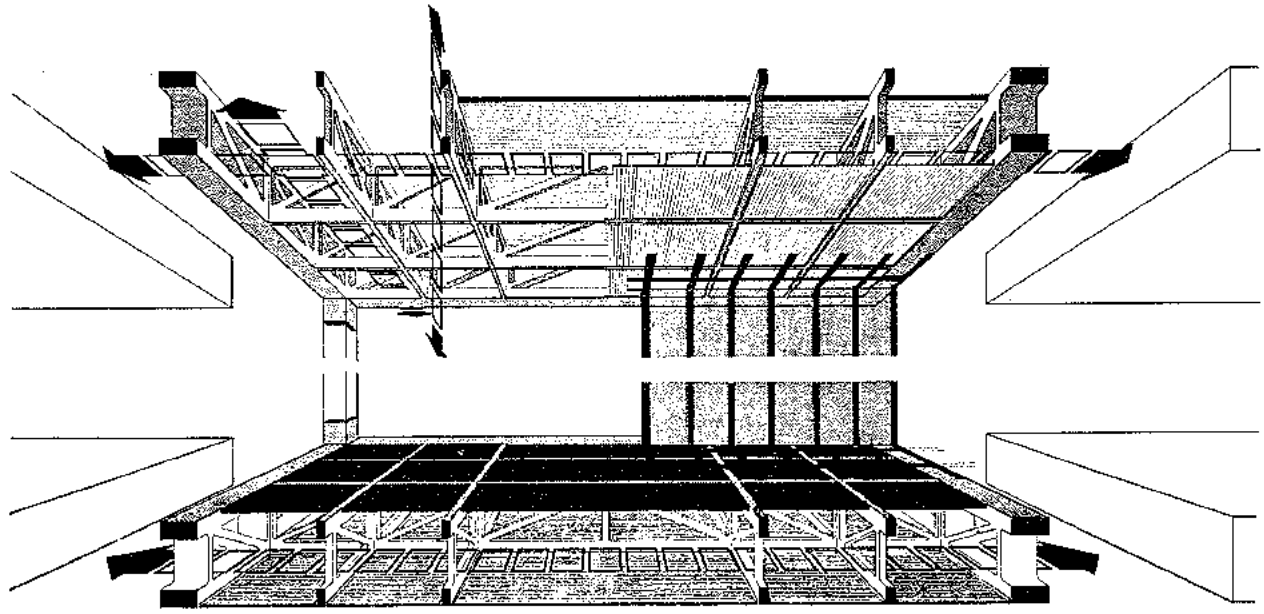


Maquette du projet.



Le site. En noir, à droite, les bâtiments existants.





Coupe-perspective sur une unité montrant les imbrications des différentes tra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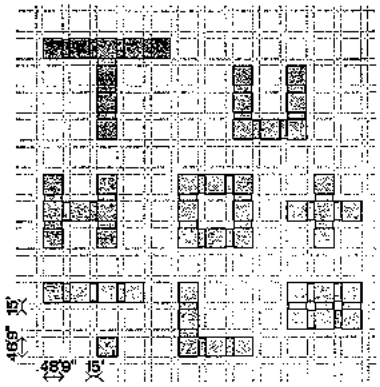


Diagramme montrant les combinaisons possibles des unit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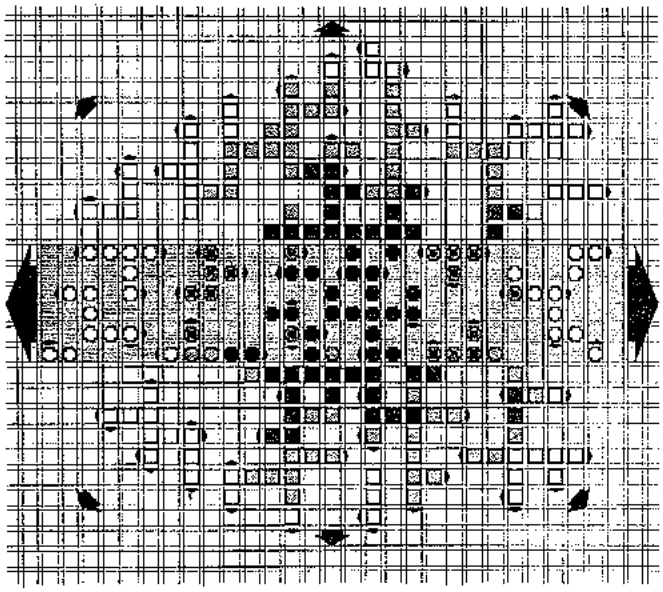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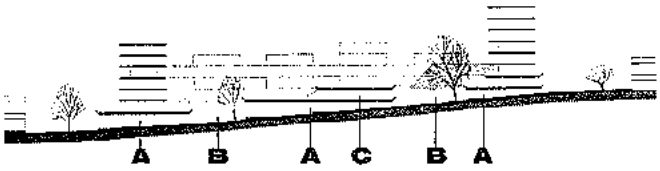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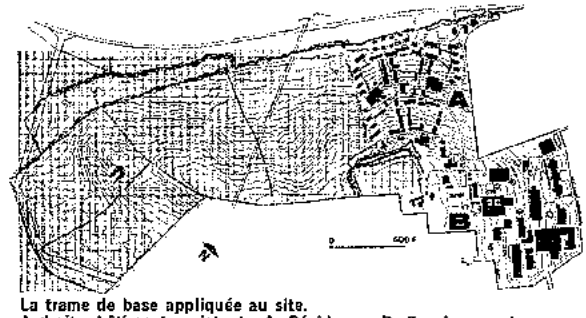
Schéma d'évolution :

- croissance éléments majeurs ;
- croissance éléments mine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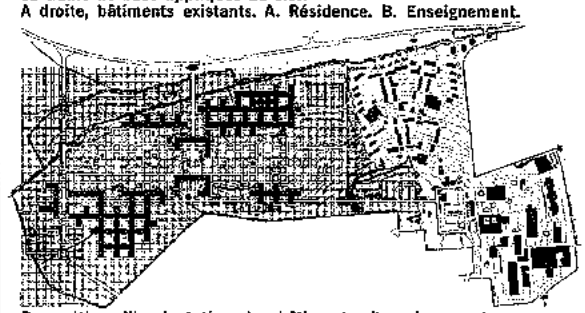


Coupe sur l'aire des résid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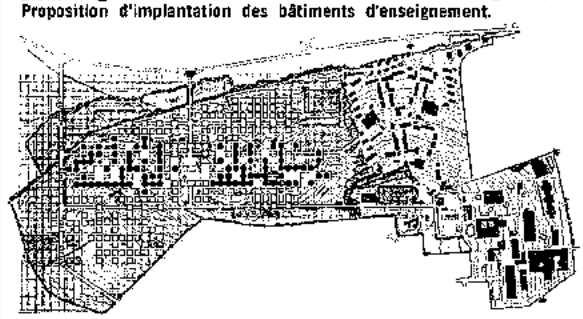
A. Parking.
B. Route.
C.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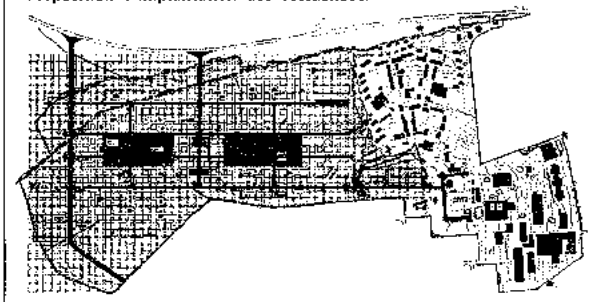
La trame de base appliquée au site.
A droite, bâtiments existants. A. Résidence. B. Enseign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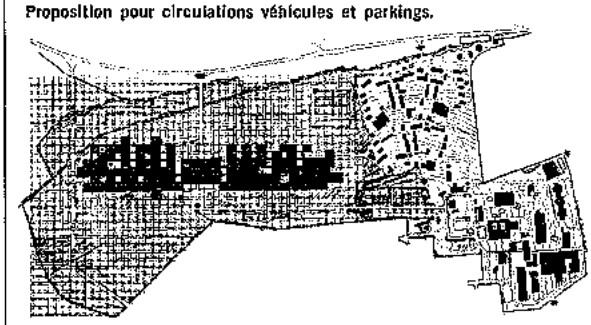
Proposition d'implantation des bâtiments d'enseign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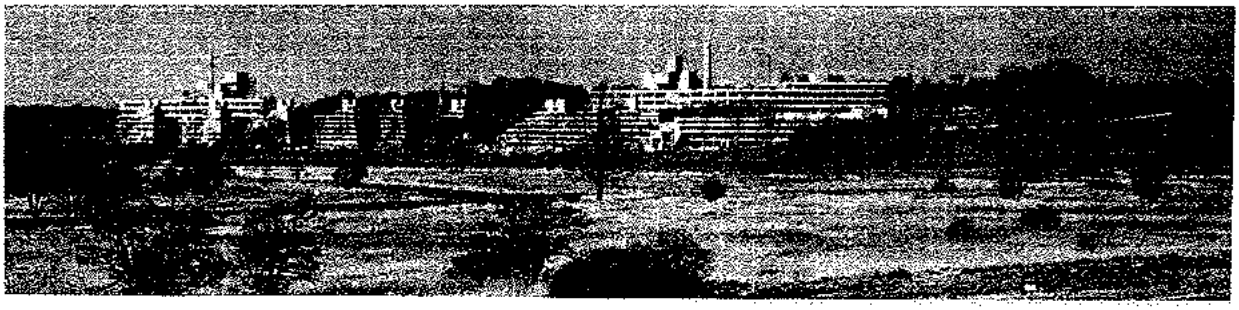
Proposition d'implantation des résidences.



Proposition pour circulations véhicules et parkings.



Proposition pour les circulations piétons dans la partie centrale.



『東 Anglia 大學校, 英國』
設計 = Denys, Lasdun and Patners

Norwich로부터 3km 떨어진 Earlham에 자리잡은 170ha의 대지 위에 1972년까지 3,000명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때 가서는 다시 2배의 수용능력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계획을 담당한 건축가들은 이 計劃案을 통해 大學에 대한 종래의 개념을 양식을 가지고 재고해 보았다. 그들은 自然科學과 人文科學을 철저히 분리시킨다는 종래의 생각을 떠나 이질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두가지 요소를 통일된 平靜 속에 통합시켜보려했다. 다시 말하면 연관되는 學問들을 單科大學 별로 모아놓아 大學의 學究的인 알맹이를 만들되 각 科들은 서로 이웃하여야하며 그 배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學問을 類別하는 경계란 매우 불분명하기도 할 뿐 아니라 사실 가장 중요한 연구활동이란 학문과 학문의 경계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기본으로 하여 구현된 것이다.

— 집중 : 大學이란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지않으면 안 된다. 여러가지 活動들이 교차되고, 각 개인이 전체의 조화 속에서 개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大學의 都市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우선 철근콩크리트의 건물만 가지고서도)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自然의 풍경을 될 수록 보존하기 위해 건물의 배열에 제한을 가한다.

— 대지의 경사와는 관계 없이 수평으로 처리된 동선들의 연결. 이것은 전술한 두가지 원칙을 좀더 쉽게 만들어주며, 에레베타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밀도에 접근할 수 있다. 대지의 경사를 따라 일련의 광장이 만들어져 결국은 넓은 잔디밭으로 연결되며 건물들은 그 주위에 배치된다.

— 한 쪽에 도서실, 계단교실, 식당, 오락실, 관리사무실, 상점 등이 배치된다.

— 그 넘어에, 원호를 이루며 유숙소가 남향으로 세워지고 이어서 강을 향해 언덕이 있고 잔디밭으로 둘러싸여 있다. 전시회랑이 中心部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中心部에는 학교에 기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식당과 휴게실이 미래에 세워질 것이다.

— 반대쪽에는, 대지의 북쪽 부분을 개발하여, 文學部와 理學部, 生物學部 및 커다란 연습림이 도박도박 나뉘어 배치된다.

미리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類의 大學은 주위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 自然의 아름다움을 잠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건물과 주위 풍경과를 조화시키기 위해 계획과정은 건물의 설계뿐 아니라 기존해 있는 나무들을 分類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기도 하고, 늪지를 정돈하고, 강물을 건물 옆에 까지 끌어들이고 언덕을 깎아내어 운동장으로 만드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했다.

대지의 북쪽 부분에는 木造의 가건물로 된 대학村이 세워져 1,500명의 학생을 위한 조그만 大學이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大學計劃의 시작이다.

건물은 콩크리트로 짓되 신속한 조립을 위해 많은 부분을 Pre-fab로 한다.

○교사 및 연구동

여기에는 化學, 生物學 및 4개의 文學部와 미래의 物理學 및 수학과 교육학部가 들어간다.

문제는 여러가지 분야를 위한 空間들이 집중되어 있는 平面 위에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면서 각 分野의 發展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科가 發展 확장되는 바람에 다른 科가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장래에 요구될 확장의 정도가 미리 연구되었다. 아주 조그맣거나 어중간한 크기의 방들은 건물의 양 끝에 배치되고 그것을 사무실 및 기타 큰 공간들로 연결했다.

건물은 5～7층 높이로 제한했으며 형태 및 배치 상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자연채광으로 해결될 수 있는 좌대의 범위를 이용했다.

—모든 科에서 실험실과 계단교실로 통하는 어프로우치가 모든 레벨에서 가능하다.

—각 과는 아늑하게 둘러싸인 마당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관련된 다른 과와 연결시키기 위해 계단식으로 發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는 앞으로의 필요에 따른 수정이 용이하며, 신속한 조립을 할 수 있는 構造方式을 쉽사리 적용시킬 수 있다.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서 양생되는 5가지 모델의 Pre-fab가 채택되었다. 이 부근의 하수처리는 수직적으로는 기둥 속에서 수평적으로는 창턱 속에서 해결된다.

○도서실

이것은 大學 전체의 심장부이다. 100만권의 장서와 2,000명의 열람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은 지하층과 2층 이상에 배치되고 1층은 현관과 사무실, 전시회랑 등으로 쓰인다. 써비스를 포함한 모든 수직 통선은 중앙의 코아로 해결되며 天井 속도 적절히 이용된다.

⊙기계실棟

중앙기관실, 변전실, 전화교환실, 공작실, 창고 등은 대지의 북쪽에 낮은 건물로 처리된다. 건물은 대지의 경사를 따라 지어지고 지붕은 주차장으로 쓰인다. 구조는 可動의 콩크리트 板材 및 철골로 되어있다.

기숙사

소위 공립 중학교의 기숙사와 같은 개념을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이 大學生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며 따라서 비형식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써스템을 택하게 되었다. 즉 부엌과 기타 위생시설을 갖춘 몇개의 스튜디오를 一群으로 하는 기본형식이 선택된 것이다.

모든 방들은 동, 서, 남쪽을 향하고 위생시설들은 북쪽을 향한다.

건물은 그 높이의 1/3이 언덕에 기대고 2/3높이에 步行을 위한 플랫홈이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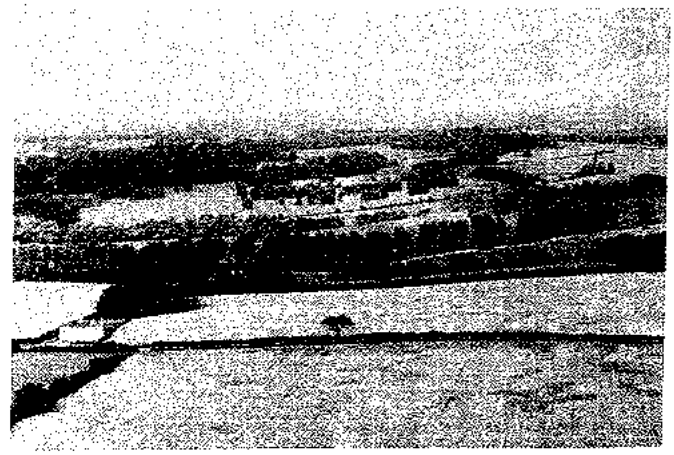
침대, 책상, 서랍, 벽장, 세면대등이 칸막이에 집중되어 있다.

동일한 독방의 연속으로 건물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要素를 Pre-fab.로 할 수 있었다. 천정과 벽체는 현장에 4 ton의 무게까지 나가는 판으로 만들어내며 지붕은 P. C의 경량콩크리트板을 깔고 불규칙한 곳에는 금속제의 판을 쓴다. 板材는 기중기로 들어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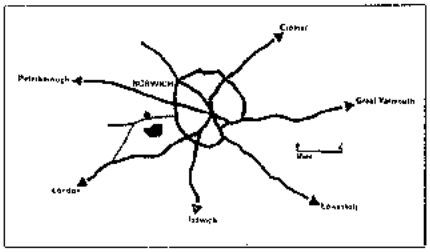
식당과 휴게실이 있는 University House, 사무실, 회의실, 교수실 등이 들어갈 Senate House등은 1968년 착공하여 도서관 쪽, 中央광장 옆에 자리잡아 文學部건물과 면한다. 계단교실의 一群도 역시 이 광장 가까이 지어지며 북쪽으로는 콘서트홀이 세워진다.

一次로 지어지는 부분은 전체의 縮図로서 필요에 따라 發展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 대지에는 6,000명의 學生까지 수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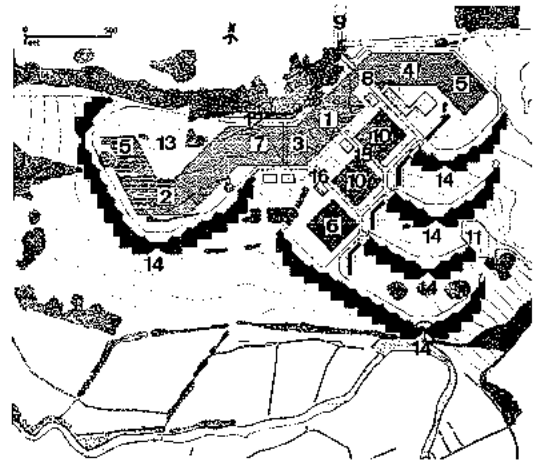
East Anglia는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하면서도 융통성을 가진 조직체가 된 것이다. 그것은 成長發展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기계적인 중첩만은 아닐 것이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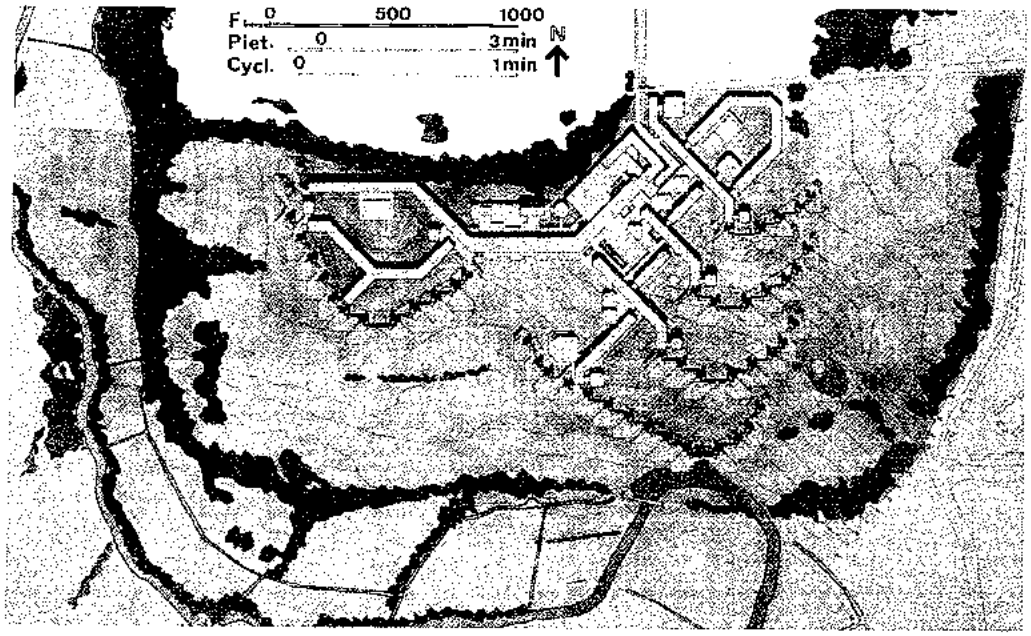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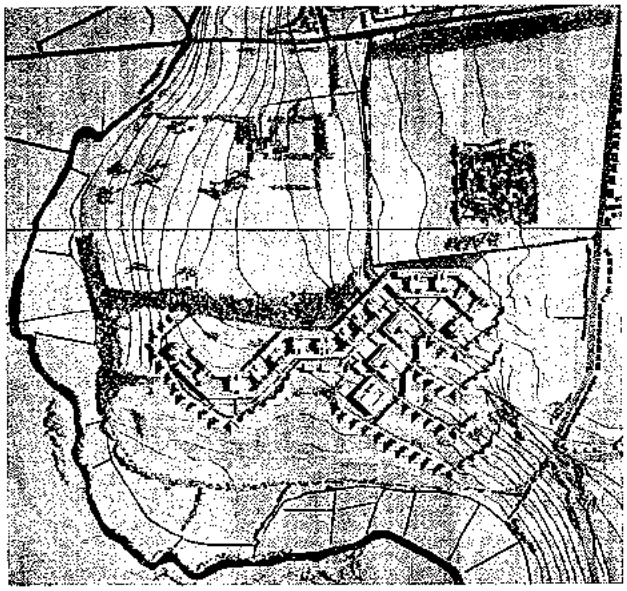
부지내의 대학의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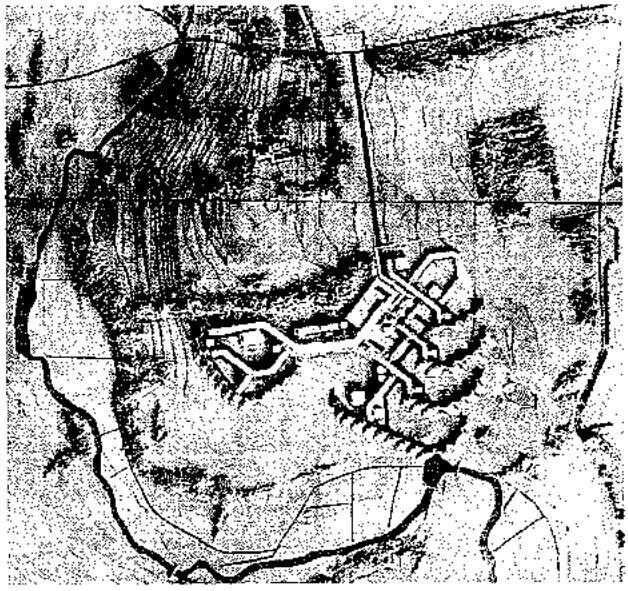


1. 예술관
2. 생물관
3. 화학관
4.
5. 과학관
6. 도서관
7. 물리 · 수학관
8. 안내
9. 정문
10. 학생의 집
11. 계단강당
12. 기계실
13. 생물학정원
14. 주거
15. 상점
16. 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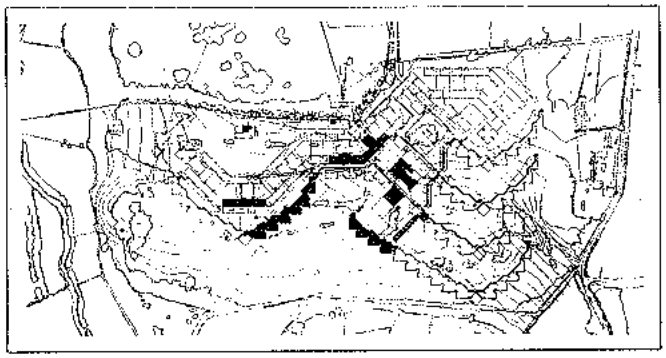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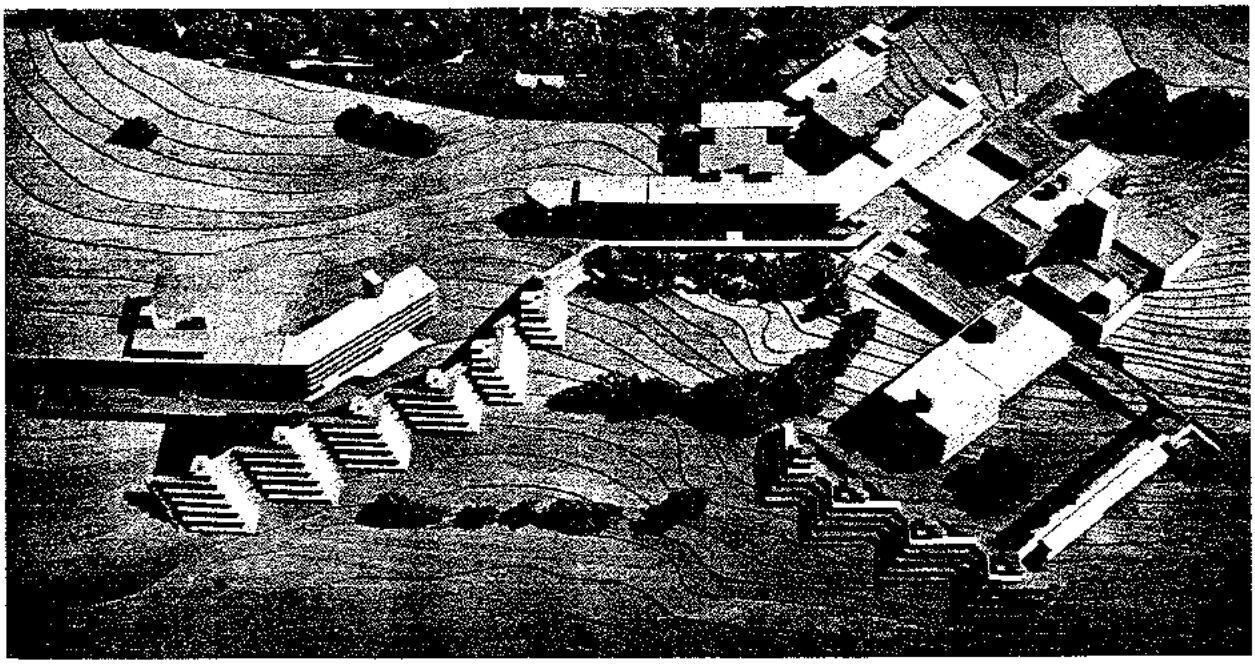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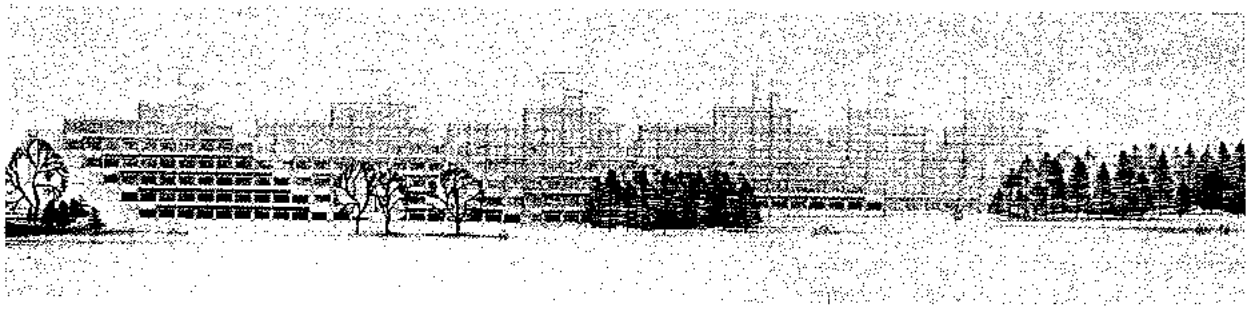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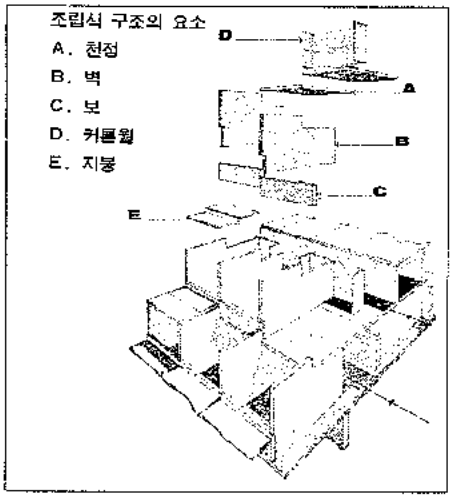
Variante du premier projet montrant la flexibilité qui peut être apportée à une structure pour répondre aux besoins prévus ou imprévus et projet adopt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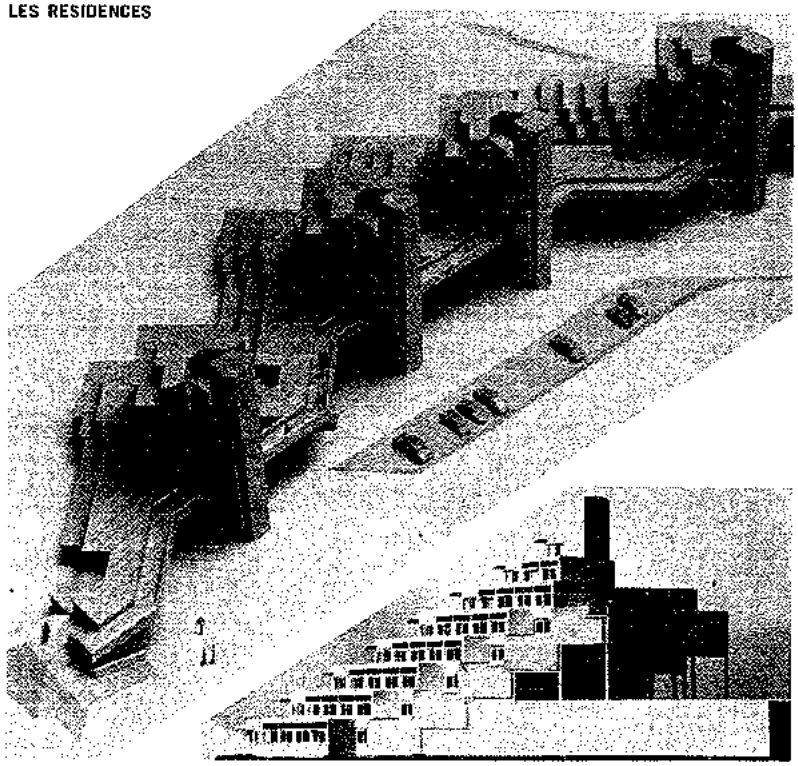
Plan et maquette des bâtiments prévus à la première étape (10 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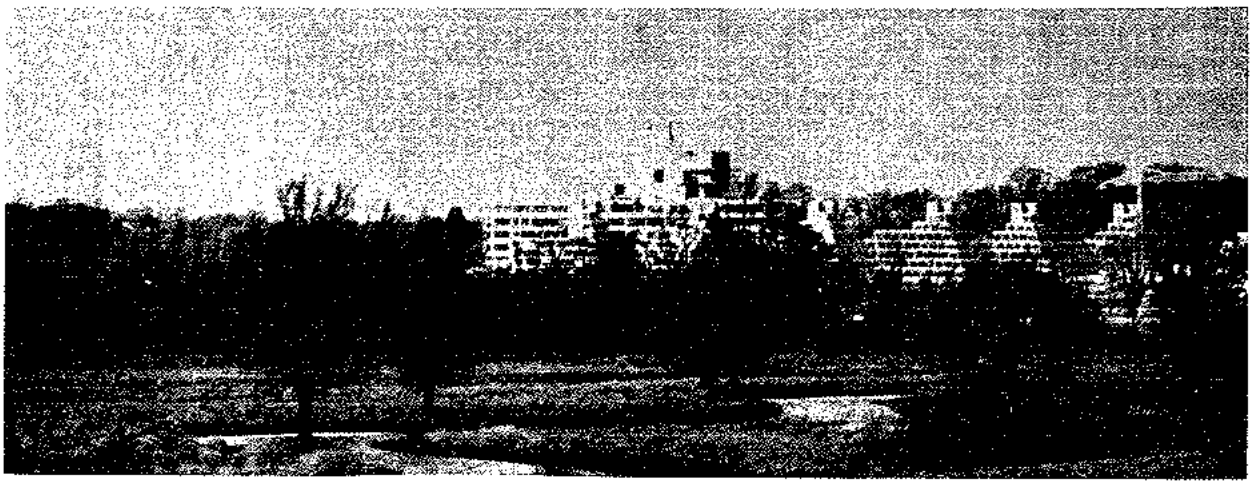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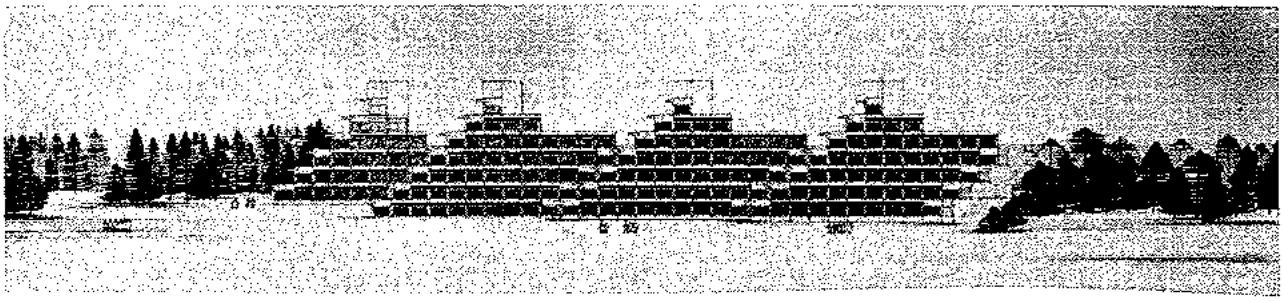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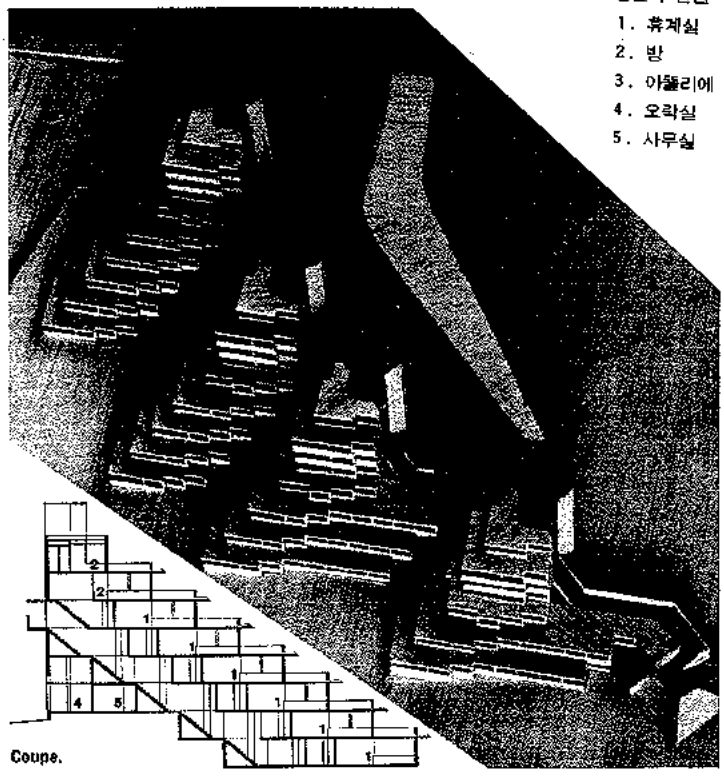
LES RESID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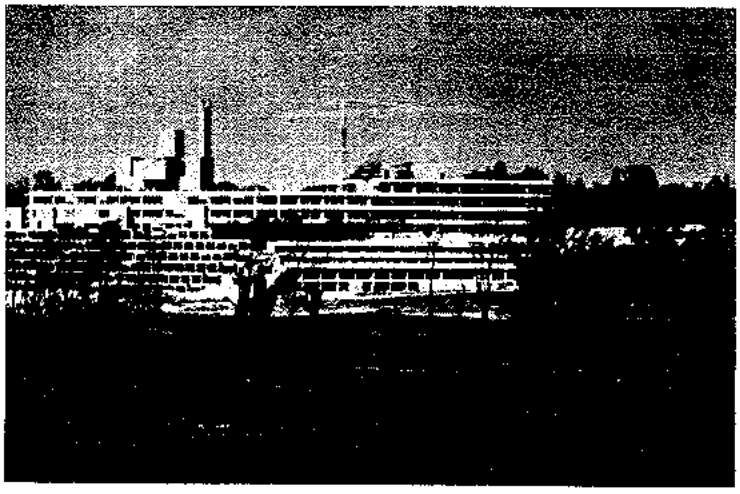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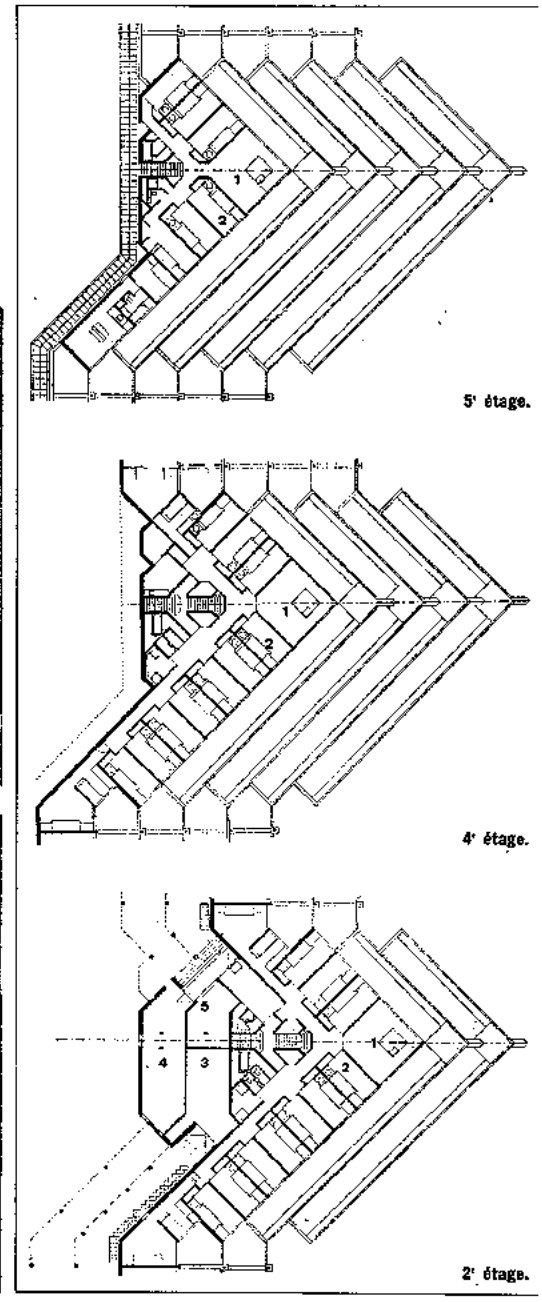


평면과 단면
1. 휴게실
2. 방
3. 아틀리에
4. 오락실
5. 사무실



Coupe.





5' étage.

4' étage.

2' étage.

『BATH 大學, 英國』

設計 — Robert Matthew, Jonhson - Marshall and Partners

Bath의 구시가 중심지에 약 2k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76ha 의 이 대학의 부지 위에는 1975년에는 3,600명의 學生, 1980년에는 5,000명의 학생(700명의 교수와 1700명의 기타 써비스 인구를 포함)을 받아들일 大學이 세워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본 및 응용과학을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대학이라 할지라도 건전한 기술인의 양성을 위해서는 藝術 및 人文科學의 교육도 무시할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大學은 실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활동도 위촉받는다. 교육과 연구활동은 12個의 단과대학 속에 유기적으로 조직된다. 단과대학의 수는 大學 전체의 發展에 따라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각 단과대학 사이에 서로 다른 전공때문에 생기기 쉬운 장벽들을 없애기 위해 단과대학들을 서로 긴밀히 연결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東Anglia 大學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1975년 경이면 전체 학생의 약 1/3이 大學구내에 살게될 것이라 예상되며 그들은 大學構內에 자유로히 배치된 아파트에 수용될 것이다. 이 아파트 건물들은 管理건물 및 大學건물과 섞여 배치될 것이 社会的 活動은 회의실 및 로비를 가진 각 단과대학棟의 中心部로 연결된다.

大學건물은 3개의 Zone으로 나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경제성이다. (自然科學의 서로 다른 몇 몇 科는 같은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다.) 전공의 類形에 의한 각 Zone에 할당된 부지 위로 몇 개의 科와 공유하는 써비스망이 지나치므로 각 科의 다양한 發展計劃은 더욱 조장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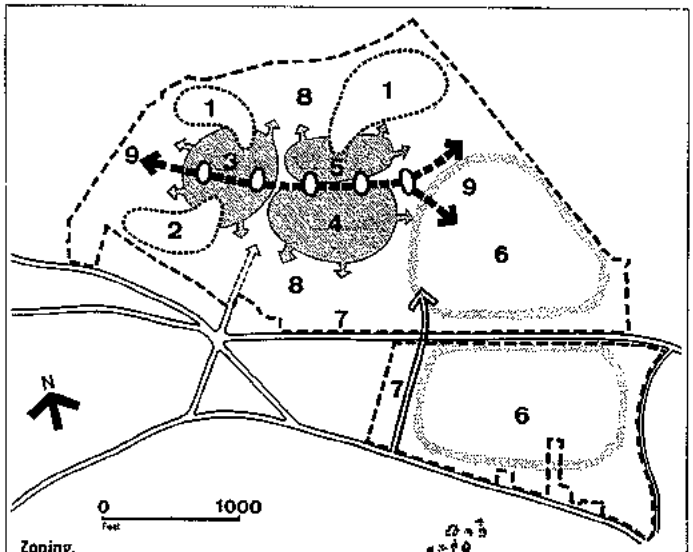
각 Zone 안에서의 發展들은 건물을 미리 배치해 놓았기 때문보다는 주동선 혹은 진입로 따위에 더 통제를 받는다. 게다가 건물들 전체에 걸쳐, 원칙적으로 4가지 타입으로 분류했는데 大學의 모든 요구 조건에 응할 수 있어야했다. 즉 ① 社交的이고 社会的인 시설이 집합되어 있는 棟 (中央의 광장에 면함.) ② 科學이외의 學問을 가르치는 棟 ③ 科學 및 工業技術 전공 大學을 위한 小연구실 ④ 大연구실의 네 가지다.

이러한 標準化에도 불구하고 건물들은 각 단과대학의 서로 다른 요구조건들에 쉽사리 적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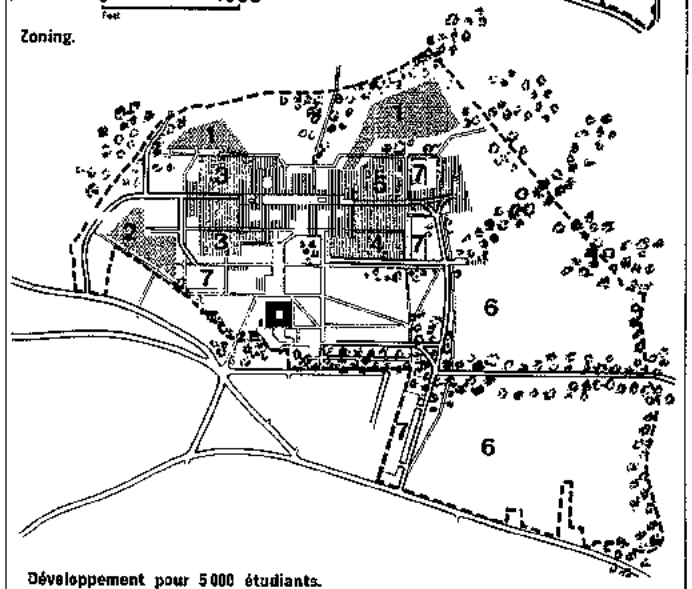
大學의 일반적인 볼륨과 배치에 대해 특별한 연구가 행해졌다.

사용자나 방문객에게 언제나 방향을 제시해주며 높은 점들과 대조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녹지대의 띠를 만들기 위해 조원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물이 지어진 地面과 초록색으로 가꾸어진 地面이 이루는 대조는 Bath의 인상적인 都市풍경과 호응하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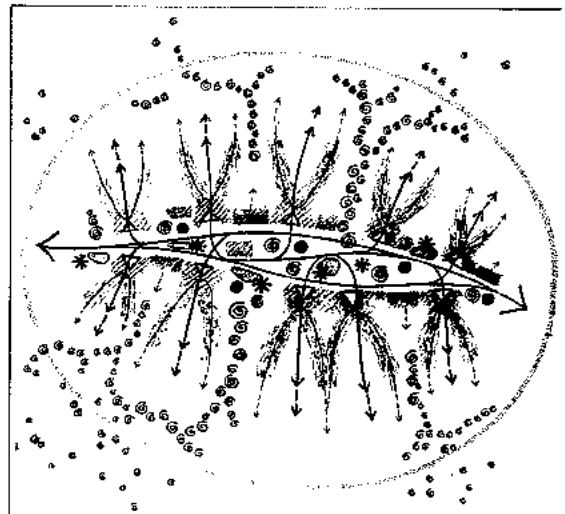


Zo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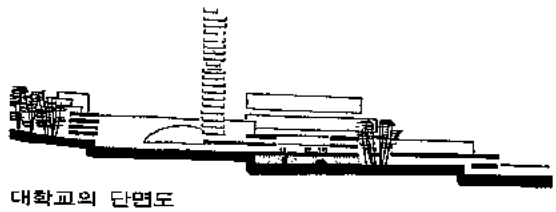
Développement pour 5000 étudiants.

1. 가옥사 2. 직원숙소 3. 과학관
4. 공학관 5. 과외활동 6. 스포츠를 위한 공간
7. 주차장 8. 자유로운공간 9. 장차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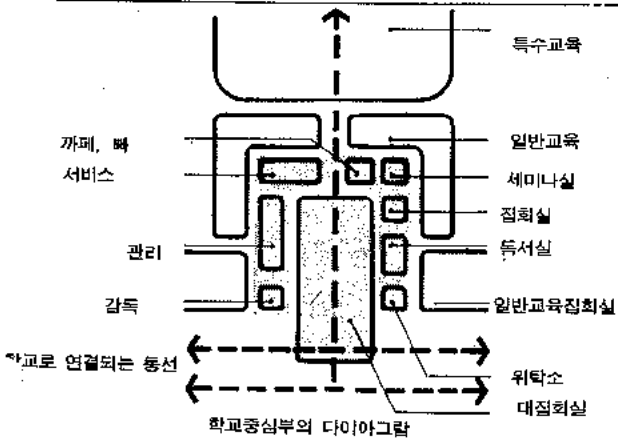


5, 000학생을 위한 대학교의 다이아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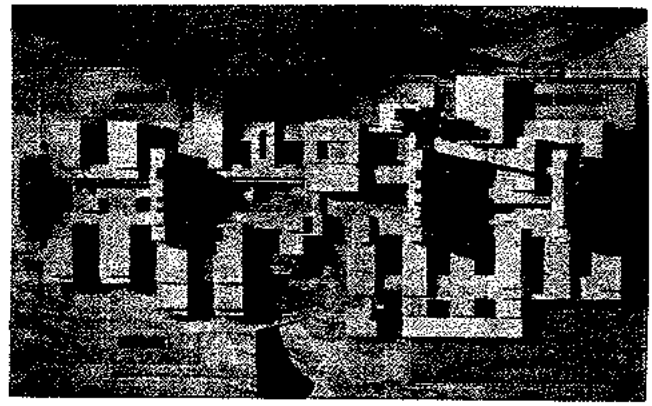
- 길
- 확장
- 특수교육(실험실)
- 일반교육(독서실)
- 학교중심부
- 레스토랑
- 오락센터
- 학생센터(학생연합기타)
- 주거설비
- 직경 700m의 원(도보로 10분 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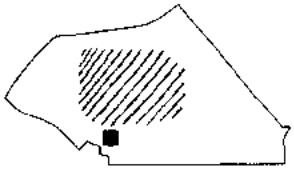
대학교의 단면도



학교중심부의 다이아그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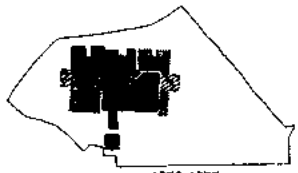
발전계획의 여러단계



대지조성 :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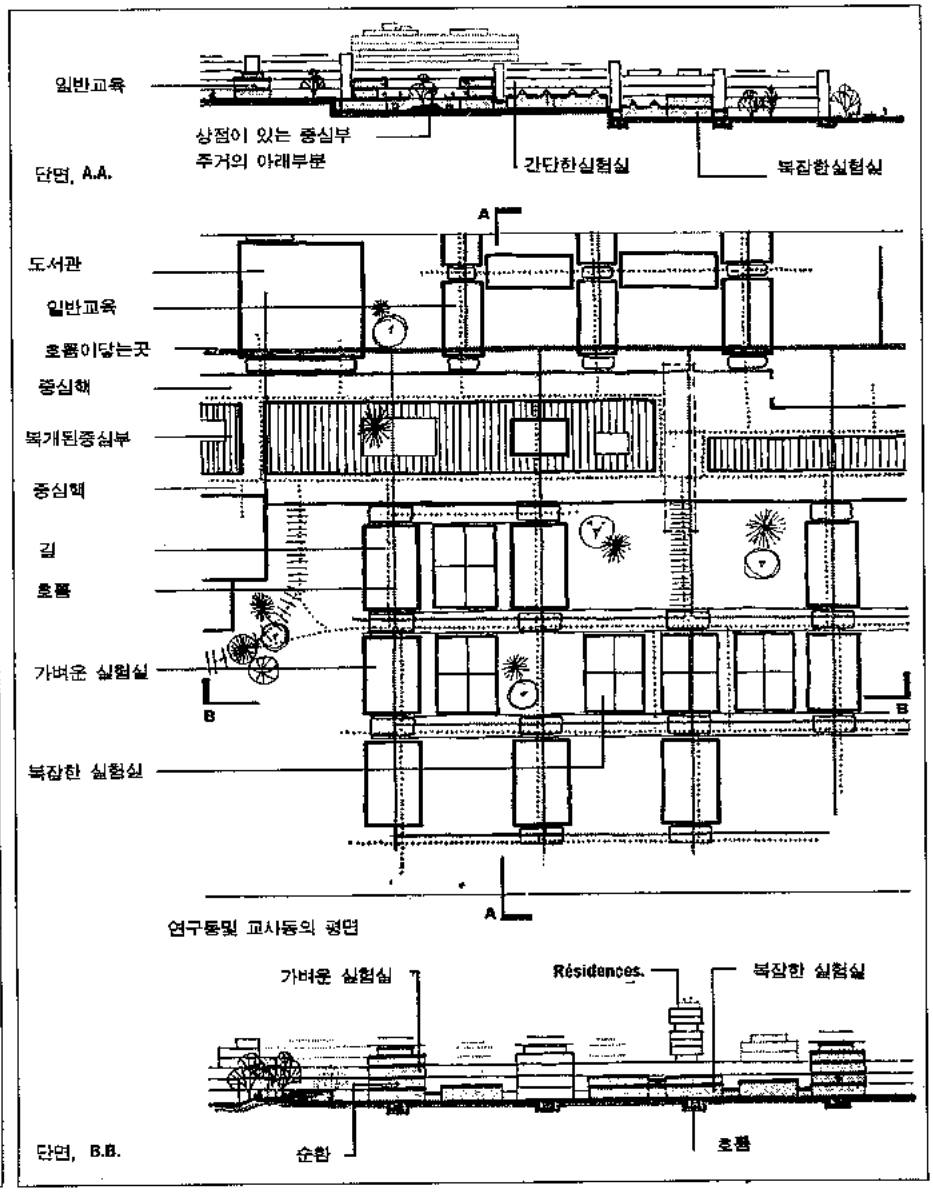
첫단계 : 1967-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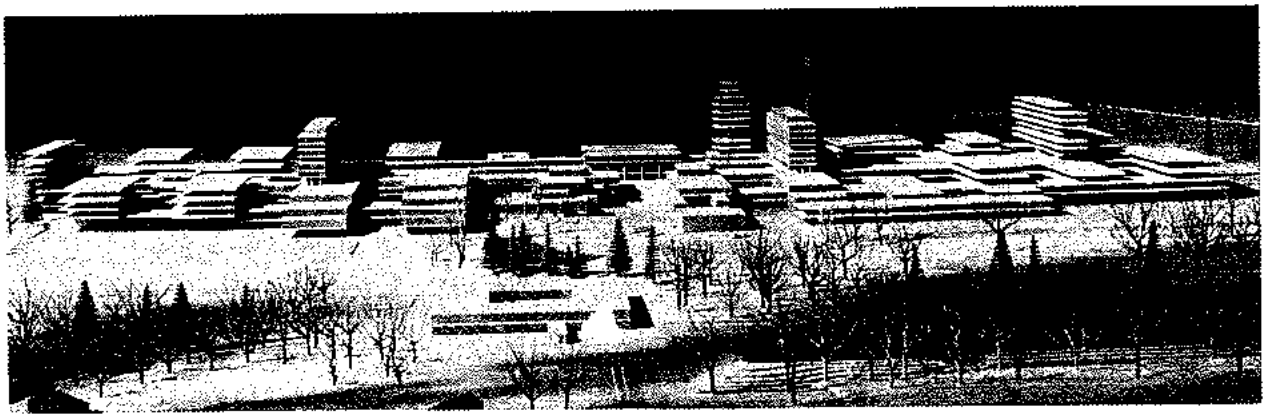
제 2 단계 : 1969-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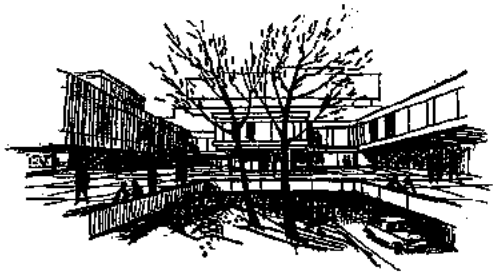
제 3 단계 : 1972-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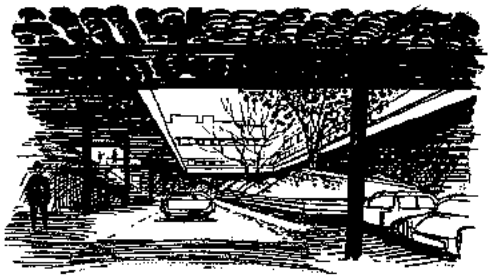
제 4 단계 : 1975-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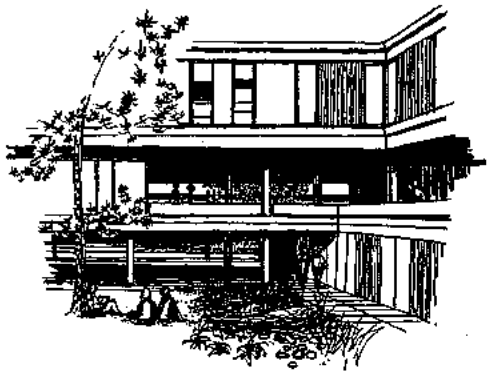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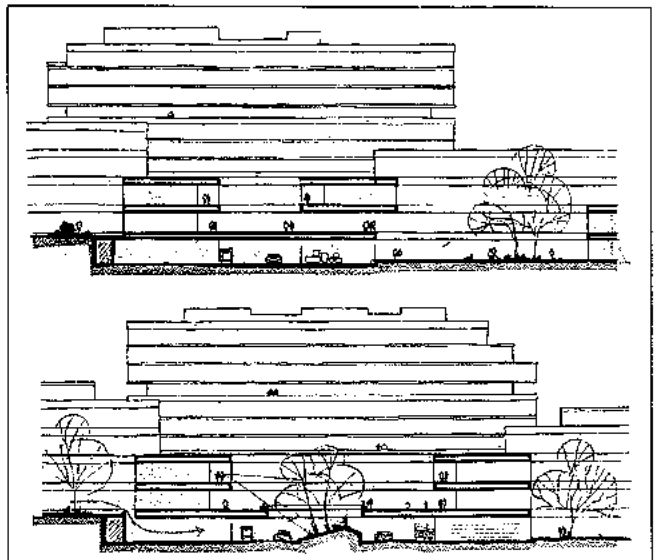


CENTRE DE L'UNIVER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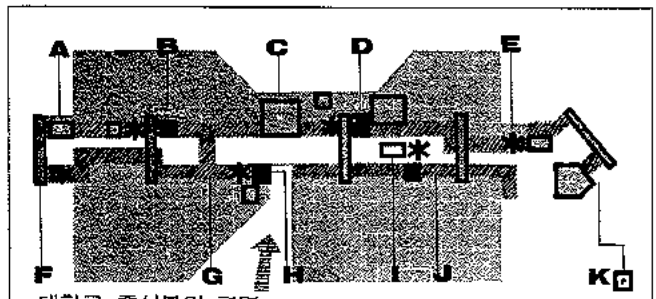








Coupes sur le centre de l'Université.



대학교 중심부의 평면
A. 상점, 은행, 우체국, B. 학생센터 C. 도서관
D 대학본부 E. 레스토랑 F. 중심부위축의 주거
G. 독서실, 유희실, 세미나실이 있는 중심부
H. 집회소와 레스토랑 그리고 주 입구 I. 극장
J. 회의실 K. 스포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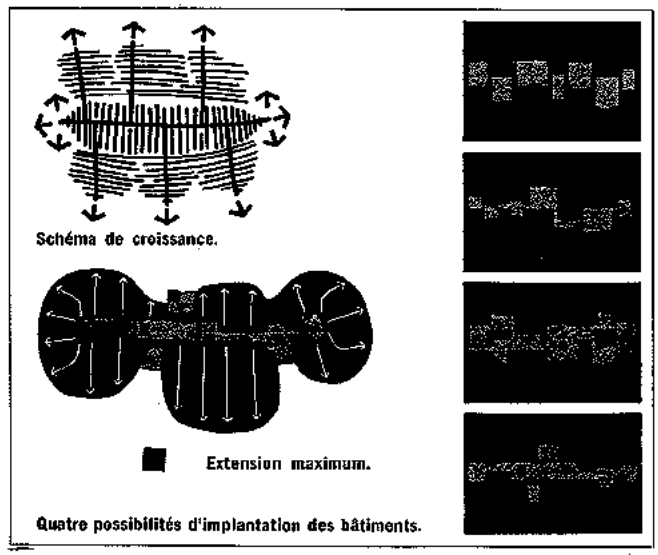


Schéma de croissance.

Extension maximum.

Quatre possibilités d'implantation des bâtiments.

第 3 圖　高麗時代 蚩吻

第 8 圖　仙巖寺 入口 木長柱

第13圖　中國 鍾馗圖

第13圖　韓國 鍾馗圖

第13圖　日本 鍾馗圖

辟邪의 美術

趙 子 庸
(韓國建築文化센터所長)

長生辟邪의 信仰

오늘날 좀 生覺이 있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없이 科學에 依한 悲慘한 人類의 파멸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古代人들이 성난불이나 물이나 바람을 무서워하던 것과 別다른것이 없는 邪氣에 對한 宿命的인 人類의 恐怖를 뜻하는 것이다. 正確性을 자랑하는 宇宙船에 탄 男便의 安全을 爲하여 地上의 아내는 原始的인 제스추어로 빌고있다. 山神閣에서 밥을 새워가며 빌던 古代人들 또는 古代的 思想을 가진 現代人들과 그 心理的 現象에 있어서야 무엇이 다를것이랴. 사람은 빌게 되어 있다.

人類를 統一한 信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래 살겠다는 長生信仰이요 또 長生을 防害하는 魔鬼를 막으려는 辟邪信仰이다. 文明의 宗敎를 가졌다고 自負하는 知識人들도 막상 災厄에 부닥치고보면 無條件하고 비는 수 밖에 없다. 비는데 있어서야 두꺼운 經典을 가진 宗敎나 原始狀態의 宗敎나 무엇이 다를것이 있겠는가. 비는 人間의 모습이야말로 人間本然의 素朴한 姿勢이다.

우리나라에는 太古時代부터 우리 固有의 信仰이 있었다. 歷史의 흐름에 따라서 佛敎, 道敎, 基督敎같은 外來의 宗敎와 融合되거나 孤立된 狀態로 只今까지도 뿌리깊이 남아있다. 民主國家로 轉換되며 宗敎의 自由가 부흥됨에 따라서 어느새 우리나라에는 二百餘個의 新興宗敎가 자라나고 있다는 놀라운 事實이 最近卓明換氏에 依하여 調査發表되었다. 그 數 많은 宗敎團体들의 信仰方式을 分析해보면 佛敎式, 佛仙式, 儒佛仙式, 基督敎式, 儒佛仙基合併式, 巫俗式, 始祖式等으로 그 性格이 分類되는데 한가지 興味있는 點은 모두 病을 잘 고친다는 個人中心의 報答에 對한 믿음이 介在되어있다는 點이다. 다시말해서 새로 나타난 敎主들이 一種의 辟邪術을 가지고 있다는 點이다.

辟邪信仰과 造形美術

한 宗敎는 그 信仰의 表現으로서 그 宗敎特有의 造形美術을 빚어낸다. 新羅時代의 佛敎美術이 人間極致의 美術을 만들어 낸 것은 그 当時 國運을 佛道에 걸고 매달린 熱熱한 新羅人들의 信仰心으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李鍾益敎授가 「佛國寺의 秘話」에서 表現한 바와 같이 사람의 손 재주로 만든 것이라기 보다는 숨어있는 造化의 作品을 불타는 求道의 힘으로서 캐냈다고 함이 適合한 表現이겠다. 흘러간 厂史속에 남긴 人類의 美術作의 大部分이 그 時代의 宗敎와 關聯되어있다. 佛敎美術을 빼버린 東洋 그리고 基督敎美術을 除外한 西洋을 想像해 본다면 매우 虛無하기 限이 없다. 韓國美術史를 헤쳐보아도 그 속에서 佛敎美術을 빼버리면 거의 空白狀態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固疾的인 觀念에서 脫皮치 못한채 筆者도 지난 十餘年 동안을 韓國佛敎美術을 찾아다니기에 沒頭해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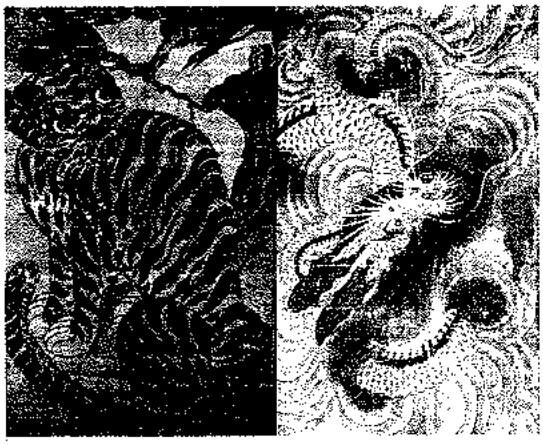
그런데 近者에 이르러서 차차 나에게는 커다란 疑問이 싹트기 始作하였다. 佛敎以前의 韓國美術은 어떻한 것이냐? 佛敎美術이란 天竺國에서 傳來된 그대로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으면 韓國固有의 美가 佛敎美術에 融和된것이냐? 그렇다면 現在 우리가 물려받은 佛敎美術 遺產속에서 우리 固有의 엘레멘트를 어떻게 추려낼것인가? 이 커다란 疑問을 풀기 爲해서 着手한 것이 우리固有의 原始信仰과 關聯되는 造形美術抽出作業이다. 信仰과 美術의 直結性은 더 말할 必要조차 없으려니와 우리는 佛敎란 外來宗敎의 威圧에 눌려서 우리固有의 信仰이 빚어낸 美術을 忘却하고 있지않았었는가 — 大佛堂 뒷 山에 외로이 새우잠 자고 있는 山神閣처럼. 먼저 말한 바와 같이 人類를 統一하고 있는 信仰은 두꺼운 經典을 背景으로 삼는 文明의 大宗敎들이 아니라 經典도 없고 組織도 없는 素朴한 人間本然의 姿勢로서 表現되는 長生辟邪의 民間信仰이다. 그러면 이러한 民間信仰은 어떠한 美術을 빚어냈는가. 여기에서 所謂 民間藝術 또는 庶民藝術로서 解釋되고 賤待当해온 一見 보잘것없는 藝術이 登場하게 된다. 人類의 平和를 爲한 文化交流를 힘쓴다면 클라씩한 藝術을 爲主로 하기보다는 人流共通의 믿음의 바탕에서 자라난 率直한 民藝의 交流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信念을 갖게된 나에게는 「迷信」이라든가 「샤마니즘」이란 말을 輕率하게쓰는 높은척하는 尺君들의 態度를 미워한다.

過去의 外國學者들이 硏究調査한 韓國의 辟邪信仰은 鬼神崇拜 巫信, 迷信等의 題目으로 이끌어 나간것이 大部分이며 우리民族을 低級의 族屬으로 몰아낸 一種의 御用學者들의 所行이라고 보겠다. 毆打法, 壓胜法, 火氣法, 刺傷法, 封縛法, 供物法, 恭順法, 呪符法, 借力法, 飮食法, 五感法, 陰陽法等의 低俗的인 辟邪迷信을 紹介한 것 들이며 造形上으로서는 황소대가리, 바가지, 부엌칼, 마늘, 집신짝, 고추, 술병, 부적, 명태, 체, 같은 造形美術上 価値없는 것들에 그 硏究의 核心을 삼고있다.

辟邪信仰에서 태어난 造形美術에 있어서 좀더 美術的 価値가 있고 人類共通의 이 根本信仰을 다루는 마당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韓國的 表現을 추려보려는 것이 나의 뜻이다. 古代信仰에 있어서 辟邪의 意義를 띄지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 中에서도 뚜렷하게 辟邪의 뜻으로 나타난 것을 추려서 靑龍白虎, 獸面瓦, 蚩尤像, 處容像, 金甲將軍像, 石鼓, 방울, 陟州東海碑, 鍾馗像, 金剛力士像, 鴟尾石階石等을 取扱해 보겠다.

靑龍白虎

古代의 四神思想(靑龍 白虎 朱雀 玄武)에 起源하는 東洋共通의 辟邪美術인데 高句麗古墳에 남아있는 設彩四神圖가 가장 代表的인 遺物이며 東洋의 寶物이다. 高麗石棺에도 彫刻으로서 남아있으나 李朝時代에 와서는 龍虎圖도 變한듯하다. 龍虎圖는 널리 庶民들이 使用했고 家屋中門에 걸었던 까치 호랑이와 龍그림 한쌍은 韓國的인 辟邪美術의 代表的인 民藝品이다. (第1圖)



第1圖 龍虎圖(民畵)

또 그 호랑이 모습이 寫実的인 虎相이 아니라 共通的인 辟邪怪獸面을 닮은點에 있어서 白虎思想의 殘影을 엿볼 수 있다. 虎遂三災 龍護五福 等의 글씨를 붙이기도 하였으므로 龍虎圖의 辟邪意圖는 너무나 뚜렷하다. 이밖에 上樑文에 龍虎 두字를 쓰는 風習이 남아있고 風水說에 依한 墓所圖가 氏族間에 版畵로 남아있는 것도 重要한 靑龍白虎 辟邪美術로서 取扱되어야 하겠다.

第2圖 新羅時代 獸面望瓦

獸面瓦

第2圖와 같은 新羅系의 獸面望瓦는 우리나라에서나 日本에서는 많이 出土되었지만 中國에서는 단 한장이 出土된 例가 없다. 獸面自体는 勿論 中國에도 許多하지만 이 特異한 望瓦의 建築양식은 韓國古有의 것으로 生覺하지않을 수 없다. 現在 考古學界에서는 이 獸面紋의 起源을 中國古代의 饕餮紋에 두고있는 듯 하나 筆者自身은 이 定說에 對해서도 큰 疑心을 품고 있다. 何如間 우리나라에는 三國時代로부터 新羅 高麗 李朝時代를 通하여 時代的인 形像과 格式의 變化를 가지며 지붕위에 雜鬼를 꽂는 辟邪望瓦가 붙어 있었다. 鬼瓦 또는 鬼面瓦等의 俗稱으로 불리우는 이 望瓦는 韓國的인 辟邪美術의 代表作의 하나이다.

鴟尾

지붕용마루 兩端에 怪奇한 꼭지가 붙어있다. 鴟尾, 蚩尾, 蚩吻, 龍頭等의 稱号를 가진 이 建築裝飾은 三國時代로부터 李朝期까지의 遺物을 남겨주

고있다. 新羅式 鴟尾中에는 樓尾寅相等의 文字가 새겨진 例도 있다. 古代 中國式 鴟尾에는 鳳凰形의 것도 있었다. 鴟尾의 形像에 對해서는 옛날부터 論爭이 甚했던 事實이 古文獻에도 나타난다. 大体로 鴟尾는 불과 關係가 있는 形像으로 火災를 막으려는 比較的 大規模의 辟邪美術品이다. (第3圖)

階段守護石

古建築의 入口에는 大概 石造階段이 設置되여있고 石階밑 兩側에는 辟邪像이 지키고 있다. 雪嶽山 神興寺 大雄殿앞에는 大傑作의 龍頭(第4圖)가 새겨져 있고,

金井山 梵魚寺 大雄殿 入口에는 獅子像같기도하고 怪人像같기도한 껄껄웃는 멋드러진 辟邪像이 지키고 있다. (第5圖)

龍珠寺 入口에는 石鼓가 辟邪의 任務를 맡고 있다. (第6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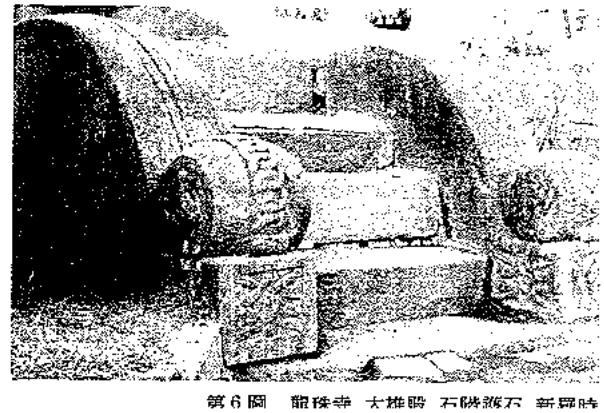
辟邪獸石像

階段에 附屬된 守護石 以外에 單獨 石像으로서의 彫刻品이 많이 遺存되고 있다. 興德王陵, 聖德王陵, 掛陵, 芬皇寺塔 四方에는 石獅子像의 傑作들이 아직도 씽씽한 姿勢로 守護의 任務를 다하고 있다. (第7圖)

第7圖 興德王陵 獅子像護石 新羅時代

第4圖 神興寺 大雄殿 石階護石 新羅時

第5圖 梵魚寺 大雄殿 石階護石 新羅時



第6圖 龍珠寺 大雄殿 石階護石 新羅時

最近에 어디서인가 아프리카의 라이온石像이 눈에 띄었는데 우리나라 建築物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李朝王陵에는 호랑이石像이 登場하는데 미련하게 생긴 韓國호랑이의 구수한 맛을 잘 나타내고있다. 光化門 앞에있는 해태像은 너무도 有名하며 해태는 鎭火의 任務를 지니고 있다.

長性

觀光案內 포스터等에 자주 나타나는 天下大將軍 地下女長軍等의 各稱을 가진 怪物이다. 長性에 關하여서는 일찌기 孫晋泰先生의 硏究가 發表되어있는데 要略해보면 長性은 한 部落의 辟邪守護의 뜻으로 세워진 民藝品이다. 石長生 木長生(第8圖) 等 많은 作品들이 到處에서 있다.

全州博物館에는 木長性의 優秀作이 陳列되어 있으며 서울 民俗館 앞에는 石長性이 서있다. 実相寺入口에도 石長性 한双이 現代油象彫刻 모양으로 서 있었다. 無意味하게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辟邪美術이란 題目아래서 整理해보면 또 알지못하든 멋이 솟아 나온다.

金剛力士像

佛敎美術에 屬하는 守門將이지만 그렇다고해서 印度것을 카피한것은 아니다. 石窟庵入口의 大傑作이나 芬皇寺 塔門入口의 귀여운 金剛力士像은 모두 新羅時代의 遺作으로서 韓國的인 辟邪像의 모습을 지닌 作品들이다. 李朝時代에는 佛敎를 彈圧했었지만 그 彈圧속에서 不屈의 求道心으로 많은 佛画를 남기고 佛敎建築을 復興시켰다. 이點에 李朝佛敎의 偉大함이 있다. 李朝時代의 金剛力士像은 一見 拙劣해 보이지만 한 民藝作으로 볼 때 그 価値는 또 달리 나타나게 된다. 特히 佛画로서의 金剛力士像이나 金甲將軍像은 再評価되어야 하겠다.

處容像

記錄에 남은 辟邪像으로 韓國固有의 處容像이 있다. 新羅時代에 處容像을 그려서 辟邪用으로 大門에 부쳤다는 三國遺事의 記錄은 너무나 有名하다 그런데 處容의 鄕歌나 춤은 漠然히나마 알려져있으면서 辟邪像으로서의 處容은 아는 사람이 드물다. 原形과 어느 程度 흡似한지는 알 수 없어도 樂学軌範에 보이는 處容假面(第9圖)이 張 籌根氏의 「巫俗과 無形文化財」란 論文에 発表된 바 있다.

鍾馗像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된 辟邪像

第9圖 處容像

에 鍾馗가 있다. 日本에서는 아직도 五月 端午때 辟邪用으로 鍾馗圖를 그려다 부치는 風習이 남아있고 鍾馗祭도 有名하다. 鍾馗는 唐나라 玄宗때 吳道玄이란 天才的인 画家가 創作한 것으로 東洋共通의 辟邪像이며 繪画部分에서 重要한 位置를 차지한 假想의 力士이다. 우리나라에 遺存되는 鍾馗図가 궁금하던 中 수년전에 이찬이란 画員의 大作이 발견되어 只今 에밀레美術館에 展示되어있다.

방울 (第13図)

얼마前에 扶餘에서 百濟時代의 것으로 推定 된다는 말 방울이 発見되어 階伯將軍 銅像建立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다. 방울은 사랑과 同苦同樂하는 家畜 목에 辟邪의 뜻으로 다는 工藝品인데 고양이 방울 개 방울 같은 小型의 것으로부터 소방울 말 방울과 같은 大型의 것이 있다. 滋味나는 것은 그 방울 面에 새겨진 辟邪獸紋과 王字이다. 王字가 붙은 것은 新羅時代의 碑石亀趺의 꼬리 部分이나. 高麗亀趺의 亀甲紋속에도 나타난다. 滿洲에는 布老虎라고 불리우는 玩具호랑이 이마에 꼭 王字가 붙은 것이 있다. 中國刺繍図案에 나타나는 호랑이 이마에도 王字가 붙은 것이 있다. 그리고 보면 방울의 辟邪獸面은 虎相이 아닌가고 推定된다. 無關心하게 여기든 방울 辟邪紋에 關心을 가지게된 것은 몇해 前에 詩人 金 相沃先生이 驚鍾을 울려 주신 德分이다.

虎皮紋

옛날 색시들이 시집갈 때 가마뚜껑을 虎皮紋이 새겨진 담요로 덮었다. 시집가는 동안에 雜鬼가 들지 못하게 꾸며진 民藝品이다. 虎皮를 椅子에 깐다든가 방바닥에 까는 일을 다 알고 있지만 虎皮紋을 連幅으로 그린 屛風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 數年間에 걸친 호랑이 수集으로 因하여 現在 虎皮図 屛風이 몇개 에밀레 美術館에 所藏되어 있다.

忠武公像

뱃사공들이 出汎할 때 忠武公像을 그려서 배안에 건다는 消息이 들어왔다 病院에 入院했던 딸애가 같은 房에 入院했던 어느 水産會社社長夫人 한테서 들었다는 것이다. 忠武公의 초像을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의 希望을 주는 情報이기도 하다. 혹시 어느 漁村 구석에 傳來되는 忠武公像이 숨어 있지나 아니할까.

陟州東海碑文

陟州東海碑拓本을 入手한 것은 여러해 前의 일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였는지 몰랐기 때문에 한 구석에 쳐 박아 두었던 것이다. 얼마 前에 집안 整理를 하다가 偶然히 注意를 끌게되자 그것이 우리나라 固有의 辟邪文이란 것을 알고 仁寺洞一帶를 뒤져 보았더니 같은 拓本 또는 碑文寫本이 여러개 나타났다. 이때 비로소 陟州東海碑文이 한때 집안에 辟邪文으로 信奉되였었다는 事實을 実感나게 알았다.

蚩尤像

우리나라의 辟邪面硏究는 決코 蚩尤像으로 歸着되리라고 믿는다. 이 点에서 中國의 饕餮紋起源說과 対決하게 된다. 檀君을 補佐하고 軍事를 担当했던 蚩尤는 天下無敵의 怪力을 지니고 새로운 武器를 発明하여 中國의 黃帝軍을 到處에서 쳐 부셨다. 中國古文獻에도 蚩尤는 黃帝가 当한 가장큰 强敵이였다고 나타나있다.

우리나라 古文獻中 檀奇古史와 개國史話에 비로서 蚩尤가 우리 主体觀으로 記錄되여 있고 事大思想에 휩쓸린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는 보이지 않는다. 兵將図에는 黃帝가 蚩尤의 怪力에 対應하기 爲하여 龍소리를 내는 小角 大角 두 種類의 牛角形武器를 使用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고 小角大角이 図示되여있다. 또 柳得恭撰京都雜志에 五月五日 天中之節 上得天綠 下得之福 蚩尤之神 銅頭鐵額 赤口赤舌 四百四病 一時消滅 이란 記錄이 李 能和先生의 朝鮮巫俗考에 引用되어있다. 蚩尤像에 対한 仔細한 記錄은 中國의 述異記에서 나타나있다.

蚩尤氏 兄弟七十二人 銅頭鐵額食鐵石 蚩尤能作雲霧 齒長二寸堅不可碎 耳髮如劍戟 頭有角

또 史記 龍魚河図에는

黃帝遂画蚩尤像 以威天下라고 되어있다. 述異記와 龍魚河図의 記錄을 引用하여 蚩尤像에 対한 考證을 試図한 것은 一九四三年 発表된 日本의 小杉一雄博士의 「蚩尤의 形像에 対하여」라는 論文이다 또 小杉博士는 「鬼瓦考」란 論文에서 新羅獸面瓦의 面相과 蚩尤系의 神像을 結付시켜 보았다. (第10図)

第10図 蚩尤系神像 中國古代 墓誌

그러나 小杉博士는 蚩尤에 關한 韓國의 記錄을 찾지 못하였고 우리 民族과 蚩尤의 關係를 밝히지 못하였다.

述異記의 記錄과 들어맞는 形像으로서 우리나라에 遺存되는 것은 高句麗古墳의 壁画(第11図)와 百濟墳에 나타난 有名한 神像이다.

高句麗壁画의 蚩尤像과 小杉博士가 引用한 中國墓誌에 나타나는 神像은 너무나 잘 닮았다. 彩色이 된 形像으로서 完全한 것은 이 高句麗古墳의 壁画 뿐이다. 中國의 黃帝는 鹿野싸움에서 龍을 背景으로 蚩尤와 싸웠고 龍은 古代로부터 中國人이 信奉하는 最高의 存在이다. 後代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中國의 影響을 받아 龍의 形像을 많이 썼지만 中國과 같은 絶対性을 지니고 있지는않다. 우리의 辟邪神像中 最高最古의 存在는 中國의 龍과 싸운 祖上 蚩尤이다. 造形美術上으로는 中國의 影響을 받아서 時代的으로 獅子像이나 龍像作法을 따른 것이 많지만 觀念上으로는 蚩尤像에 그 起源을 둔 것이라고 主張하고 싶다. 新羅系의 瓦에 나타나는 獸面紋을 統計整理해 보면 確実히 獸面이 아니라 우리네 것은 人面이란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筆者로서는 우리 辟邪獸面의 発祥을 中國의 饕餮文에다 둘 수는 없고 決코 蚩尤像에다 確立시키고자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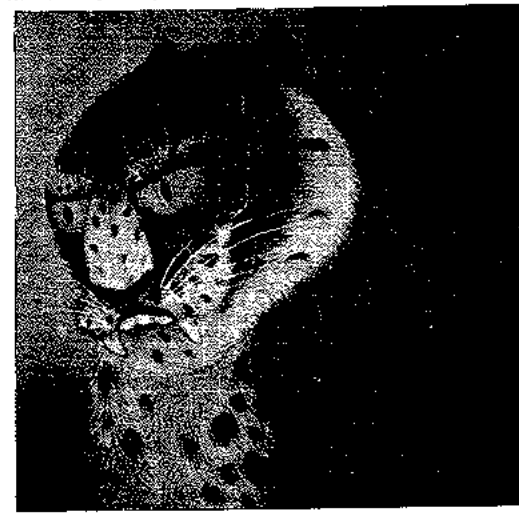
韓國辟邪美術의 特色

以上 辟邪美術에 있어서 藝術的 價値가 있고 民間에 널리 使用된 것을 中心으로 추려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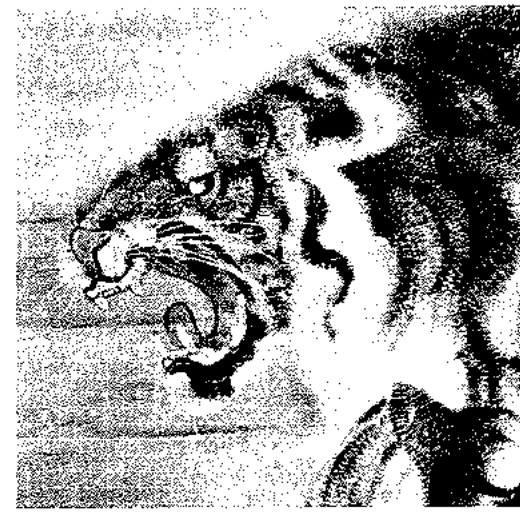
辟邪美術이란 鑑賞을 目的으로 하는 美術이 아니고 古代人들의 素朴한 辟邪信仰에서 우러나온 庶民 美術이기 때문에 우리 固有의 美에 対한 鑑賞을 假飾없이 率直하게 알려준다. 이러한 点에 있어서 民藝는 神秘性을 지니고 있으며 파고들면 들수록 無限한 興味의 世界로 끌려 가게 된다. 人類共通의 辟邪思想을 바탕으로 생겨난 民間美術에 있어서 韓國 사람들의 表現은 어떠한 特色을 지니고 있는가. 이 問題를 캐내면 結局 韓國 美術의 根本的 全般的의 固有性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固有란 말은 徹底한 研究가 이루어지기 前에는 言及하기 어려운 말이며 輕率하게 말해서는 안되는 말이다.

人類는 災厄의 邪気를 무서워하며 옛부터 무서운 邪鬼形像을 想像해 왔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邪鬼를 쫓기 爲한 辟邪의 形像은 더욱 무서워야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 「무서움」의 表現이 各 나라 사람마다 다르다. 이제 代表的이고 東洋共通의 辟邪像中에서 호랑이像과 鍾馗像을 中心으로 東洋三國의 表現方式을 比較해가며 韓國辟邪美術의 特色

第12圖 중국 맹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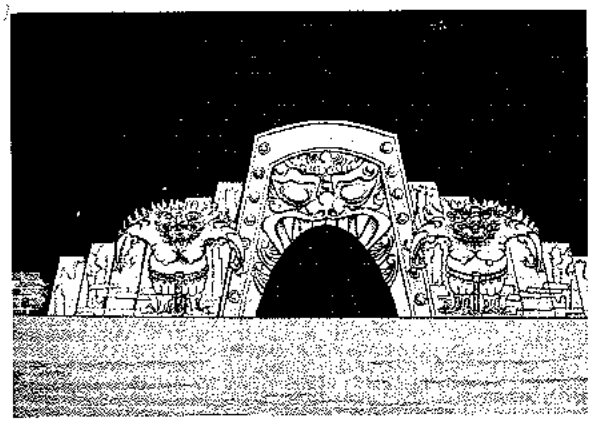


第12圖 한국 맹호도



第12圖 일본 맹호도

第11圖 蚩尤像 고구려 고분벽화



第14圖 마니산 蚩尤門正面圖

을 끄집어 내 보기로 하겠다. 먼저 韓國 호랑이가 世界的으로 뛰어난 特色을 지니고 있다.

第12図의 比較図示된 것을 보아도 알지만 中國이나 日本의 猛虎図는 寫実的인 짐승의 모습이지만 韓國 호랑이의 얼굴은 人格이 있고 威嚴이있고 靈感이 감도는 모습이다. 무서우면서도 親密感이 풍기는 호랑님이며 猛虎가 아니다.

瓦의 辟邪獸面을 보아도 꼭같은 부드러움과 威嚴을 느끼게된다. 日本의 鬼瓦의 形像은 確実히 日本 사람들이 말하는 「오니」의 얼굴같이 생기였지만 新羅瓦의 獸面은 嚴格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풍긴다. 鍾馗図를 比較해 보아도 그러하다. 日本의 鍾馗는 머리털 끝까지 화가 치민 얼굴이고 中國의 鍾馗는 大陸的 만만디 모습인데 韓國의 鍾馗는 껄껄 웃고 餘裕있는 威嚴의 할아버지 얼굴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서워야만 할 辟邪像들의 모습이 그저 무서운 단순한 表現으로서 끝나지 않고 부드럽고 솔직하고 멋이 흐르는 餘裕있고 점잖은 形像으로 나타나 있다는 点에서 韓國 固有의 辟邪美術의 特色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美에 対한 感覺은 다른 여러 分野의 美術에서도 共鳴된다.

蚩尤門의建立

昨年 十一月에 正一會(會長 申浩相) 會員들이 찾아와서 摩尼山祭天壇 밑에 始祖殿과 祭天壇 正門을 建立하겠다고 그 設計를 委囑해 왔었다. 그러나 筆者로서는 그 請託을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내가 꿈꾸고 있던 佛教以前의 韓國을 그려내야 할 큰 問題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約 六個月間 檀君을 모시는 여러 學者들을 찾어 다녔다.

檀奇古史를 읽고서 興奮한 나머지 生死不明의 金海庵先生을 찾아다니기 數個月, 드디어 忠淸道 어느 산골에서 今年 八十七歳가 되는 海암先生이 三年前에 作故하셨다는 消息을 들었다. 그의 遺稿가 어찌 되었는지 이제는 알 道理조차 없어졌다.

그동안 이 새로운 活動을 通하여 한가지 痛快한 事実을 発見하게 되었다. 檀君學者들 사이에는 蚩尤가 우리네 祖上이며 同時에 辟邪神으로 알려져 있다는 事実이다.

이제 正一會會員들의 誠金으로 조용하게 着工되는 蚩尤門 設計에 蚩尤像 遺影들이 擴大된 모습으로 世上에 再臨하게된 데 対하여 無限한 喜悅을 禁치 못하겠다.

(図版은 에밀레 美術館所藏品)

都市計劃과 市街地 地盤高에 關한 研究

全南大學校 工科大學 建築工學敎授

申 文 徹

I. 序 論

都市計劃의 基本計劃이 되는 地盤高를 策定하기 爲하여서는 地質과 地形, 河床의 形態를 調査 研究하여 地盤高를 決定하여야 한다.

現在 우리나라 都市의 地盤高 規定은 建築法規上 建築物 높이의 換算 時에는 前面도로의 中央의 路面高에서 起算하여 最高 높이를 35m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建築物의 높이에 局限되어 있다. 그런고로 우리나라 市街地의 地盤高가 自由化되어 惡意의 地盤高 競爭 속에서 市街地가 발전해 가는 二律背反的인 모순 속에서 住民들 사이에 即 對隣關係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이 공포와 대인 관계를 改善하고, 市街地 造成에 多少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II. 河川의 形態

河川의 種類로서는 큰 것은 江이라 稱하고, 중류는 川, 적은 것은 溝라고 칭하고 있다. 河川의 河床과 지반에 미치는 影響은 地盤高 造成에 第1 重要한 基本이 되는 것으로서, 그 河川의 流速과 河川의 地質로서 岩盤, 土砂, 자갈 및 汚染된 흙 等으로 되어 있으며 固定 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常時 유동성있는 對象으로서 河床은 高低로 변한다. 또는 地盤도 固定 不變하는 것이 아니라 移動되며 沈下하고 있다는 것을 證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實例를 들면 日本의 大阪市 西淀川區 大和田町의 工業地區에서는 年 3m의 침하로 되어 있다. 沈下의 例로서는 海岸地의 工業地區에 對한 重量載荷와 地下水 揚水에 따르는 地盤沈下 등을 들 수 있다. 筆者가 1943年에 前記한 地區에 土地區劃 整理 事業에 참가하여 측량조사한 결과였다. 當市에서는 當初에는 自然排水되었으나, 수십년을 지난 기간에 자연배수는 不可能하며 pump를 사용하여 排水計劃을 하고 現在도 使用하고 있는 실정이다. 世界的으로 特殊한 오란다의 海岸 都市는 大部分 排水를 pump로 하고 있다. 即 河床과 地盤高가 設計에 基本計劃이 되며 排水口와 河床과의 落差가 如何히 構成됨에 따라 河川整理를 할 必要가 있다.

III. 下水道와 地盤高

前述한 河床을 基礎로 하여 排水口와 河床과의 落差로서 決定될 때 萬一 落差가 적을 때에는 市街地 排水路의 물매는 極히 적어서 그 標準에 미달하게 된다. 표준 물매로서는 支管에서 1/300 本管에서는 1/500 程度를 유지하기가 곤란하여진다. 그럴 때에는 불가피 排水 下端部地域에서는 排水管이 地上으로 露出하게 되는 故로 그 지역을 埋立하게 된다. 따라서 地盤高 計劃이 重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道路面의 높이도 聯關的으로 관계되어 진다. 그래서 河床을 基礎로 하여 下水道의 最下端의 下水道管의 높이가 決定된다. 이 때의 市街地 및 市街豫定地의 起伏雜多 한 溝의 河床을 決定하고 一部 溝(市街地 中心部近)는 改造하여 暗渠로 하여 排水로로 使用한다. 따라서 放流까지의 距離와 落差를 1/500~1/1000 물매로 하고 計劃한다. 동시에 既成 地形(原地形)과 計劃地形을 連結하여 下水道網을 형성한다.

下水道 系統을 보면,

汚水→汚水集合所
雨水→雨水集合所 —取付管→本管→汚水處理場→河川 또는 海上

上記와 같이 河川이나 海上으로 放流할 때 本管에 汚水處理場을 거쳐 河川 또는 海上으로 放出케 하는 것은 先進國家의 下水道 處理 方法이다. 日本에서도 東京, 大阪 等은 40~50年 前에 施設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汚水處理場을 施設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 원인은 주로 막대한 經費 때문이다.

下水道 計劃의 方式은,

① 幹線 下水道를 제 각기 放流가 不可能할 때는 幹線을 地形에 따라 集合하여 汚水處理場을 거쳐 河川이나 海上으로 放流하는 것인데, 그 方法을 扇形式이라 한다.

② 地形의 高低가 있을 때에는 等高線을 따라 高地帶와 中地帶는 自然 排水計劃하고 低地帶는 pump로 揚水하여 高地帶의 排水와 合流하여 汚水處理場을 거쳐 河川이나 海上으로 放流한다. 이 形

式을 等高線 形式이라고 한다.

③ 直接 下水를 河川이나 海上에 放流할 때에는 下水로 因한 피해가 없을 때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直接 放流하게 되는데, 이 형식은 直角形方式이다.

④ 汚水를 直接 河川이나 海上에 放流할 수 없을 때에는 斜集管으로 集合하여 汚水處理場을 거쳐 河川이나 海上으로 放流하는 방식으로, 이 형식을 斜集管式이라 한다.

⑤ 都市의 地形이 中央部가 高地로 되어 있을 때에는 四方으로 市街地가 形成되는 경우에는 排水區域을 방사적으로 區分하여 各各의 排水를 汚水處理場을 거쳐 河川이나 海上으로 放流한다. 이 方式을 放射式이라 한다.

下水排水方法에 따라 地盤高가 下水管覆土와 關係되며 최고覆土는 暗渠 上部高와 地盤高와 同一한 例가 許多하다. 때로는 道路面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暗渠方向과 下水道方向 等이 道路方向과 一致하게 計劃하고 設計하는 것이 第一 經濟的인 方法이다. 왜냐하면 路線中央이나 路線 兩側이 側溝가 되어야 하고, 下水道가 되어야 經濟的인 것은 勿論이고, 運營 管理面에서도 가볍고 便利하므로 地盤고도 下都道의 絶對的 영향을 받게 된다.

前述한 下水道와 地形을 基礎로 하여 道路의 方向이 決定되고, 다만 通過交通路의 方向은 別途로 하고計劃, 地域과 地域間의 連絡網, 地區 內의 交通網 等은 그 도시의 用地計劃의 一環으로써 道路用地率을 기본으로 하고, 交通用地率을 各 地域別 또는 高層區의의 交通用地率을 기초로 交通量을 調査하여 路幅의 配置가 되며, 따라서 前述한 下水道의 排水方向과 道路方向과 各種의 통과교통 방향을 充分히 考慮하여 도로의 交叉角을 決定하는 것이 좋다. 都市計劃의 道路方向이 결정됨에 따라 南北軸과 東西軸을 定하고 block 크기와 長軸과 短軸과의 比는 2 : 1, rot遊의 크기도 2 : 1 程度가 가장 利用率이 높고 이 때의 標準 block의 크기도 100 m×50 m가 理想的이다. 따라서 長方形 block는 太陽光線의 射入角 等을 考慮하여 그 都市의 路線方向의 長軸과 短軸을 配置한다. 路幅은 交通用地率과 交通量으로 決定되며 最下 4 m에서 最大 100m까지를 定하게 된다.

下水道의 方向과 道路方向이 一定해지고 道路中央에 大下水溝를 築造할 때는 大部分 暗渠形式으로 하고, 道路側 溝形式인 때는 土管形式으로 한다.

다음에 道路와 道路의 交叉点의 高, 既成 市街地와 計劃地區의 高의 連絡網等은 下水管의 물매와 下水管이 露出되지 않을 정도로서 路面高가 形成 可能하며, 그 점에서 限界 路面高가 決定되므로 比限界高와 原地盤 高와의 差異点이 都市計劃上의 埋立地와 切土를 加하여 計劃의 根本的인 問題点으로서 市街地 造成의 地盤高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研究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全市街地의 各路線 高가 水平인가, 물매로 形成되는가에 따라서 自然的인 要素에 依하는 方法과 人工的으로 下水道의 물매의 제한을 받아 不可不得이한 低濕地帶는 埋立 또는 覆土하여 도로면을 높이게 되며, 시설 투자는 고율화되어 市民의 부담은 커지고 私有地에도 埋立하여 地盤高가 문제되며, 社會的으로도 무질서한 建築부 地高가 各個人 나름으로 설정한다. 例를 들면 A宅地는 1 m 높이면 B宅地는 1.20m 높이고, C宅地는 1.5m높이는 따위의 행위를 한다. 이러한 問題의 폐단을 막는 方法으로 何等의 根據가 全無한 우리나라 市街地 地盤高의 二律背反的인 要素임과 同時에 今日의 都市 行政上의 모순이라 할 수 있다.

筆者는 그 問題에 對하여 多年間 우려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그 문제에 對하여 研究하여 왔다.

以上의 諸般 여건에 對하여 綜合하여 볼 때 市街地 地盤高 計劃을 樹立할 때 모순이 없고 理想的인 理論으로 道路를 定하고, 그 道路面이 基準이 되어(但 平地일 때) 地盤의 높이로 定하고, 그 路面에 連接하는 建築부 地의 높이로 定하고, 따라서 無計劃的으로 地盤을 높이는 행위는 獨善主義的인 個人慾望을 制止하기 위하여서는 全國 市街地의 地盤高에 關한 條例를 두고, 計劃 지반보다 높일 수 없다는 條例가 시급한 문제인 同時에 無斷한 地盤高의 경쟁을 막을 수 있고, 또 市民의 不快과 不安한 心理的 作用과 對隣關係를 改善하고 明朗한 市街와 美的인 地盤高를 形成하여 福祉社會를 建設한다.

V. 結 論

1. 都市計劃上의 地盤高라 함은 各 路線의 路面高를 말하며, 그 路面高를 決定하기 위해서는 그 都市의 下水道 물매로서 그 물매는 河川의 河床의 形態 即 河床이 해마다 覆砂로 되는가, 河床이 깊어 지는가에 따라 河床高를 定하고, 下水道管의 末端 放水口와 河床間의 落差로 定하고 下水管의 물매를 計劃할 것이며, 이 下水管의 물매에 따라 各種 路線 交叉点의 高를 定함으로써 地盤高를 定한다.

2. 都市計劃上 地盤高規制가 없으므로, 個人個人의 생각대로 地盤高를 競爭하고 있기 때문에 善良한 市民의 財産上의 莫大한 피해를 주고 있는 實情이므로 時急히 行政 當局은 市街地 지반고의 規定을 法規나 或은 市條例로서 定하여 施行케 하고, 對隣關係의 改善을 도모하고, 이웃 間의 明朗한 社會를 建設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협회기사 · 회원동정

▲ 제15회 임시이사회

(1970. 5. 4. 본회회의실)

출석 : 강명구회장, 김진천, 김동규, 강봉진, 이봉로, 한창진(이사), 구윤회감사, 서울지부장

토 의 사 항

1. 이중 사무실 가진자의 처벌은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키로 결의.
2. 설계도 타이틀 통일건은 김동규이사에 일임.
3. 감리업무 연구위원회 추인 결의.

▲ 제16회 임시이사회

(1970. 5. 11. 본회회의실)

출석 : 강명구회장, 김진천, 강봉진, 이봉로, 한창진(이사) 서울지부장.

토 의 사 항

1. 용역자 추천의뢰 건
   강명구회장을 지도위원으로 추대하고 가능한 한 본부임원은 제외하며 그 인선은 서울지부에 일임키로 결의.
2. 공사 감리 규정 시안
   만장일치로 결의
3. 공문처리 간소화
   이사회 결의 사항은 총무이사, 회장 결재로 시행키로 함. (각 이사 후결 없음)
4. 제주지부 운영비 보조 방안
   제주지부장의 서면 보고를 받은후 보조여부를 검토 결정키로 함.
5. 실수요자 증명
   조달청에서 증명의뢰 공문을 건설부 경유로 협회에 보내오면 증명해줘도 무방함을 결의.

회 원 동 정

★ 본 협회 김 태만 전남 지부장은 광주시 도시계획 위원 및 전남 건축 기술자회 고문으로 추대됨.

★ 김 성길 회원(신동양 건축설계사)휴업 중 재개업.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352－5

신 입 회 원

여 세 현 (삼구건축연구소)
중구 충무로 1가 24－28 28－2012

강 중 희 (시대건축설비연구소)
중구 회현동 3가 1－5 23－4415

이 보 호 (신림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신림동 86 68－1911 교33

한 상 겸 (세종건축사무소)
종로구 종로 1가3 73－1743

조 영 석 (태양공무소)
영등포구 영등포동 442 69－3659

박 규 상 (주우건축연구소)
중구 인현동 1가31 26－4638

이 철 오 (송우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시흥동 539

김 형 배 (배광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 94－2 68－0465

정 의 용 (건영건축)
서대문구 응암동 15－5 38－2438

변 종 환 (공간건축사무소)
영등포구 신길동 253－36 69－7941 교5

사 무 소 이 전

신 은 국 (남성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노량진동 315－5 69－5447

김 혜 진 (진일건축연구소)
종로구 공평동 17 72－0057

손 민 수 (경인건축연구소)
동대문구 전농동 545－24 96－5141 교47

이 지 춘 (복지건축연구소)
마포구 서교동 354－1

임 윤 동 (미림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221

김 영 석 (개진건축설계사무소)
종로구 종로 1가3

한 경 순 (합동건축설계사무소)
중구 을지로 2가 101－17 22－1198

상 호 변 경

김 봉 선 : 유일종합설계사무소

新建材의 綜合메이커

唯信化学의 新製品 案内

유신岩綿텍스 (鉱物質 不燃性 吸音 天井材)

岩綿인슈레이숀 (軽量断熱材) 防音、防青、防寒 鉄筋콩크리트、스라부建物用

世界的인 原木 무늬 그대로의 高級銘木 化粧合板

라 미 날 化粧合板 (内装材)

耐熱性 耐磨耗性 耐薬品性에 最強인 메라민 積層板

하 이 톤 (테블、카운터、家具材)

傳統과 品質을 자랑하는

유신텍스 (有機質、吸音天井材)

原板은 콩크리트 絶縁材로 많이 利用

아크릴 (自動出入門、各種沐浴槽、室内照明装飾用)

본드 (各種建材用接着剤)

模様紙 (나무 무늬의 安価이며 品位있는 室内装飾에 多角利用)

乙支路入口에 現品展示場 3月 1日 開場
一般市販品外에 特殊 新建材注文 歓迎

近代建築에 貢献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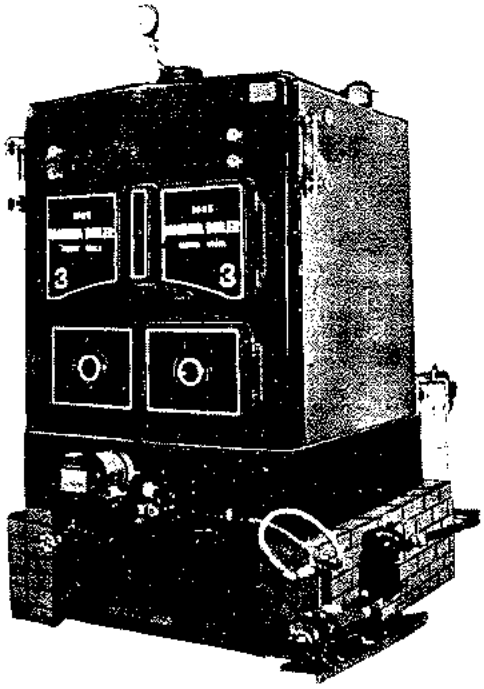
唯 信 化 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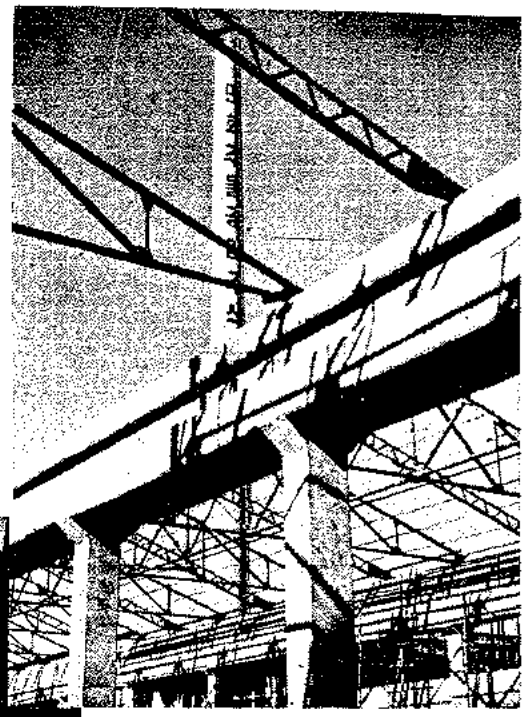
本社・工場 Tel. 62－1081, 1086, 1096, 1681
서울영업소 Tel. 22－5562, 28－9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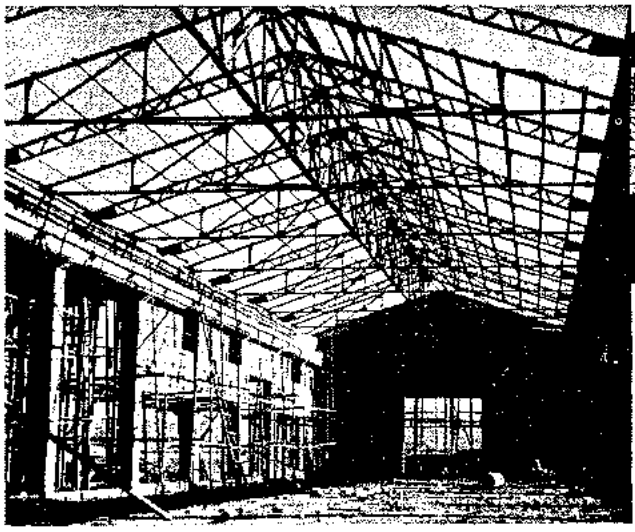
MANHWA

새로운 보일러 · 라지에타 생산을 위하여

현대화하는 **만화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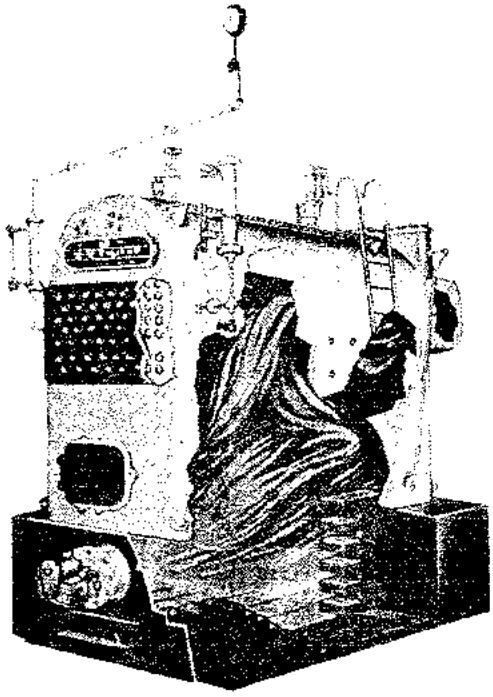
Ⓗ

만화주물공업주식회사

본 사	인천시 남구 숭의동 349	
	전 화	㉢ 2 — 0930
		2 — 3491
		3 — 1156
		3 — 1157
서울연락소	서울특별시중구장교동 48	
	전 화	㉒ — 3716
		㉘ — 7716
		㉔ — 1316

便利하고 合理的인！ —實用新案 特許 第2845號—

東光 DW型 水管式 보일러



用途

政府廳舍、빌딩、호텔、病院、食品工場、化學工場、製藥工場、纖維工場、沐浴湯、機械工場、洗濯所 等 其他。

〈受賞種別〉

- ○ 第一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서울 特別市長 優秀賞
- ○ 第二回全國優秀建設資材展示會에서 大韓建築士協會長 優秀賞
- ○ 1967年度優良工産品生産奬勵會에서 優秀賞
- ○ 第七回全國商品會에서 內務部長官의 優秀賞
- ○ 第八回發明品展示會에서國會議長의最優秀賞
- ○ 第九回發明品展示會에서大法院長의最優秀賞
- ○ 上記展示會에서 商工部特許局長의 優秀賞
- ○ 科學의 날 優秀한 機械 工産品의 發明으로 科學技術 振興한 功勞로 韓國 科學技術總聯合會長으로 부터 表彰狀을 받음。
- ○ 原動機 技術賞審査委員會의 審査에서 特殊水管式보일러部門의 技術 開發과 振興에 寄與한 功勞로 国立工業研究所長 으로 부터 技術開發賞을 받음

主要納入處

大韓住宅公社	三岡産業 Co.	大韓染織 Co.	호 수 호 텔	京畿農産 Co.
서울제과 Co.	仁川園藝組合	同和藥品 Co.	韓獨商社 Co.	廣 日 빌 딩
自由센 타	國防部建設本部	柳韓洋行 Co.	聖바오루病院	韓 國 洋 灰
産 業 銀 行	春川聖心大學	韓國유리 Co.	大興섬유 Co.	麗水觀光호텔
大田皮革 Co.	美八軍洗濯所	韓國나일론 Co.	聖心綜合病院	第 一 病 院
서울여자 學院	大韓體育會	大韓쿨크 Co.	大韓生命保險	自 動 車 保 險
韓一染色 Co.	大韓重石 Co.	清溪商街아파트	公務院訓練院	새 한 빌 딩
世 宗 호 텔	宇盛化學 Co.	大韓造船公社	林業試驗場	江 原 道 庁
中央産業 Co.	東洋紡織 Co.	올림포스호텔	南大門警察署	韓 獨 産 業
釜山鐵道廳	首都醫附屬病院	용 당 산 호 텔	大 韓 産 業	韓 国 산 토 리

東光보일러製作所

東光工營株式会社會

代表理事 朴 鍾 泰

本社： 서울特別市龍山區交培洞14의 1

電話 ㊷ 1673 ㊷ 97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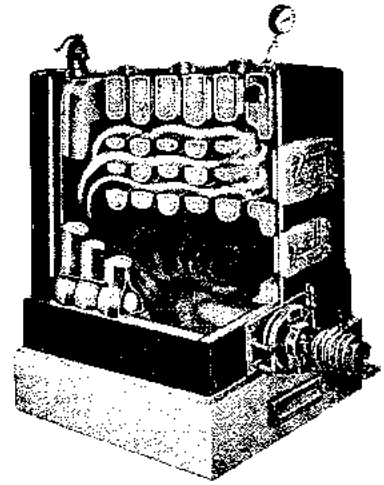
工場： 서울特別市龍山區文培洞12番地

韓国발명특허 (第2792호)
미 국발명특허 (U. S PAT No. 3410252)
카나다발명특허 (카나다 No. 811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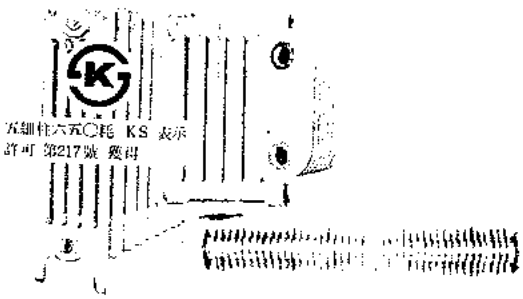
이러한 제품이라면
품질보장이 않되겠읍니까?

東震ZZ型보이라

(대통령상 수상품)



東震의 製品은 完全한
品質管理로 安心하고
使用할 수 있읍니다.



◆製品案内◆

○低壓섹쇼날 보이라
○高壓 보이라
○各種 放熱器
○콘덴세이숀 펌푸
○回轉式 蒸汽釜
○眞空暖房펌푸
○콘벡타
○電気호이스트 크레인
○住宅用 温水보이라
○로—타리 오일바나

東震鑄物製作所

서울特別市 龍山区 元曉路 1 街43
TEL. (交) 42－2221～5 番